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416-9202 / 017-365-3719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 buddhanews.com |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1월 23일(음력 12월 16일) 수요일 (주간) | 제663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 신년하례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합장하고 있다.

“전통문화 발전 등 공약 소홀함 없을 것”

이명박 당선자 종단협 신년하례법회서 밝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지관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헌화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의 개회선언에 이어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의 축원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송년의 해와 신년의 해가 다른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 다르기 때문”이라며 “하늘에 해와 달이 없으면 하늘이라 할 것이 없듯이 신년에 새로운 다짐이 없다면 신년이라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관 스님은 “지나온 길에 대한 집착보다는 앞으로 가야할 길을 더욱 살펴야하며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인사말을 통해 “대선후보시절 대덕 큰스님들의 불교적 가르침과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후보시절 공약한 대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세계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이 당선자는 “서산 대사는 눈덮인 벌판을 함부로 걸어가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오늘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을 되새겨 5년 동안 후손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색, 계’ ‘색즉시공2’ 등 불교적 이미지 사용 대중영화

창작의 자유? 불교 왜곡?

불자인 석정희(38세 · 회사원)씨는 영화 ‘색, 계’를 봤다. 영화는 1940년대 중국을 배경으로 미인계를 써 친일파 핵심인물인 정보부 대장을 암살한다는 줄거리였다. 그러나 ‘색, 계’라는 제목이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인 만큼 내용이 불교적이지는 못했다.

불자 김건우(42세 · 개인사업)씨는 영화 ‘색즉시공2’을 보고 불쾌했다. 섹시코미디물인지는 알고 봤다. 하지만 <반야심경> 구절을 차용한 ‘색즉시공’은 러닝타임 내내 노골적으로 ‘색’에만 집착했다. 굳이 ‘공’을 찾자니 한바탕 웃고 남는 것이 없어 공허하다 정도였다.

최근 개봉된 소매치기를 다룬 영화 ‘무방비도시’에는 천수관음이 등장한다. 소매치기단 두목 백장미(손예진 분)가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분이 천수관음”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지만, 연이어 보여지는 그녀 등에 그려진 천수관음 문신은 마치 소매치기 신이 천수관음인 듯한 착각도 불러일으킨다.

대다수 불자들은 영화의 불교 소재 사용은 반가운 일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를 알리기 위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어도 오해와 왜곡의 소지를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영화 매니아인 한 불자는 “저예산 코미디 영화가 현재 한국 영화 시류”라고 지적하면서 “영화 ‘색즉시공’은 오락성 영화에 고귀한 이미지를 담아 비싸게 보이고 싶은 일종의 역설”이라 비판했다.

‘색즉시공2’의 윤태윤 감독은 “불교 폄하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한 뒤 “남녀 간 사랑에서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적절히 표현할 구절을 찾다보니 <반야심경> 구절이 택해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다수는 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창작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송희복 교수(진주교대)는 “현대 문화현상의 키워드는 소통이다. 이것은 성과 속의 소통, 불교와 비불교의 소통이다. 열린 불교를 위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산업에 대한 교계의 미약한 기반이 더 큰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해곡 스님(불교언론위원장)은 “미국에서는 달라이 라마 영향으로 많은 불교 영화가 제작된다. 리처드 기어 등은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불교 영화 기반이 약하다”고 지적한 뒤 불교영화제도 없고, 한국 영화산업에 교계의 투자 등이 전무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인재불사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 교수)은 “불교적 소양을 갖춘 영화 감독 · 시나리오 작가 등이 많이 배출돼야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불교가 배경이 된 영화 중에는 ‘달마야 놀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 재미와 감동을 준 영화도 많다. 하지만 종교적 배경을 둔 영화가 흥행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 요즘은 제목이나 내용에 부분적으로 담기고 마는 경우가 많다. 또 상식을 깨고 고정관념을 뒤집는 트렌드에 발맞춰 성스러운 이미지를 희화화해 더 큰 자극을 주고자 발칙한(?) 상상들이 계속 시도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성(聖)과 속(俗)의 경계에서 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허허당의 세상 만사



■ 순결한 성전

잡초는
몇 번을 밟혀도
다시 고개를 들지만
꽃은
단 한번을 밟혀도
다시 고개를
들지 않는다.
마치 고귀한 사랑이
단 한번의 상처로
죽어 가듯이

태릉 선수촌 법당 재개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태릉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이 재개원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월 23일 오후 1시 태릉선수촌 필승 주체육관 1층에서 ‘선수촌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선수촌 법당은 그간 시설낙후와 관리 소홀로 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번 선수촌 법당 불사는 지난해 포교원에 포교기금을 기탁한 한마음선원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태릉선수촌 필승 주체육관 2층에 마련된 선수촌 법당은 70여 평 규모로, 50여 평의 법당과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령 기자

비리·부정부패 종단 ‘꼼짝마’

교단자정센터 초종단 감시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각 종단들의 비리나 부패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초종단적인 감시기구를 설치하며, 종단의 호법부서를 거치지 않고 즉각 사회법으로 대응하겠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 교단자정센터는 1월 16일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교단자정상담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 상담소는 종교 교단의 청정성 회복을 위한 각종 비리 제보를 접수한 뒤 대책을 마련하고, 민원과 상담 창구역할도 할 예정이다. 또한 제보자 보호 상담을 비롯해 법률대응 자문, 요인 청렴정보 DB관리 등도 맡는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계 4대 종단을 대상으로 자정 실천을 위한 투명사회협약 참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상담소 현판식에 이어 각 종단지도자들에 대한 청렴성과 신뢰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년계획도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교단지도자 청렴성 평가와 인증시스템 구축, 자정네트워크 구축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단자정센터는 ▲대중이 참여하는 108평가단 조직 ▲불교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 ▲교단지도자 청렴성 신뢰도 평가지표 개발 ▲요인 청정관리 시스템 구축 ▲청정보시금 확보 ▲국고보조금 투명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02)2278-3417 김주일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제2 창종 각오로 종단화합 진력"

진각종 올 불사계획 발표


1월 17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올해 3대 역점 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진각종이 지난해의 내홍을 딛고 올해 종책 목표를 '종풍 쇄신을 통한 제2의 창종 기반 구축'으로 정하며 3대 역점 불사를 봉행할 예정이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월 17일 서울 월곡동 통리원에서 불교계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화합 ▲진각문화전승원 건립 ▲사회회향 불사 등 올 3대 역점 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진각종이 상반기부터 역점을 둘 것은 종단 화합불사다. 지난해 효암 前 통리원장의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진각종은 종헌종법 정비와 산하기관 운영 관리체계 강화, 관련 규정 정비 등 교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현 진각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위덕대와 연계한 학위를 수여하는 등 스승 양성체계를 심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북인도에 건립한 따보승원에 교화자를 파견해 티베트 스님들과 수행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진각종은 또한 교도들의 목소리를 종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론 수렴 체계도 마련할 생각이다. 정기적인 종책설명회 개최와 지역 내 심인당 4~5개를 엮는 '교화 허브 심인당' 개념을 도입해 신교도 중심의 능동적 교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어 눈에 띄는 불사는 지난해부터 계획해온 '진각문화전승원'과 '진각복지센터' 건립을 함께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진각문화전승원'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2010년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는 기존 건물의 철거를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진각종은 밀교사 연구 및 종단사 정리, 북한 불교관련 자료 수집 및 관련 도서 발간 등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진각종이 그동안 야심적으로 진행해 온 복지사업은 진각복지재단 설립 10년을 맞아 12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설 진각복지센터 건립,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설립, 미혼모 지원사업 본격화 등을 전개키로 했다.

이외에도 진각종은 올 상반기 중으로 대구시와 함께 '2011 대구 육상선수권 대회 성공 기원 대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또한 밀교문화 복원을 통한 심도 있는 종단 문화 법회 개발에도 진력할 방침이며, 남북불교협동농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스리랑카에 국제학교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올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내홍이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인만큼 제2의 창종을 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지난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신교도 배가 운동과 대중 교화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사찰-포교사간 연계 강화해야"

조계종 '포교사 제도 현황과 제문제' 토론회 개최

포교인력 확대를 위해 마련된 포교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원)는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포교사의 현황과 제문제'를 주제로 토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을 비롯한 일선 포교사 1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포교사는 1980년 '법사' '상임포교사'의 명칭으로 선발 운영되다, 1995년 현재의 포교사 선발제도로 변경 ·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5000여 명의 포교사를 배출해, 현재 2981명이 자격을 유지 · 활동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포교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포교사'에 대한 역할과 활용방안을 규정하는 법령이 미비해 실제 사찰에서의 포교사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포교사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 거론됐다. 또한 포교사단을 운영하는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은 "우수한 포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음에도, 일선 사찰과의 연계 부족으로 일선 사찰에서는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찰과 포교사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포교사의 재적사찰활동을 평가할 방식을 도입하거나 포교사 선발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재적사찰 내의 봉사활동을 주지스님이 평가하는 방법, 포교사단 내 사찰의 지원하는 팀을 조직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도 포교사단 내의 팀조직을 유기적으로 분할 조정하고, 자체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표준활동 지침서를 제작해 포교활동의 정례화를 도모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은 "현재 종단 내 포교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활동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교회 투표소 개선 노력할 것"

중앙선관위, 선교행위 재발방지 방안 등 마련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대 대선에서 불거진 교회 투표소의 선교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가 지난해 12월 19일 접수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관한 공문'에 대해 1월 9일 이 같이 회시했다. 중앙선관위는 회신문에서 "종평위의 요청내용에 따라 공문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 선정과 시설이용에 대해 설명했고 일부 종교계에서 발생한 선교행위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교육을 병행,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14일 논평을 발표하고 "중앙선관위의 공문내용을 보면 이용원칙 등이 명시돼 있어 불교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중앙선관위에 현대화된 사찰과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현황 자료를 제공해 2008년 4월 총선에 선택되거나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며 이런 요청에 중앙선관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구두답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종평위의 노력은 종교적 대립을 지양함에 있다"고 강조하며 "종교계의 형평성을 개선함은 물론 향후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와 특정 종교계의 선교행위에 대한 대책과 노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종자연은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갈등 조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신뢰성을 위해 투표소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앞으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치는 한편, 이로 인해 침해되는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수령·김강진 기자

"태안 주민에 희망을" 불교계 성금 잇달아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피해주민을 위한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가 1월 16일 성금 800만원을,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가 17일에는 성금 500만원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에 전달했다.

16일 열린 전달식에서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직접 피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지역 여건상 찾아가지 못해 교구본사와 말사를 비롯한 지역 사부대중과 대구지방경찰청 경승모임이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자연이 하루 빨리 회복돼 건강한 생활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17일 지관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지난해 동지부터 신도들이 정성을 모아 모금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 불교계가 피해복구 및 지원에 많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광주지사 : (062)268-1508
전북지사 : (063)910-519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李 대통령 당선자 대운하 추진 의지 표명

시민단체 "특별법 중단해야" 반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월 14일 열린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자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대운하가 민자사업임을 강조했다. '정부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은 대운하 건설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구간 중 민자로 추진하는 곳은 경부운하 뿐, 호남과 충청운하는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어 이 당선자는 "(대운하 사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다"며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000번 넘게 만나 설득했다"는 말로 대운하 추진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기자회견 후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월 14일 성명을 내고 "대운하 특별법 추진 중단 및 인수위 내 대운하 TF를 해체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대운하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투자왜곡과 땅값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령 기자

재)대한불교진흥원

2008학년도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서울, 부산]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과정

● 대학 과정(서울 · 부산)
◇입문과정(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불교학과 (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명상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대학원 과정(서울 · 부산)
◇불교학과(서울·부산) : 야간 00명 [주 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법사 과정(서울 · 부산)
◇법사과정(서울·부산) : 주·야간 00명 [3년제, 주 2회 출석]

강의시간 ●주간 -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야간 - 오후 7시부터 9시 40분까지

지원자격 ●대 학 과 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 불자 및 직장인 환영)
●대학원과정 : 불교학과 - 불교 교양 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학과 졸업자, 상담심리과정 이수자
●법사과정 : 불교전법활동을 원하는자. 포교원,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자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3일
●입문·대학·대학원 전형 : 서류 전형

입학식일시 ●부산대원불교대학 : 2월 23일(토) 오후2시 대원불교대학2층 큰법당
●서울대원불교대학 : 2월 24일(일) 오후2시 다보빌딩 3층 다보사 큰법당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학과목 소개

● 대학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개론. 인도불교사. 불교의식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부파불교의 이해. 불교경전 강독. 유식사상. 중국불교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한국불교사상.
◇명상학과 : 불교명상학의 이해. 종교명상학의 이해. 선의이론. 명상교수법 명상학연구. 간화선의 이해. 위빠사나수행의 이론과 이해. 인도불교명상의 이론과 이해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불교와 심리. 상담의 실제. 상담심리학의 기초. 집단상담의 실제. 성격심리학. 불교학개론.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 불교와 마음치료. 불경과 상담, 발달심리학. 상담실습. 심리평가. 유식사상. 화엄사상

● 대학원과정
◇불교학과 : 초기불전강독. 중관학연구. 부파불교연구. 정토사상연구. 초기불교연구. 유식학연구. 대승불전강독, 화엄사상연구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상담면접 및 실습 집단상담실습. 심리검사. 상담자교육. 인지치료및 이해. 청소년상담및 실습

● 법사과정
◇불공의식. 장례의식. 사찰습의. 설법연구. 설법이론. 설법실수 사찰경영론. 신도관리론. 종무행정론 외

교수소개

[불교.명상학과 및 법사과정]
◇혜 거 스 님 : 금강선원장
◇정 엄 스 님 : 동경대박사,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송석구 교수 : 전 동국대 총장. 철학박사
◇김충렬 교수 : 고려대 명예교수. 남명학연구원 원장
◇조성택 교수 : 고려대 철학과교수
◇윤원철 교수 : 서울대 종교학과교수
◇허경구 교수 : 인도바라나시힌두어대학교 박사과정수료
◇김사업 교수 : 일본국립경도대학교 박사과정수료
◇미 산 스 님 : 중앙승가대 교수
◇지 장 스 님 : 대원정사주지. 초의차명상원장
◇김용정 교수 : 동국대명예교수. 철학박사
◇권기종 교수 : 동국대명예교수
◇김항배 교수 : 동국대 철학과교수
◇장휘옥 교수 : 일본동경대학교인도철학과 석.박사
◇최봉수 교수 : 동국대학교대학원석.박사과정졸업
◇김재성 교수 : 일본동경대학대학원 석사과정졸업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전현수교수 : 전현수신경정신과원장
◇심지은교수 :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수료
◇김은희교수 :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수료
◇권경희교수 : 연세대 교육대학원상담교육 전공. 상담전문가
◇황수경교수 : 미국위스콘신대학원 사회복지학과정수료
◇최진승교수 :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문명혜교수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겸임교수

특전
◇법사과정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 합격자에 한하여 법사수료증을 수여
◇불교전문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부여
◇명상전문지도사 1,2급 자격증 부여

문의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 전화 02)707-1072, 706-1571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 전화 051)583-7811

(재)대한불교진흥원
Daewon never 대원불교대학·대학원

불교인재개발원 中선적지 순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3월 10~13일 중국 항저우(抗州)로 선유적지 순례를 떠난다.

특히 이번 순례에는 고우 스님과 무비 스님이 동행, 각 선적지에 얽힌 대혜 · 고봉 스님 일화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법문을 펼쳐 공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순례지는 중국 오대 불산(佛山) 중 하나인 천목산과 대각국사 의천이 창건한 고려사, 고봉 스님이 단교화상을 만나 선 수행을 시작한 정자사, 대혜 스님이 조실로 주석했던 경산사, 대혜 스님의 견성처로 유명한 천령사 등이다. 접수 마감은 2월 12일까지다.(02)735-2428 김강진 기자

조계종, 어린이법요집 발간

어린이 포교자료를 펴내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세 번째 자료로 <어린이법요집>과 '어린이법회 의식곡 음반'을 선보였다.

어린이법회 의식 표준안을 제시한 <어린이법요집>은 '어린이 집회가' '삼귀의' '어린이 오계' '새법우 환영가' 등의 의식곡을 비롯해 아이들의 생일에 부를 수 있는 '생일축하곡'을 새로 작곡해 실었다. 법회 의식곡을 기존의 느리고 엄숙한 이미지를 탈피해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녹음한 점과 전통악기와 현대악기를 함께 사용해 빠르고 신나는 느낌을 더한 것도 눈에 띈다. 또한 어린이들이 넘기기 쉽도록 스프링 제본법을 이용했으며, 종이가 닳거나 손이 베이지 않도록 코팅을 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 실용성을 더했다. 절하는 법과 사찰 기본예절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02)2011-1893 여수령 기자

대불련 '겨울 수행학교'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정현, 이하 대불련)가 2월 21~24일 3박 4일간 충주 석종사에서 '보람찬 겨울방학, 대학생 불자들의 수행나기'라는 주제로 '2008 겨울 수행학교'를 연다.

이번 수행학교는 2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깨어있는 삶'과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문과 포교 및 발원을 주제로 한 공동체 수행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24일에는 회향식과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스님을 지도법사로 하는 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02)732-0239 김강진 기자

"부처님 생애 영어로 말해요"

국제포교사회 '제1회 어린이 불교 영어 암송대회' 개최

"제가 들려 드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입니다. When Siddharta was nineteen, King Suddhodana arranged the marriage of the prince to the princess Yasodhara. She was very wise as well as beautiful(싯다르타 태자가 19살이 되자 슛도다나 왕은 왕자를 야소다라 공주와 중매결혼 시켰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만큼 현명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나온 어린이들이 꽤 유창한 발음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Biography of Buddha for Children>의 한 부분 또는 <본생담(Jataka)>의 이야기 중 하나를 영어로 외워 암송한다. 객석에서는 어른들의 흐뭇함과 놀라움이 교차된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과 국제포교사회(회장 강영성)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연 '제1회 어린이 불교영어 암송대회' 본선에서 펼쳐진 광경이다.

이날 대회는 초등 저학년부(1~3학년) 5명과 고학년부(4~6학년) 5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작정 귀엽게만 본다면 오산이다. 이날 치러진 본선 진출자 10명은 1월 5일 60여명이 참여한 예선을 뚫고 올라왔기에 표현력도 수준급인데다 발음도 야무지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 전체 대상을 차지한 정영성(9 · 봉녕사 소속) 어린이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본생담> 이야기 중 욕심 많은 여자가 황금 거위 털을 모두 뽑아버려 다시 가난해진다는 줄거리를 가진 'The Golden Goose(황금거위)'를 암송, 큰 박수를 받았다. 정 어린이는 "제가 암송한 영어 원고가 심사위원들의 가슴에 가 닿았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혀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받았다.



아이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화제가 된 '제1회 어린이 불교 영어 암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영성(9·사진 오른쪽) 어린이와 깜찍한 소품으로 인기를 모은 김남주(8) 어린이의 모습.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불자 어린이들에게 불교영어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대회를 정례화 시키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불교영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영어 암송대회 외에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영어 골든벨 등도 열려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이날 대회 후 국제포교사회 신년법회 및 제12기 국제포교사 환영식을 진행했다. 김강진 기자


한마음선원 신도와 현대불교 직원 등 500여명이 1월 13일 태안 모항리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벌였다.

한마음선원·현대불교 직원들 태안 봉사활동

추위도 잊고 기름 제거 구슬땀

태안 해변에는 아직 기름 냄새가 가득하다. 사상 최악의 해양 기름유출 사고 38일째인 1월 13일, 태안에 봉사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선원과 본사도 태안 모항리 일대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마음선원은 본원 및 지원에서 관광버스 차량 10대를 동원, 약 500여명의 신도가 이날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펼친 모항리 일대는 전체적으로 바위와 자갈 등으로 이뤄져 피해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다. 자갈 하나를 들어 들춰보면 각종 어패류들이 고사(枯死)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 기름이 묻어 닦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없이 봉사활동을 묵묵히 수행해냈다.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이날 기름제거 작업을 위해 직접 만든 천연유화제를 사용, 바위와 자갈의 기름때는 닦고 환경오염은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합심해 모은 면 수건과 옷가지, 흡착포 등의 기름 제거 물품들을 직접 챙겨오기도 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재난이다"며 "앞으로도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끔 언론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해인사, 국립공원 해제 요구

"환경 개념 아닌, 국가문화유산지역으로 관리돼야"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가야산 해인사 일원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가야산해인사일원'은 1966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및명승'에 지정됐고, 72년 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 받고 있다.

해인사는 1월 15일 "해인사 및 가야산 일원은 세계문화유산지역이자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환경적 개념으로 관리되면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게 됐다"고 해제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인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이용하는 가야산의 대다수 지역이 해인사 소유토지로, 국가가 손실보상이나 이용료 없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무상 점사용하며 일반에 개방하는 일은 위헌적이라고 사료된다"며 "'가야산해인사일원'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이 지역이 환경부에서 생태 · 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아닌 문화부(문화재청)가 국가문화유산지역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드린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산객들이나 관람객들은 가야산해인사 일원의 문화재를 탐방하면서도 문화재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환경적 의미에서의 국립공원이라는 인식만 갖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장성 백양사에 이어 두 번째로, 해인사의 국립공원 해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인사의 국립공원 해제 요청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 온 문화재관람료 징수 반발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인사는 국립공원 해제 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 등 문화재 전문기관에 전달한데 이어, 해인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조계종 교구본사와 중앙종무기관에도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여수령 기자



통도사 앞 고층 건물 "안될 말"

스님들 "수행환경 · 주변경관 훼손" 반발

영축통립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산문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거리에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대형 콘도가 건설되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동일리조트에서 시공 중인 콘도는 높이 70m의 고층 건물로, 규모 28710㎡(연건평 8700평)에 지상 16층 114실 규모다. 또 통도사 경내지 산문 앞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아쿠아 환타지아 내에 위치해 수행환경을 침해하고 주변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월 13일부터 사회국장 진응 스님은 '통도 환타지아 동일 리조트 콘도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공사현장 200m 앞에서 천막 농성 및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진응 스님은 "양산 통도사 앞에 신축 중인 동일리조트 콘도 건물은 16층의 대규모 위락 시설로 영축산을 가리는 등 경관을 훼손하고 지하 1000m의 용천수를 사용해 자연과 문화재에 심각한 훼손을 줄 뿐 아니라 수행 환경을 파괴한다"며 공사 중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통도사는 앞으로 통도사 신도회 및 말사 등 대규모 집결 단식 투쟁에 동참 하고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와 동일리조트는 1월 18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성미 기자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 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수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가격 88,000원

•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 · 기관지

도라지 진액으로 …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추운겨울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격 130,000원



내용량: 110g×3병

제조
(주)고려한방제약
구입문의 1566-1940

농 협 1285-02-011378 이현실(고려한방)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질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나옹 왕사 재조명’ 학계·지자체 맞손



영덕군·대각사상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靑山兮要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蒼空兮要我以無垢)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 놓고(聊無愛而無憎兮)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如水如風而終我)”라는 노래는 드라마 주제곡 등에 사용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듣고 흥얼거린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 노래가사가 나옹 스님의 선시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나옹 스님(1320~1376)은 인도 고승 지공 스님, 조선건국에 기여한 무학 스님과 함께 3대 화상이자 고려 공민왕과 우왕 때 왕사를 지낸 여말선초를 대표하는 선지식이다. 그동안 원효, 의상 등 신라 고승이나 조선중기 보조 국사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했지만 나옹 스님 등 여말선초 불교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었다.

나옹 스님의 고향인 경북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1월 25일 오후 2시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과 함께 ‘나옹 왕사 재조명 학술세미나’를 연다.

학계는 일단 지자체와 학술단체가 함께 행사를 여는 경우가 드문 가운데 희소식이라는 분위기다. 또 이번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지자체의 인문 학술연구 동참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술세미나는 1부 의식행사와 2부 학술발표, 3부 종합토론 및 질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술발표는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기조강연 ‘나옹 왕사 유업의 재조명’으로 시작된다.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발표하는 ‘나옹 왕사의 생애와 행적이 문화에 미친 영향’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나옹 왕사의 생애를 재조명한다.

보광 스님(대각사상연구원장)의 ‘나옹 왕사의 정토사상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과 신규탁 교수(연세대)의 ‘나옹 왕사의 선사상’ 등 2편의 논문은 나옹 스님 사상을 선과 정토로 크게 나눠 정리한다. 이재수 박사(동국대)의 ‘나옹 왕사 행적을 이용한 문화재 콘텐츠 개발방안’은 역사적·사상적으로 검증한 나옹 스님 사상과 업적을 어떻게 문화상품화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깊게 고찰한다.

영덕군 임성장 과장(문화관광과)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옹 스님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은 물론 영덕군이 왕사를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임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영덕 역사와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을 잇는 ‘나옹 왕사 성역화 사업’을 진행해 전국적인 불교순례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말 구산선문과는 다른 임제선풍을 도입해 불교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나옹 스님이 21세기에는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전국 각 사찰 ‘성도재일 기념 법회’ 열기 가득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성불의 길로…

불기 2552년 성도절(음력 12월 8일)을 맞아 1월 15일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성도재일 법회가 봉행됐다. 성도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는 14일 오후 9시부터 15일 오전 4시까지 성도재일 기념 철야정진을 실시한 후 15일 오전 10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철야정진에서는 1080배와 <금강경> 독송 등을 통해 부처님의 참된 깨달음을 되새겼다. 15일 열린 성도재일 법회는 천수경과 거불, 108참회문 독송, 정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지 원학 스님은 “불자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 성도절 하루만이라도 마음으로 출가하고 철야정진을 하며 정진했다”며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문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도 9일부터 진행해 온 7일 참선정진과 성도재일 전야 철야정진을 회향하는 법회를 15일 법왕루에서 봉행하는 등, 전국의 사찰에서 성도절 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전 비구니 청림회는 15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제22회 성도절 대법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 불자화합 대축제’를 봉행했다. 이날 청림회는 자랑스런 불자상을 대전시청 전형진 불자에게 수여하고 보문고교 재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충남대학교 불교 동아리에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초청법사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은 “부처님께서 성도 후 삼독심(貪·瞋·痴)으로 부처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일대사 인연법을 설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마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반성해 번뇌망상을 버리고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는 14일 성도절 특별법회에서 중앙승가대학 학장 종범 스님을 초청법사로 ‘성도란 무엇인가’ 법문을 들었다. 저녁 7시부터 용화사 대웅전을 가득채운 500여명의 불자들에게 종범 스님은 “성도는 모든 고통과 액난을 해결하는 종법생안(宗法生眼:법으로 깨달은 눈)을 갖는 것”이라며 “지혜와 자비원력으로 믿고 닦으면 신심이 생기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그 길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면 성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구사원주지연합은 15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회원 사찰스님과 지역불자 2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연합회장 법혜 스님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위없는 진리를 깨달아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의 삼독을 소멸하고 지혜와 보시, 자비를 실천하여,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청정한 불국정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조합 원우회(위원장 장영욱)는 14일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1080배 정진을 한데 이어 15일 오전 종무 조회시간에 108배 기도정진을 봉행했다. 원우회는 성도재일을 맞아 앞으로 <우리말 금강경> 소책자를 제작 배포해 매일 독송하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전 비구니 청림회가 1월 15일 제22회 성도절 대법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 불자화합 대축제’를 봉행했다.

‘색즉시공’이 섹시코미디 영화 제목?

특별기고



혜룡 스님
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과정
banyagong@naver.com

‘색즉시공’이라는 섹시코미디 영화 2탄이 상영된 지 한 달이 지났다. 5년전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계는 아무런 대응도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색즉시공’은 불교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반야심경>의 유명한 구절이다. 그런데 그것이 음란코미디영화 제목으로 사용된 것이다. 나는 이번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고자 이 영화를 두 편 다 보았다.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1, 2편 모두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속한 장면이 이어지고 온갖 상스런 욕과 저속한 말들이 대사로 사용되었다. 불교에서 제목을 빌어다 쓴 영화 ‘색즉시공’은 한 마디로 불교를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영화를 보며 내가 승단에 몸담고 숨 쉬며 살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치욕스러웠다.

이런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불교계가 단호하게 대응을 했다면 2탄이 나왔을까? 아무 대응도 없었기 때문에 2탄까지 나온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3탄, 4탄이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반야심경>을 넘어 불교경전의 모든 용어나 불교의 성스러운 상징물들이 앞으로 코미디와 음란물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종교적 상징이라는 것은, 그것이 글이든 형상이든, 신자들은 이 상징으로써 그 종교가 지향하는 성스러운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혹은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의 중요한 상징에 대해서는 성스러운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며,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계는 어떠한가?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심경> 핵심구절이 음란코미디영화 제목으로 길거리에 선전포스트가 나부끼는데도 교계 지도자는 물론 사부대중이 보이는 태도는 너무나 조용하다. 나는 이러한 사실이 한국불교지도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늦었지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계 지도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출가대중의 각성을 촉구한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최종석(금강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이평래(충남대 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월 2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 이평래교수, 무진장스님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3월개강 학과 및 교수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1 · 2), 노자(1 · 2), 중국고전(1 · 2), 한국고전(1) · 불교경전(1 · 2), 삼국유사(1)	임채우(연세대교수),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한국의 현다례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적경스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미혜교수, 최청자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요가삼밀학과(2년) [지도자과정]	· 요가이론, 요가수트라, 요가생리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아사나실습, 요가자기진단법, 요가운동처방법, 삼밀수인법, 삼밀무드라법, 삼밀만트라법, 만다라작법, 관정법, 밀교명상법 등	안지용 교수, 허일범 교수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신:5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3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정규:30명) · 요가삼밀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1월15일 ~ 2008년 3월 4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사찰음식문화학과) · 매주 일요일 오후1시30분(요가삼밀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개강일시 한문학과 : 3월 6일 (목), 다도학과 : 3월 4일 (화), 불교미술학과 : 3월 4일 (화)
불교장례문화학과 : 3월 4일 (화), 사찰음식문화학과 : 3월 5일 (수), 요가삼밀학과 : 3월 16일 (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부처님 되신 날 '선방문' 열리다

부산 길상선원 성도재일 맞아 선원 개방



길상선원의 선원 특별개방으로 수좌스님들과 정진에 몰두하는 재가불자들.

"성도재일을 맞아 수좌스님들과 함께 정진할 수 있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요."

1월 15일(음력 12월 8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대오의 날, 성도재일을 맞아 부산 묘관음사 길상선원(주지 혜오)이 선방을 재가불자들에게 이례적으로 개방해 눈길을 끈다. 수좌스님 12명과 재가자 30여명은 14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함께 정진하며 자세부터 화두, 호흡법까지 차례로 지도받으며 구도 열정을 불태웠다. 동안거 기간 선원을 재가불자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정진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

주지 혜오 스님은 "해마다 성도재일이 되면 향곡 스님은 50~60여명의 재가자들을 선방에 동참시켜 함께 정진하셨다"며 "향곡 스님 열반 29주년을 맞아 그 뜻을 받들어 특별히 이번에 선방을 개방했다"고 개방 취지를 밝혔다.

향곡 스님은 1947년부터 청담 · 성철 · 자운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고 성철 스님과는 서로 탁마한 도반으로 유명하다. 묘관음사 길상선원은 향곡 스님이 선방 문을 열고 성철 스님과 고우 스님이 정진했던 사찰이어서 참가자들은 감회가 더욱 새롭다고 입을 모았다.

"향곡 스님은 선승이시며 참선 외엔 모르는 스님이셨습니다. 향곡 스님은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업장이 소멸되는데 선방에서 수좌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냐'며 그 인연을 참가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업장이 지워지고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가자들에게 정진을 당부하며 격려한 혜오 스님은 정진해야 하는 이유와 화두, 참선, 자세를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부처는 마음 속의 깨끗함을 의미하고, 법이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광명을 뜻하며, 도(道)란 그 광명이 골고루 거리낌 없이 두루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진하는 동안 화두를 보고 깨달으려고도 말고 버리려고도 말며 단지 붙들고 있으십시오. 화두란 소의 고삐입니다. 1초에 700번이나 죽고 사는 그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여 성품을 보기 위한 수단이니 도를 깨닫기 위해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정진해야 하는 이유는 다 겁의 업력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의 깨끗한 성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묘관음사 길상선원을 찾은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6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나이층도 다양했다.

신문에 난 작은 예고 기사를 보고 묘관음사까지 혼자 찾아왔다는 박석원(대청초6) 학생은 "집에서는 아버지의 지도로 매일 한 시간씩 참선해보긴 했지만 스님들의 선방에서 하기는 처음"이라며 "스님들이 하시는 곳이라 분위기와 느낌이 웬지 더 엄숙한 것 같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묘관음사에서 기도와 참선 수행을 병행하고 있다는 신도 김종희(70)씨는 "이런 기회를 맞아 스님들과 함께 정진할 수 있다는 환희심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며 "더욱 심신이 나서 정진할 수 있었다"고 느낌을 피력했다.

하성미 기자

영어 템플스테이 개최

25일부터 부산 홍법사

시대 흐름에 발맞춘 포교,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가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 동안 개최된다.

주지 심산 스님은 "영어 템플스테이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불교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이다"며 "사찰 체험을 통해 바른 불교문화를 접하게 함으로 인성함양과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 유발도 아울러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영어로 된 공양게송, 삼귀의, 사홍선원, 반야심경, 영어 찬불가 등으로 마련된다. 교사는 영어 원어민 및 전공자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선착순 30명으로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051)508~0345

하성미 기자

미륵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월 11일 김해 미륵종 총본산 관음정사 승려교육장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신년하례법회에서는 미륵종 종정 연화 스님과 총무원장 송정, 교육원장 정업, 포교원장 마하비구니회장 동성 스님등 종단 원로스님과 전국 각 말사스님 100여명이 동참하여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미륵종은 1월 11일 총본산 관음정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연화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새해에는 총무원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승려교육에 종단의 더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종단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미륵종 회보를 창간해 매월 1회 발행할 수 있도록 종도스님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민 경남서부지사장

3주년 맞아 기념잔치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원장 현기)이 개원 3주년을 맞아 1월 15일 어르신과 가족들을 모아 작은 기념 잔치를 열었다.

오기원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생일 축하연을 연적이 없었는데 3년 동안 직원 여러분들과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며 "이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재 중풍 및 치매 어르신 6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에 중점을 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 광고 · 구독문의
(051)632-4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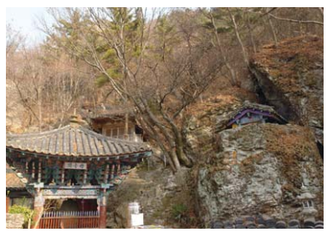
불국토를 찾아서

김해 무척산 모은암(母恩庵)

바위틈에서 퍼지는 불심의 메아리

어머니가 그리워 바위를 깎아 지은 절 무척산 모은암(母恩庵).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과 상동면 경계에 우뚝 솟아 낙동강을 양쪽으로 굽어보고 있는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어우러진 무척산 중턱에 위치한 모은암(주지 혜수)은 1700년 역사의 향기가 배어있는 가락국의 고찰이다. 가락국 제2대 거등왕이 모후인 허 왕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건한 가야시대의 절이란 설과 김수로왕과 혼인을 한 허 왕후가 고국의 부모를 위하여 부암과 모암을 세웠는데 지금의 모은암이 되었다는 설이 전한다. 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말사다.



효심과 역사 향기 배어있는 고찰
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열 계획

그리 크지 않은 절이지만 바위면 한 쪽에 축대를 쌓고 건물을 지어놓아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한적한 산속에 쉼 없이 울려 퍼지는 독경소리는, 낙동강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에도 부처님 법음을 전해준다.

가람의 구성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는 물론 뒤편에까지 바위들이 솟아 있는데, 대웅전 뒤쪽 바위 토굴에 관음전이 있고, 왼쪽에는 공양간과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 오른쪽에는 '어머니의 소리'라는 뜻의 모음각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는 범종각이, 요사채 위쪽에 삼성각이 자리하고, 삼성각 왼쪽 아래 산신각이 터를 잡고 있다. 이러한 전각들은 거대한 바위 위에 암자가 세워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주위 바위들과 잘 어우러져 있는데 몇몇 전각은 많이 낡아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모은암은 원을 세우면 꼭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으로 그동안 대웅전 및 요사채의 건물이 오랜 풍상으로 비가 새고 노후화 되어 많은 불자들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대웅전과 요사채 불사가 시작됩니다. 올 초파일에 불사를 회향하게 되면 기도도량으로 새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지 혜수 스님은 우선 불사를 통해 기도도량의 면모를 새롭게 할 생각이다. 또 스님은 산중사찰에서 탈피해 일반 시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3월부터는 김해 시내에서 복지관을 대여해 불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도록 불교대학을 개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모은암이 먼 옛날 장유화상이 일곱 왕자를 데리고 수행했던 터였으므로 그 기운을 의지하여 템플스테이도 열 계획이다.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선의 근간을 이루어 토속불교에서 선불교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또한 사찰 주변에 약 2000평의 땅이 있어 주말농장을 운영해 일반인들에게 감자, 고구마 등을 심게 하여 선농일치 사상을 고취할 생각이다.

찬바람이 불어 더 칼칼한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은암 대웅전에서 <부모은중경>을 독송하고 싶다. (055)335~9200

오세룡 부산지사장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 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0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8년 1월 29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의대학
대 전 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 학 림

한국 총장 손혜인

일 주 문



부사학원 자매결연 25주년
청담학원 설립자 혜성 스님은 일본 부사학원과의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부사학원에서 1월 17일 열린 기념식에 청담학원 교사 3명 학생 3명 등과 함께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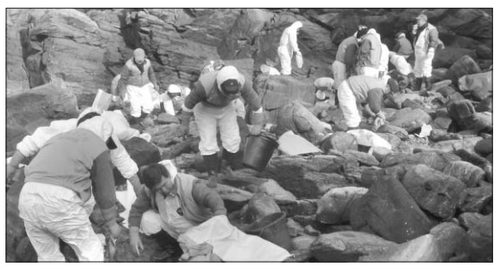


2008 사랑나눔 한마당 축제 쌀 기증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서대문구 희망 2008 사랑나눔 한마당 축제'에 20kg들이 쌀 80포대를 기증했다.



이사회서 기본재산 증자
사단법인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은 1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기본재산을 5000만원 증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단 기본재산은 9억5000만원이 됐다.

한국운전자불자회 태안 봉사



한국운전자불자회 대전지역회 금강지부(회장 이규상)가 1월 10일 태안 기름유출 지역을 찾아 자비행을 펼쳤다. 60명의 회원이 동참해 바위 구석구석의 기름을 닦아내며 하심하는 시간이었다. **혜철 충청지사장**

연방사 노래자랑대회 개최



예천 연방사(주지 일봉)가 1월 15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했다. 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로 활동 중인 연방사 주지 일봉스님은 노래를 통한 포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날 노래자랑 대회에는 가수 임부희씨가 출연해 흥을 돋웠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혜오 자원봉사 연합회 침술봉사



혜오자원봉사연합회(회장 혜오)가 1월 13일 옥천 대성사에서 37사단 111연대(연대장 최경식 대령) 장병들에게 침술, 카이로프라틱 시술 및 상담 봉사를 했다. 2006년부터 매월 2·4주 일요일 오후2~5시 옥천 대성사에서 의료 및 법률상담 봉사를 해온 혜오자원봉사연합회가 군장병을 대상으로 시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혜철충청지사장

제4회 보현학술상 수상

금강대 안성두 교수



보현학술상 제4회 수상자로 안성두 교수(금강대 · 불교문화연구소장)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월 15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열렸다.

안성두 교수는 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독일에서 <유가지론에 있어서의 번뇌설>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안 교수는 학술진흥재단 HK 연구사업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의 연구' 단장이다. 한편 금강대 HK사업은 향후 10년간 진행될 연구로 불교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현학술상은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 산하 보현장학회에서 2004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보현장학회는 신진 불교학자 발굴을 목적으로 학술과 포교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해 매년 1회 시상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인사 **조동종 인사**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월 7일 신년하례법회에서 ▲감찰국장 도현 스님 ▲조사국장 도성 스님 ▲교무부장 일우 스님 ▲문화부장 행허 스님 ▲기획실장 해능 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언론 왜곡 보도 감시에 주력할 터"

종단협 초대 언론위원장 열반종 총무원장 해곡 스님

"다채널 다매체 시대를 맞아 불교를 왜곡해 보도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감시활동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언론 포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불자 언론인과 각 종단의 스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불교를 언론에 올바로 알리고 편향된 보도는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언론 왜곡 보도 감시기능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1월 1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산하 언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해곡 스님(열반종 총무원장)은 향후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해곡 스님이 이번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출가 전 한국방송공사(KBS)에서 20여년간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언론 경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현재 종단협 산하 각 종단에 공문을 발송해 언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현직 언론인 출신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일단 구성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불교계 언론인들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의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해곡 스님은 3월부터 위원회를 정식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 조직 화합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떠날 예정이며, 수계법회와 워크숍도 마련할 생각이다. 또한 해곡 스님은 언론 감시 기능외에도 위원들의 경력을 활용해 한국근현대불교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선지식들의 행장을 발굴 수집해 영상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영상 매체를 통한 포교에도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각 종단들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나 법회에도 참여해 각 종단들과의 교류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해곡 스님은 현재 한 · 미얀마 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한 · 스리랑카 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교사불자회 활성화 할 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창홍 신임회장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지회 결성 붐이 일어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지역 교사불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7일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총회 및 겨울수련회에서 제5기 회장에 선출된 임장홍(56) 신임회장은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임기 2년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현재 성남 야탑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임 회장은 서울경인 교사불자연합회 회장을 오랫동안 맡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전국교사불자연합회에 쏟아 붓겠다는 각오다. 임 회장이 가장 먼저 하려고 생각하는 일은 교사불자들이 떳떳하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불자 선생님들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떳떳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교사불자들의 움직임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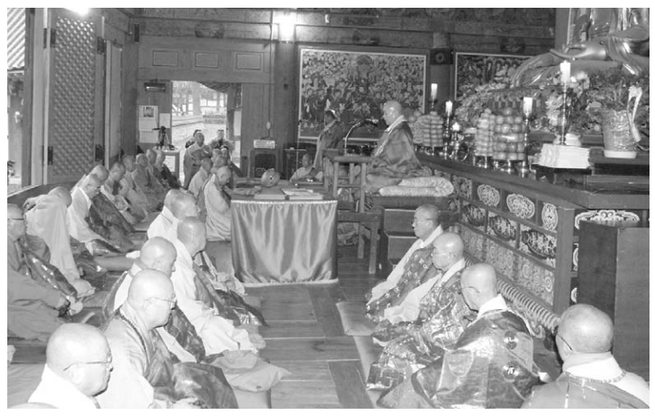
이를 위해 일단 생활 속에서 손목에 단주를 차고, 공양할 때 불교식으로 기도를 올리는 등의 의식 부분과 불자다운 자세를 몸에 배도록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지식 초청 법회 등의 신행 활동도 늘려갈 계획이다.

임 회장은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 교장 · 교감 등 교육관리직으로 지난해 구성된 '푸루나' 회원이기도 하다. 푸루나는 각 학교 파라미타와 각 지역 교사불자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이번에 임 회장이 교사불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됨으로써 두 단체의 결속력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 회장의 올해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재직 중인 야탑고에 파라미타를 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경인 교사불자연합회를 동서남북 4개 지부로 분리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경인 지부 분리는 단체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자로서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 신행부터 열심히 챙기고, 학생과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교사불자회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태고종 선암사서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11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종정예하 친견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하여 각 교구 종무원장, 각 사암 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자년 새해의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태고종단의 미래는 승가와 재가교육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통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 종도가 힘을 모아 교육 불사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정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의 교육과 복지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선암사 주지로 선출된 경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선암사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 불교 발전 위해 신행단체와 불교문화 일굴 터"

부산기장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초삼 스님



"부산 기장에 거주하는 불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신행단체를 일궈 내겠습니다. 열악한 기장의 불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장불교사암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초삼 스님(기장 옥정사 주지)이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1월 16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초삼 스님은 범어사에서 출가, 불국사 조실 월산 스님을 은사로 모셨다.

기장불교사암연합회에는 앵림산 안적사, 불광사, 장안사 및 해동 용궁사를 비롯해 100여개의 사찰이 소속돼 있다. 문화 탐방 및 한 · 일 교류, 인근 군 장병 포교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소년 소녀 가장 돕기와 불우이웃 돕기, 자체 봉축행사 진행 등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느 특정 사찰에 국한된 신행단체가 아니라 기장군에 있는 100여 개 사찰을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신행단체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신행단체가 있으면 기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교문화 행사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최선을 다해 기장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임무를 이행하고 기장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장군에는 있는 사찰의 수는 100여개를 넘는다. 초암 스님은 각 사찰마다 소소히 활동하고 있는 신행 단체는 있지만 봉축 및 수륙 방생 등 큰 행사 진행에 있어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리더가 없다는 것을 아쉬운 문제로 지적했다. 또 스님은 석가탄신일 봉축 행사 외엔 기장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기장군은 옛 가야와 신라의 경계에 위치해 화려한 불교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바다에 인접한 지형이라 불교와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 수준 높은 불교문화 행사를 꼭 이끌어 낼 것입니다."

시대 문화에 발맞춘 불교발전을 천명한 초산 스님, 스님은 신행단체 조직과 발전된 불교문화가 하루 빨리 다가 오길 거듭 기원했다. **하성미 기자**

동산불교대학 보살계 대법회 봉행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월 12일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무진장 스님을 법사로 동산반야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자년 신년 대법회를 봉행했다. 보살계 수계식과 함께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지난 11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된 무진장 스님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김재일 이사장은 "무진장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로 사시며 포교에 진력하신 분"이라고 스님을 소개하며 "불자들 모두가 무진장 스님을 본보기로 수행·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진장 스님은 "보살계 수계를 위해서는 신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보살계 수계는 단순히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보살(부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도들에게 보살계 수계 법문을 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이전 개소식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원장 이영숙)은 1월 10일 부산불교회관 5층에서 현판식 및 이전 개소식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흥교스님을 법사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는 사부대중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육군6339부대 부대장 권행문 중령은 이영숙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광주 광산구불교협의회 신년법회



광주광산구불교협의회(회장 성오)는 1월 9일 광주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산구발전을 위한 신년법회'를 열었다. 정인 스님(광주사암연회장), 전갑길 광산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성오 스님은 "석가모니는 2500년 전 진리를 발견한 분이고,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분이다"라며, "지역 불자들이 더욱 정진하여 광산지역을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만들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안 자원봉사자에 무료급식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태안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점심공양을 무료 대접하는 절이 있다. 조동종 무량사(주지 혜종)다. 태안군 신두리에 위치한 무량사는 매일 150명분의 점심을 마련해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1월 11일 조동종 총무원장 대은 덕우 스님을 비롯해 승정부원장 법공, 감찰원장 덕성, 총무부장 법화, 감찰부장 혜산 스님이 종단 대표로 무량사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에 동참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불교중흥대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1월 17일 옥천관광호텔에서 불교중흥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참회발원문 낭독 후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으로부터 '새해를 시작하는 불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들었다.
혜철 충청지사장

여래불교문화대학 개원 1월 19일 개원한 조계종 대각회 여래사가 3월부터 여래불교문화대학을 운영한다. 하동 칠불사 통광 스님을 학장으로 불교 경전 및 교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여래불교문화대학은 불자 뿐 아니라 부처님의 사상, 철학, 불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육군 제55사단 교훈사 '연꽃의 소리' '유아독존' 협연 현장

흥겨운 노래 소리 법당 향한 발걸음 가벼워

'유아독존'과 '연꽃의 소리' 강혜윤씨가 함께 열창하고 있다. 좌로부터 유흥재 병장, 민찬기 병장, 강혜윤씨, 박준규 상병.



"누나!" "누나!" 열광적인 함성이 끊이질 않는다. 어떤 누나가 등장하길래 이리도 호응이 뜨거울까? 잠시 후 나온 이는 남자였다. 천연덕스럽게 힙합 바지를 입고 야구모자를 눌러쓴 장신의 남자다. 누나보다 자기가 먼저 노래부르게 됐다며 양해를 구하고는 자신은 '연꽃의 소리' 멤버 순야타라 소개했다. "앞으로도 편하게 법당에 와주세요"라고 말을 마친 그는 랩으로 만든 '반야심경'을 부른다. 누나가 아니라는 실망감에 "에이~" 하며 야유를 보내던 소리도 잠시. 오늘 처음 절을 찾아 〈반야심경〉을 들은 장병들은 흥겨운 음악에 어깨춤을 절로 추며 입에서는 중얼중얼 〈반야심경〉 구절을 따라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1월 13일 경기도 용인 육군 55사단 신병교육대 교훈사 법당 법회 참석인원은 200여명, 이 중 절에 와봤다는 훈련병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느 군법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무엇이 다를까? 교훈사 법당에는 노래가 있었다.

순야타(30 · 연꽃의 소리 래퍼)의 '반야심경'이 끝나고 무대에 오른 강혜윤(24 · 연꽃의 소리 싱어)씨가 마이크를 넘겨받고 노래를 부른다. "우와~" "누나" 함성과 함께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노래가 끝나자 강혜윤씨가 말했다. "우리 오늘 만난 기쁜 인연을 기념하고자 '오늘은 좋은 날'로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귀한 분들이 계셔 무대에 모십니다."

소개가 끝나자 군복 입은 청년 4명이 무대에 올랐다. 좌석에 앉은 훈련병들은 어리둥절해 한다. "(쟤들) 뭐냐?" 수근대는 소리도 들린다.

"여러분이 있는 신병교육대 기간병들로 이뤄진 유아독존 중창단입니다"라는 소개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조용해진다. 그 중 한명이 강혜윤씨와 '연꽃의 소리' 음반 '패랭이 꽃과 나그네'에 수록된 '행복'을 함께 불렀다. "부처님 사랑을 느껴요~ 행복의 노래를 불러요~" 기간병이라는 소리에 엄숙해졌던 분위기가 노래소리에 풀어져간다. 굳었던 어깨는 흥겨운 노래소리에 간간이 들썩거린다.

강혜윤씨와 함께 노래를 부른 이는 민찬기 병장(23)이다. 민병장은 1주일 후 전역을 앞두고 있는 속칭 말년병장이다. 전역 전 휴가(말년휴가) 중에 오늘 공연을 위해 청주에서 일시 부대복귀를 했을 만큼 법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에 열심이다. '유아독존'의 다른 멤버는 유흥재 병장(운전병), 박준규 상병(군종병), 이도현 이병(행정병)이다.

휴식시간도 연습, 음성공양 열정 대단
일요일 일찍 눈뜨는게 힘들지만 뿌듯
'자주 위문공연 열렸으면…'

2004년 5월 55사단 봉화사에서 열린 찬불가 경연대회 때 1등을 했던 '유아독존'은 그 후로도 훈련병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왔다. "연습시간이 부족해 좀 더 좋은 노래를 들려주지 못해 아쉽다"는 박준규 상병(22) 말처럼 음성공양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주말이면 휴식 시간도 반납하고 노래연습을 했다. 이들의 열정만큼 후원도 따랐다. 사단 군법사인 노도영 법사는 주말이면 '유아독존' 연습을 위해 노래방 인솔(?)을 서슴지 않았다. 찬불가 경연대회 때 피아노반주를 하면서 인연 맺은 유경숙(43 · 주부)씨는 매주 유아독존 멤버들을 뒷바라지했다.

'연꽃의 소리'는 강혜윤씨, 순야타씨, 지허 스님(안산 천수사 주지)으로 이뤄진 찬불가 모임이다. 군부대 위문공연은 2006년부터 미션스쿨을 졸업한 강혜윤씨의 발원으로 이뤄졌다. 강씨는 "군대 간 친구들이 교회에 가면 노래 위문공연도 자주 열려서 재미있다는 말이 불자로서 안타까웠다"고 위문공연을 시작한 동기를 털어 놓았다. 이어 강씨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들다. 눈이 떠지질 않지만 내 노래를 듣고 환하게 웃는 장병들이 생각나 벌떡 일어나게 된다"며 보람있어 했다.

'유아독존'과 '연꽃의 소리' 강혜윤씨가 함께 가수 테이의 '러브이즈 필링'을 부르며 박수 소리도 커져간다. "재미있다. 군법사님의 좋은 말씀과 노래까지 들으니 마음이 편해진다. 앞으로도 법당에 자주 오고 싶다"라는 박재현 훈련병(21) 말처럼 이들의 노래와 함께 군장병들의 불심도 한없이 커져 가는 것 같았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품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상담 전화 활용법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땐…

수화기를 들어보세요



이선영(30 · 서울 이태원2동)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고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씨의 고민은 거의 가족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 착하기만 하고 독립심 없는 언니…. 하루가 다르게 가족 중 누군가 사고를 치며 괴롭혔지만, 정작 이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적 부담감에 대해서는 가족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씨는 가끔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극단적인 마음을 먹기도 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씨는 사찰 도반의 추천으로 '자비의 전화'에 우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로 했다. 자비의 전화에서는 이씨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요즘 이씨는 상담으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끼는 중이다. 그러면서 자신도 상담개발원 프로그램을 이수해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어 한다. 예전의 자신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돕고 싶기 때문이다.

◆불교 상담이 뭔가요? =이씨의 경우처럼 상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 답답함을 해소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부처님의 대기설법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불교상담은 동사섭(同事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기존 상담의 주체-객체 이원화 한계를 극복할 모델로도 각광받고 있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과 상담개발원에서 포교를 위한 지침서 <불교상담 이렇게 합시다>라는 책자를 펴냈다. 이에 따르면 불교상담은 일반 상담의 목표인 '내담자의 생활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 · 행동 ·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한 것(이장호)'이라는 것을 포함하되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불교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종교기 때문이다.

불교 수행법·경전 등 활용 삶의 중요한 지침 제공

불교대학 등 교육과정 이수하면 자격증 획득 가능

불교상담에서는 일반적인 상담기법에 간화선 위빠사나 염불 주력 절 등의 수행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불교 경전 역시 중요한 불교상담 자료다. 이런 불교수행법과 경전을 사용함으로써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길러주게 된다.

현재 불교상담을 하고 있는 단체는 1990년 개설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을 위시해 각 사찰 상담실까지 10곳 정도다. 가장 많은 상담원을 두고 있는 곳은 불교상담개발원으로 약 600여명의 상담봉사자가 배출됐고 월 평균 봉사자 수는 70여명이다.

불교상담개발원 권경희 사무총장은 "불교상담에서는 마음을 보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면서 "불교공부를 오래했다 하더라도 훈계만 늘어놓고 내담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수행법 등을 제시해 주면 상담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불교상담 교육을 받으려면=불교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불교상담 관련 대학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일반 4년제 대학 상담관련 학위 소지자는 학위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불교대학 등을 통해 불교 기초 소양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054-770-2114),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02-890-2800), 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02-745-2141), 대원불교대학교(02-707-1072), 부산 불교상담아카데미(051-633-5633), 광주불교문화대학(062-228-9098) 등이 있다.

불교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불자라면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불교상담대학(02-737-8803)을 주목하자. 3월 12일 2008년 강의를 시작한다. 2년 4학기제로 운영되는 불교상담대학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수업이 있다. 각 학기별로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등 심리학의 여러 이론을 공부하고 집단심리상담, 상담 실습, 심리검사 등의 실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비의 전화를 통한 실질적인 상담 실습과 봉사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

◆불교 상담을 받고 싶다면=상담 자체에 부담을 가지지 말자. 상담은 연령, 성별 등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우선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4가지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 고민상담 전화인 '자비의 전화(02-737-1114)'와 성(性)고민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 성상담 '아하 섹스(www.ahsex.org)', 컴퓨터가 더 편한 사람들을 위한 '사이버상담 자비 24(www.jabi24.org)', 직접 심리상담실을 내방하는 전문상담이 있다. 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 자비의 전화(1588-5408)와 제주(064-713-7372) · 청주(043-266-2222) · 천안(041-575-2500) 자비의 전화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 불광사 바라밀상담실(02-422-6065)도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다. 종단이나 사찰에 소속돼 있지 않은 상담기관으로는 명상상담연구원(02-2236-5306)이 있으며 여기서는 마음바꾸기 명상치료, 고집멸도 명상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수련회식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동사섭 수련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행복마을(055-962-1070)을 권할 만하다.

김강진 기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려 했을 뿐인걸요."

교통도 불편한 대구 북구 사수동 법륜사. 하루 버스 4대가 지나갈 뿐인 이 사찰 주지 지성 스님(사진)이 연초부터 훈훈한 '나눔'으로 추운 날씨를 녹였다. 지성 스님이 1월 7일 2명의 대학생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음을 듣고는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다.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한 학생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학생들은 스님에게 장학금을 받으며 "세상에 도와주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희망도 보았다"며 다시 힘내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살고 싶어"

장학금 지원사업 나선 대구 법륜사 주지 지성 스님



스님의 자비행은 사실 한 두해 일이 아니다. 그 동안 자신의 베푸는 삶을 내놓고 다니기 꺼려했으나 이번만큼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 선행이 알려지게 됐다.

스님은 2004년 10월부터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 100여분을 위해 무료급식을 시행해왔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쌀 40kg들이 포대를 인근 20가구에 돌리기도 했다. 빠듯한 절 살림이지만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사정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시작한 사업들이다.

"원래 노인복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해 부끄러워요. 앞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어 돕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김강진 기자

Wellbeing 복지현장을 달리는 사람들

이천에 위치한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 사무실에서 몇 시간만 앉아있으면 김용진(42·사진) 사무국장이 누군지 금세 알 수 있다. 이곳 장애인 가족 '현주 언니(46 · 가명)'가 "국장님"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이다. 서글서글한 눈매가 인상적인 그는 현주 언니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원장 스님에게 신뢰받고 사회복지사들에게 존경받는 그는 조용하지만 힘 있게 불교사회복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

⑩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김용진 사무국장

"이웃과 공생하는 자비복지 실천"



김 국장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뗄 수 없는 관계다. 15년 전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이후 승가원 법인사무국과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등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근무해왔다. 김 국장이 승가원과 첫 인연을 맺을 당시에는 불교사회복지관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면접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불교인으로 불교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멋진 시작입니까. 늘 부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김 국장의 생활은 거의 자비복지타운 안에서 이뤄진다. 자비복지타운은 장애인생활시설로 현재 181명의 장애인 가족이 살고 있다.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 '가족'이라는 말에 부족함이 없다.

교육·환경단체 등 8곳에 기부 동참

"복지현장 담은 포토에세이집 내고파"

"가족들과 복지사가 서로 희망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의 '진짜 가족'들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김 국장에 대해 서운하지 않을까.

"한번은 아내와 아이들이 이웃집 친구들을 데리고 시설에 온 적이 있어요. 중증장애인실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갔지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아빠의 직업을 많이 이해해주더군요."

방문 이후, 그의 아내는 자비복지타운 후원 계좌를 2개나 더 늘렸다. 아이들도 덩달아 용돈을 아껴 후원금을 보내려 한다. 과연 사회복지사 가족들은 남다른 면이 있구나 싶다.

사실 김 국장은 기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는 자신이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또 다른 기관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불교복지 · 교육 · 환경 등과 관련된 단체 8곳에 기부를 하고 있다. 매년 한 계좌씩 더 기부할 계획인 김 국장은 올해 지구촌 난민을 위해서도 기부할 계획이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늘 기부를 받지만, 저도 기부를 통해 또 다른 이웃을 생각하고 공생하는 자비복지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자타불이(自他不二)'.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정신을 그는 기부를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작게는 승가원 가족들, 크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어져 살아가고 싶어 하는 김 국장이 현재 꿈꾸고 있는 계획이 있단다. 그것은 '사진'과 관련있다. 가족들의 생활과 변화를 기록하는 사진을 찍으며 그는 흐뭇한 마음이란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찍어주고 정리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좋습니다. 투정부리는 모습,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장하는 모습도 뭉클합니다. 부처님 도량에서 스님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정리해 불교사회복지현장을 전하는 포토에세이집으로 내고 싶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예비승려의 교육의무화 책임교육기관! 한국불교의 미래가 東邦에서 시작됩니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의 동량을 가꾸고 배출하기 26년! 전통불교문화가 여러분의 얼과 숨결로 승화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法緣을 기다립니다

■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사정원칙
가. 불교학과 및 불교미술학과는 출가자(예비승려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나. 범패학과 및 승가학과는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다. 불교학과 및 승가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라. 모든 학과의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는 반드시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구족계 수지자격이 주어지며, 구족계 수지와 함께 승려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본 종단이 인정하는 종립강원 등 불교관련 정규대학(4년제)을 졸업한 자는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바. 마항의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면 종비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종단장학금을 지원받는다.

2.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교는 태고종 종도교육 전문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나. 불교학과 및 승가학과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다. 본 종단 예비승려(사미 · 사미니)는 종단의 득도규정에 따라 재학 중 종단이 지정한 사미(니)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라. 승적증명서(타종단 포함)를 첨부하지 않거나 종단의 득도수계를 증명할 수 없는 자는 재학 중 삭발여부를 불문하고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마.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바. 인터넷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할 경우 전형료를 소정계좌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사.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재가불자는 나머지 서류만 제출한다.
아. 필기 · 실기 ·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와 제출서류 대상자 중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차. 합격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카. 불법 및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절차에 따른다.

■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승가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00명	3년제	정규반

■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7. 12. 24(월)~2008. 2. 12(화) 17:00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08. 2. 14(목) 14:00	개별통지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필기·실기·면접고사	2008. 2. 15(금) 10:00 ~ 17:00	본교 강의실 및 강당
합격자 발표	2008. 2. 18(월) 14:00	개별통지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모든 학과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2. 1항의 자격미달인 경우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절차 및 방법
1. 1차 전형 : 서류심사 2. 2차 전형 : 필기 및 실기고사
3. 3차 전형 : 면접고사(인성 및 품행심사)
4. 2, 3차 전형방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60점 이상 합격처리함

학 과	필기고사(불교상식)	실기고사	면 접	합 계
불교학과	40%(40점)	·	60%(60점)	100%(100점)
승가학과	40%(40점)	·	60%(60점)	100%(100점)
범패학과	10%(10점)	30%(30점) (반야심경/천수경 독송)	60%(60점)	100%(100점)
불교미술학과	10%(10점)	30%(30점) (시왕초 등긋기/소묘)	60%(60점)	100%(100점)

※불교상식 필기고사의 범위는 원서접수 때 별도로 고지함.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는 상기 전형고사를 모두 면제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미(니)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반명함판 사진 3매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이용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 발송 3. 접수처 :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전형료
1. 불교학과/승가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학과운용 및 교육지표

○ 불교학과

학과운용	교육지표
1.모집대상은 출-재가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2.정규반과 통신반을 공히 함께 모집한다. 통신반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동영상 강의로 학습한다. 3.불교학의 기본교육(교리/사상/역사)을 비롯해 종학 등 대승교화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제반교육과 복지 등을 교수하며 기초불교의식을 지도한다. 4.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부처님의 회향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1.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교적 인격을 함양하고,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과 지식을 길러 대승보살불교를 구현하는 지도자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게 한다. 2. 불교사상이 현재와 미래사회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 이론습득과 응용실천능력을 배양한다.

○ 범패학과

학과운용	교육지표
1.모집대상은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 이상인 자에 한한다. 2.불교신행 및 사찰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의식 등 전통불교의식의 이론 · 실기를 겸수한다. 3.불교학의 기본교육과 종학 등 대승교화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제반교육과 복지 등을 교수한다.	1.전통불교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인재를 발굴한다. 2.어산종장의 법맥계승과 대승보살사상의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 불교미술학과

학과운용	교육지표
1.모집대상은 출-재가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2.불모(佛母)로서의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불교학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미술전반의 이론과 불화 · 단청의 기초 · 실기를 배양한다. 3.종학 등 대승교화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제반교육과 복지 등을 교수한다.	1.불교미술 전반의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2.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과 제118호 불화장의 맥을 잇는 종단의 인재를 발굴한다.

○ 승가학과

학과운용	교육지표
1. 모집대상은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정규반과 통신반을 공히 함께 모집한다. 통신반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 학습한다. 3. 내전의 주요과목을 이수하고 불교학의 기본교육(교리/사상/역사)을 비롯해 종학 등 대승교화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제반교육과 복지 등을 교수하며, 기초불교의식을 지도한다. 4.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부처님의 회향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1.현대사회는 물론 미래사회의 정신문화를 창조하이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선적인 예지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부처님의 정신이념과 행동윤리를 현실구현할 수 있는 도제양성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 등록금 납부
1. 납부기간 : 2008. 2. 18(월) ~ 2.22(금) 2. 납부계좌 : 농협 003-01-210227 동방대
3. 유의사항 가. 계좌입금 때 실명으로 입금요망(타인명의 입금 때 필히 전화요망).
나. 납부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졸업특전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구족계 수지자격을 부여하고, 구족계 수지와 함께 승려증을 발급받는다.
2. 모든 학과 졸업생에게 태고종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3. 범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4. 불교미술학과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 등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한다.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자세한 모집요강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 TEL:(02)745-2030~2 FAX:(02)744-3461
홈페이지|www.dongbang.org

마곡사 대광보전 백의관음벽화 보셨나요?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 충청남도 · 충청북도 지역 발간

대부분 관광객은 등산길에 사찰이나 주변 경관을 살피며 눈동냥으로 지나치고, 신심 있는 참배객은 법당 참배를 하거나 기도처로 삼아 사찰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사찰을 찾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야를 넓혀 사찰구석구석을 둘러보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교문화재들이 우리를 반길 것이다.

충남 공주 태화산 기슭에 자리한 마곡사(주지 법용)는 선교양종 대본산으로 현재는 조계종 제6교구본사다. '봄에는 마곡사, 가을에는 갑사'라 할 정도로 경관이 수려해 지금도 시인 묵객들이 많이 찾는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비로자나불이 봉안된 화엄교학에 근거한 건축물이다. 불상이 불전 정면이 아닌 향좌측에서 향우측을 향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예배 뿐 아니라 설법을 하는 법당 기능에 충실한 구조임을 보인다. 하지만 마곡사 대광보전을 찾은 사람들은 '어! 부처님이 옆으로 계신 것이 다른 법당과는 구조가 다르네'하면서도 비로자나불 뒤편 벽과 외부 벽에 그려진 2점의 백의관음도를 거의 보지 못한다.





마곡사 대광보전 후불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와 외벽 표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우측).

대광보전 외벽의 포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들다. 천의자락을 휘날리며 맨발로 물결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몸을 기울여 그림 오른쪽에 합장해 있는 남순동자를 굽어보고 있다. 후불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는 마곡사 벽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고주 사이에 한지를 여러겹 발라 후불벽을 만들어 일반 화폭에 그려진 것처럼 세밀한 묘사를 보여준다. 섬세하게 그려진 암벽의 세밀한 물결과 명암표현, 굽이치는 물결과 포말 등은 화승의 노고를 짐작하게 한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이 출간한 〈한국의 사찰벽화〉 충청남도 · 충청북도편에는 마곡사 뿐 아니라 서산 개심사 등 충청지역 사찰 건축물 15점서 그간 우리가 놓쳤던 사찰벽화들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지원을 받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될 전국 소재 '사찰건축물 벽화조사'의 2차년도 결과물인 이 책은 충청도 소재 사찰건축물을 실사해 정리한 중간보고서다.

김정민(성보문화재연구원)씨는 연구원 계획에 대해 "2006년 강원 · 경기 · 인천 지역에 이어 2007년 충청지역 조사를 마쳤다. 올해는 경상남도 지역 사찰벽화를 조사 중이며 지역특성상 2년여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찰벽화는 그동안 건축물 일부로 여겨져 제대로 조사 · 연구되지 못했다. 성보문재연구원의 계속된 조사로 사찰벽화가 회화와 건축 양식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재로 재조명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불교문화재 발굴 조각·회화 보물 지정 예고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외 15종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해)가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15건 불교문화재를 새로 발굴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받는 성과를 이뤘다.

2005년부터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지원을 받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시행한 연구소는 전남 · 광주 · 충북 지역 사찰에서 문화재 보호 사각지역에 놓여있던 불교 조각과 불교 회화 등을 찾아냈다.

14일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크게 불교조각과 불교회화, 공예로 나뉜다. 불교조각은 현재 알려진 건칠불(乾漆佛)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고려후기)'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여말선초)'이다. 불교조각 · 건축 · 공예의 종합적 양상을 보이는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여말선초)'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조선전기)' 와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으로 총 7건이다.

불교 회화는 전형적인 17세기 영산회상도 양식 괘불화인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화'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화'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와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도상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등 4건이다.

공예분야에서 조선시대에 제작돼 상태가 좋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연기가 분명해 공예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담양 용흥사 순치원년명 동종(1644년)' '여수 흥국사 강희4년명 동종(1665년)' '고흥 능가사 강희37년명 동종(1698년)' '순천 선암사 강희39년명 동종(1700년)' 등 동종 4점이다.

한편 이번에 불교문화재 15건과 함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요계관방지도', 성종 원년(1470) 4월 간행한 '묘법연화경 권제1~2', 고려 충숙왕 3년(1316) 8월 보현사 석연 스님이 주선해 개판(改版)된 불교의식집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권 제9~10' 등 2건 총 18건이 지정예고 됐다.



14일 보물로 지정 예고된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3)불교학연구회 ksbs.re.kr

불교 대중화와 저변확대 꾀하는 열린 학술마당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998년 9월 불교연구의 상호대화와 비판을 통해 학문 발전을 기약하고자 출발했다. 당시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였던 학회는 2000년 지금의 불교학연구회로 창립됐다. 해주 스님(동국대)이 초대 및 2대 회장을 지냈고, 이중표 교수(전남대)가 3 · 4대 회장을 역임했다.

불교분과 시절부터 1년에 6회의 월례발표회, 춘계 · 추계 2회의 정기발표회와 동계 · 하계 워크샵을 한번도 거르지 않고 치러온 왕성한 활동은 교계 학회들의 자극과 모범이 돼 왔다. 또 학회 성과가 내실있다 보니 부정기로 간행됨에도 〈불교학연구〉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돼있다.

학회 회원은 석사 과정 이상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3만원 연회비, 30만원 영구회비를 부담하면 정회원 자격을 얻는다. 학회 논문 발표와 게재는 정회원에 한한다.

보편적 학문에서의 불교연구를 통해 일반학문 속에서 당당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학문적 배경 · 나이 · 지위를 떠나 오직 진리에 입각해 말하고, 어떤 견해든지 학문적 논거를 갖춰 발표할 수 있다는 열린 학술활동을 지향한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본각 스님(중앙승가대)은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고마자와 대학에서 화엄을 전공한 대표적인 비구니 학자다. "불교학을 좀 더 대중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학문이 되도록, 명실상부한 인문학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불교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강조한 스님의 발원은 지금도 말없이 진행 중이다.

한편 1월 26~27일 여주 신륵사에서 '불교와 여가문화'를 주제로 동계 워크샵을 연다. 학회 회원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점이 특징이다. 참가신청: bulgyohak@yahoo.co.kr

조동섭 기자

'국보 1호 남대문' 이제 '국보 남대문'으로 바뀐다

문화재청, 문화재 등급·분류체계 개선 추진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흥인지문이 국보 남대문과 보물 흥인지문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 등급 ·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유 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문화재 지정제도는 일본 제도를 따른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등급 · 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는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모호하게 분류돼 있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국보를 최상위로 하위는 보물 · 무형문화재 · 천연기념물 · 명승의 4가지로 단순화된다.

따라서 그동안 국보로 보물만 승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적과 천연기념물 등도 국보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 국보와 보물에 한해 현재의 일련번호를 없애고 대신 사적 제○호, 미술문화재 제○호 등 하위분류 번호를 매기게 된다.

문화재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법의 개정 ·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08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학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임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범패"로 지정이 되어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금번 2007년 9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신입학,수료과정)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화	오후4~7	조인각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이기봉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7	마일운	30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법고춤	수	오후1~7	한해사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등	목	오후1~7	마일운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1~4	활안(한정섭)	재학생
불교의식(연구)	짓소리 전문반	수	오후1~3	김구해	졸업생
불교음악&무용(이론)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1~4	김법현	재학생

모집학과 및 정원(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범패실습 I	영산과정	금	오후1~7	마일운	30
영산재의불교예술적특징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1~4	김법현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불교의식	화	오후1~4	활안(한정섭)	30
영산재의례절차 I	상주권공과정	월,수	오후4~7	조인각	30

모집학과 및 정원(편입학)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이기봉	약간 명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 시 자 격

수료과정 : 승려 및 일반인,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과, 무용과 등) 교역자 및 일반인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 · 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 출 서 류

▶수료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원서대 및 전형료 : 50,000원

▶학점은행제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편 입 학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 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 면접 후 입학. 면접 일정 개별 통보

전 형 일 정 2008년 1월 2일 ~ 2008년 2월 15일 까지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 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
3.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를 품수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http://www.okchunbud.kr/



"불교엔 삶의 환희와 활력소가 있죠"

할리우드 불심도스타

영화배우 나오미 왓츠❸



스타들이 추구하는 덕목은 '욕구 제어'

"더 갖고 싶은 마음 추스를 줄 알아야"

1968년 영국 태생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란 나오미 왓츠는 월마트의 점원 때부터 상큼한 흡인력의 소유자며 집중력과 깊이를 지닌 연기자다. 이른바 큰물에서 놀기 전에 B급 영화를 떠돌던 우울한 과거마저 환하게 웃어넘기는 그녀는 늘 솔직담백하다.

오랜 친구인 니콜 키드먼에 비해 늦깎이나 결코 풋내기가 아닌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영화와 미니시리즈로 대성공을 했다. 공포물 마니아들은 그녀를 '옥수수 밭의 아이들'의 명배우로 치지만 할리우드에선 아직까진 그저 잘나가는 신인 정도다.

그녀는 '사랑의 전설' '괴행성'에서도 상당한 기량을 보였으나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와 '링(2002)'으로 할리우드의 스타 대열에 끼게 됐다.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흥행보다는 그녀의 출중한 열연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은 수작이다.

이를 발판으로 그녀는 이듬해 '링'에서 흥행과 연기에 동시 대성공을 거뒀다. 그 오랫동안 꿈꾸던 명성과 재산을 죄다 얻은 것이다. 그런 그녀가 어인 까닭에 불과 몇 해 뒤 '허울 좋은 너울'을 찍다가 불문에 들어서게 됐을까?

그걸 유추하자면 약간의 군말이 필요하다. 누구나 알듯, 목적의식과 성취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 존재이유다. 목표가 없는 삶은 떠도는 물풀이나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다.

특히 목표의 설정과 추진은 현실적인 자기단련이자 사바세계 속의 엄격한 수행정진이다.

목표라는 돌계단은 욕망의 노예로 끌려 다니다 허우적대며 빠져죽고 마는 집착의 늪과 다르다. 무릇 자아가 트인 이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욕망을 조절한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말처럼 쉽지 않다.

하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Where to start? And where to stop?) 불교는 바로 그 지점을 일깨워주는 길잡이다. 더욱 더 갖고픈 맘을 추스르는 욕구제어, 그것이 세속적 목표에 다다른 할리우드 스타들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덕목이다.

이를 보리, 곧 통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무량무계의 깨달음이라 한다. 늘 참선을 하고 팔목에 단주를 끼고 다니는 그녀는 날로 불심이 새로워진다 했다.

"불교엔 큰 환희와 활력소가 담긴 건 분명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된 불자인지는 아직 잘 모르니 어떡하죠?" 별걱정을 다 하는 그녀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서둘지 마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알려하는 것도 탐욕이요, 성불의 뜻도 지나치면 집착이랍니다. 나오미 보살님께선 구도심만으로도 이미 고우세요."

성휴 스님

실리콘밸리서 불교영화 감상회

세계적 최첨단과학기술의 요람 실리콘밸리의 불교모임인 실리콘밸리 삼발라는 2008년도 전법기획의 일환으로 1월 12일부터 불교영화 시리즈 감상회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저녁 7시30분 신년다과회를 겸해 상영된 한국 불교영화 중 대표적인 수작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노승과 고아 동승, 젊은 스님의 인연을 그린다. 열반을 앞둔 혜곡 스님은 자신이 아는 참선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한편, 젊은 스님과 동승은 자신들의 지난 행업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려 한다. 이윽고 노승이 떠나자 남은 두 사람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깨우침에 이르고자한다. 이러한 불교영화들은 미국 전역의 사찰, 포교원은 물론 지역사회, 대학 캠퍼스 등 수많은 불교 동아리들을 돌며 연중 전법활동을 펼친다.

출처: SVSNL

런던불교센터 MBCT 과정 개설

영국인 5명 중 한 명은 일생 동안 최소한 한 번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나 대부분 전혀 치료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스널의 런던불교센터는 우울증의 근본원인에 대처하고자 2006년 정각인지요법(MBCT) 과정을 개설, 불교전용 채널인 비디오 상그하를 통해 무료 방영하여 호평을 받아왔던바, 금년 1월부터는 그간 임상케이스 스터디 등을 보강한 신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출처: BVS

초교생에 성경 보급 위한 판결

1월 9일 미 연방법원은 세인트루이스 외곽 아나폴리스의 사우스아이언학군 당국이 국제기드온협회에서 학군 내 초등학교 5학년생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도록 허용해온 오랜 관례가 신앙의 자유와 모든 종교의 기회평등을 명시한 연방법에 저촉되는 위헌이라 판결했다.

최근 미국에선 불교의 급신장에 이어 바하이, 사이언토롤지 등 소수 종교가 퍼져가고 있는바, 특히 9·11사건 이후 피해자가족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기독교도인 약 2만 명이 매년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출처 : AP, N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Not far from Buddhahood

—참 대단한 불성이시오

An American student asked the Japanese priest Gasan, "Have you read the Christian Bible?" "No, please read it to me," asked Gasan. The student opened St. Mathew and read,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shall worry about itself.". Gasan smiled. "Whoever uttered those words I consider an enlightened man." The student continued, "Ask and it shall be given, seek and you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For everyone that asks receives, and he that seeks finds, and to him that knocks, it shall be opened." Gasan nodded again, "That's excellent! Who ever said that is not far from Buddhahood."

미국학생이 가산이란 일본스님께 물었다. "기독교성경을 읽어보셨나요?" 그러자 스님이 부탁했다. "아니요, 좀 읽어주시겠소?" 학생이 마태복음을 펼쳐 읽었다. "너희는 내일을 걱정 말지니 내일은 그때 스스로 걱정하리라." 가산 스님이 빙긋 웃었다. "누가 그 말을 했던 큰 깨우침을 얻은 분이군요." 학생이 줄곧 읽었다. "누구든 청하면 주어질 것이며, 구하면 얻을지니, 두드리는 자에 열리리라." 스님이 또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군요! 누가 그 말을 했던 참 대단한 불성이시오."

번안 : 성휴 스님 / 그림 : 이태수

2008년 '제 2회 선리연구원학술상' 및 '제 4차 월례발표회 발표자'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❶ 제2회 선리연구원학술상 공모
1) 공모주제 : 불교(불교학, 불교사, 불교사상, 불교문학 등)와 관련한 자유주제
2) 지원자격 : 해당 분야 박사과정 수료 이상,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
3) 선정인원(상금) : 4명(우수상 1명 500만원, 학술상 3명 각 300만원)
4) 제출서류 : ① 연구계획서 : A4 10매 내외의 자유 형식
②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및 목록상 실적물 각 1부
③ 이력서(주소 · 전화번호 · 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5) 제출기한 및 발표 : ① 제출기한 : 2008년 1월 17일(목)~1월 31일(목) 오후 5시까지
② 선정 및 통보 : 2008년 2월 11일(월)
6) 주의사항 : ① 선정자는 2008년 본 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② 발표논문은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 학술지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❷ 제4차 월례발표회
1) 발표주제 : ①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사상의 주요쟁점 및 연구방법론 ② 한국불교사와 한국불교사상연구
③ 한국근현대불교문화(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등) ④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선학원
⑤ 한국근현대불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
2) 발표문 분량 : A4 5~6매 3) 발표자격 : 박사과정 이상자
4) 발표일시 : 2008년 2월 22일(금)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5) 신청기간 : 2008년 1월 17일(목) ~ 1월 31일(목) 오후 5시까지
6) 특 전 : ① 발표비 : 1인당 30만원 ②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③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❸ 문의 및 서류접수
▶ 주소 :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전화 : (02)734-9653(팩스 734-9657)
▶ 홈페이지 : http://www.seonhakwon.or.kr/seonli
▶ 대표메일 : seonhakwon@paran.com

韓國佛敎 禪理硏究院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선지식을 찾아서

영흥 스님 (진천 불뢰산 불뢰굴 주석)

“화난 것이 뭐꼬? 하면 화 사라진다”



영흥 스님은 1947년 경북 울진군 울진면 연지리에서 태어났다. 21세에 망월사에서 춘성 선사의 벽력같은 할(喝)에 언하대오(言下大悟)하고, 24세에 처음 자수용삼매에 들었다. 1974년 백양사에서 서옹 대종사를 은사 및 계사로 수계득도한 스님은 경봉, 전강, 벽초, 혜암, 향곡, 구산, 고암, 월산, 서암, 숭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참문하며 법거량을 했다. 45세에 서옹 대종사로부터 전법게(傳法偈)를 받은 스님은 진천 백곡면 불뢰산 불뢰토굴에서 주석하며 인연 있는 수좌와 재가 수행자를 지도하며 보임하고 있다. 법명은 성명(性明), 법호는 후제(後濟)이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지구머리마을에 위치한 만뢰산. 이곳에는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가 기도하던 터가 있다. 진천에서 들어가다 큰 저수지를 만나 물이 흘러들어오는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만뢰산 아래 마을에 ‘지구머리 절’이라고 불리는 작은 절이 있다. 작은 암자는 불뢰굴(佛賴窟)이란 이름이 있지만, 마을과 하나가 되어 보금자리를 편 까닭에 절이라고 한눈에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불이법문(不二法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나 할까.

만뢰산의 이름은 임진왜란 때 만 명의 백성이 피난을 와서 모두 목숨을 건진 일화에서 비롯됐다. 산이 사람에게 베푸는 덕이 어디 만 명에만 그치겠는가. 하지만 그 공덕으로 산은 만뢰산(萬賴山)이란 이름을 얻었고, 영흥 스님이 이곳 토굴에서 정진하면서 다시 불뢰산(佛賴山)이란 명칭을 하나 더 얻었다. 스님은 이곳에 머물면서 부처님 은혜를 입어 공부의 큰 전기를 마련했기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소리 소문 없이 수좌스님들과 재가 선객들에게 참선을 지도해 온 영흥 스님을 뵌 것은 5년 전인 2003년. 스님은 ‘참사람(無位眞人:불성) 운동’으로 선의 대중화에 기여한 서옹(西翁, 1912~2003) 대종사의 인가(認可)를 받은 분이었다. 출가한지 40여년의 세월동안 결제철에는 제방선원에서 안거하고 해제철에는 깨달음의 빛을 감추고 세속에서 교화를 펼치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필자는 한 출판사에서 스님을 우연히 뵌 후 조계사, 공주 금강변, 인사동 찻집 등에서 수시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

무자년, 해를 넘겨 스님을 뵈니, 스님은 공부 점검부터 하신다.

“요즘은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네, 다라니 정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행을 하든 ‘이뭣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님의 관심사는 늘 수행자의 본분사(本分事)를 일깨우는 데 있다. 인연 따라 이 곳, 저 곳의 선객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가르침을 주다 보니, 불뢰굴에 머무는 시간이 오히려 적을 정도다. 수행자가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다 보면 자만심과 나태함이 생겨서일까.

“이제는 좀 편안히 머물며 법을 펴시는 게 어떻습니까?”하고 여쭈니,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머무는 곳마다 진여실상(眞如實相)이요 해탈입니다. 풀잎마다 도솔천 내원궁이요, 돌멩이마다 구품연화대(九品蓮華臺)입니다.”

이쯤 되면 모든 질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계속되는 스님의 말씀.

“삶 자체, 사는 모습 그대로가 수행이요 본분사를 실현하고 누리는 것이지만 확실한 돈오에 이르기까지는 ‘본래의 나가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쉼 없이 나아가다 보면 생과 사, 부처와 중생 등 일체를 초월한 본래의 나, 그리고 그 ‘나’마저도 초월하여 있는 그대로의 ‘나’와 동일시가 이뤄질 때 양변과 단견이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로 본성을 쓰고 누리는 입장이 됩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면 조그만 견처에 안주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데 만족하거나, 인과를 무시하고 막행막식하거나, 도인을 자처하여 스승 노릇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늘 머무는 바 없는 자리에서 끝없이 초월하는 불퇴전의 자세가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스님은 공부에 힘을 얻은 수행자들은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꽉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나인고?” 하는 공안을 들어보라고 권한다. 수행과정에서 광명을 본다든지 하는 이러 저러한 체험이나, 화두가 타파된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이와 같은 공안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 즉 성철스님이 강조했던 숙면일여(熟眠一如)의 관문을 실제로든, 공안으로든 해결해야만 확철대오하여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설명이다.

역사상 수많은 도인들이 ‘이치를 깨친(理入)’ 후에 ‘언행일치의 부처행(行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깨달음에 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 수행에 있어 ‘나는 얻은 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정진을 중단하고 머무는 순간, 향상일로(向上一路:끝없이 초월하는 깨달음의 길)는 종언을 고하고 만다.

이치 깨친 후에 깨달음에 안주하면 안돼

깨달음 지키고 보호하는 ‘보임’이 더 중요

일상 속에서 ‘이 뭣고?’ 화두 놓지 말아야



그래서 스님은 견성(見性) 이후 깨달음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인 보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깨칠 때는 일체 공부가 다 된 것이지만, 계속 여여부동하게 지키고 쓰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견처(見處)와 견행(見行)이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어묵동정, 꿈속에서나, 잠속에서나, 죽음에서나, 삶에서나 영겁도록 자유자재하게 꼭 맞아야 합니다. 구경각을 이루고 견성성불이 되고 견성본불(見性本佛)이 되어 이를 지키고 쓰고 누린다 해도 정진을 놓아서는, 공부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수행자의 체험이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곤 한다. 그러면 그 수행자는 큰 절의 조실스님이나 선원장스님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었다며 감격해 하곤 한다. 자연스러운 즉문즉답(卽問卽答)으로 명쾌한 지도점검과 수행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실참과 투철한 문제의식, 자기점검에 솔직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권위의식도 없이, 세간과 출세간에 상관없이 법담을 주고받는 것은 당신의 구도과정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이리라.

21세에 망월사에서 우연히 친견한 춘성 선사의 벽력같은 고함(喝)소리에 본래면목(本來面目)을 확인했다는 영흥 스님은 1974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한 뒤 청담, 벽초, 혜암, 전강, 경봉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두루 참문해 법거량을 했다. 지난해 펴낸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는 이러한 현대 고승들과의 불꽃 튀는 법거량과 스님의 오도(悟道) 체험 등을 밝힌 구도기로 화제가 되었다.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는 이 책의 제목처럼 스님의 선어록은 독창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산과 물을 펼친다’고 하는 스님의 가풍은 성철 스님의 법어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숭산 스님의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는 법문과 비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경지는 마음이 깨끗한 거울과 같게 되어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진리 아닌 것이 없는 진여실상의 세계를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는 경계는 진여를 생활 속에 올바로 수용(受用)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을 세우고 물을 펼친다’는 것은 진여실상을 깨달아 자유자재로 누리고 쓰는 묘용(妙用)의 단계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상 세 가지 법문에 우열이 있다고 분별하면 망상이다. 다만, 중생교화를 위한 보살행의 적극성을 보다 강조한 새로운 안목을 눈여겨보면 되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 스님은, 일상 중에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 수행자들을 위해 이런 노하우를 일러주신다.

“화날 때는 ‘화난 것이 뭐꼬?’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답답할 때는 답답한 것이 뭐꼬? 차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게 뭐꼬? 욕심낼 때는 욕심내는 게 뭐꼬? 나무아미타불을 염할 때는 염불하는 이것이 뭐꼬? 공부가 잘 안될 때는 안되는 게 뭐꼬?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뭣고?’ 화두로 의단이 뭉쳐지게 됩니다.”

일생 생활 중에 이렇게 화두를 챙기다 보면,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뭣고?’가 심중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그나저나, 눈을 통해 이렇게 신문을 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진천/ 글·사진=김성우 객원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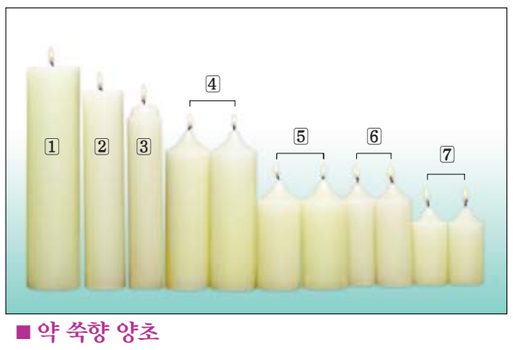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양초.net

나의 삶 나의 불교학

리영자 교수

나는 여유롭다. 하지만 연구를 쉬지는 않는다. 교수직은 은퇴가 있지만 학자는 은퇴가 없다. 눈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책을 볼 수 없을 때까지 공부를 그치지 않는 것이 학자다. 내 삶은 내가 평생 일궈 온 학문과 다르지 않다. 불교학을 하며 매순간 즐거움을 느꼈고 그 희열은 자양분이 돼 나를 성장시켰다.
매일 아침 빵 두개를 구워 끼니를 때웠다. 두꺼운 대학노트와 책을 들고 다닌 것도 너무 힘들었다. 학비가 없어 눈물로 고민하던 밤도 많았다.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바다로 헤엄쳐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 되돌아갈까 뒤를 돌아봐도 이미 떠나온 백사장은 보이질 않는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갈 곳도 없다. 가던 길을 계속 가야할 뿐.' 이것이 학문의 길이다.
내 삶에, 내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항시 도움이 따랐다. 돌이켜보면 모두 부처님 가피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우연히 찾은 도서관에서 〈석가여래행적송〉 등 논문작성에 필요한 고서를 만난 인연을 비롯해서 故 대법선 보살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천태학자 리영자는 존재할 수 없었다.

"배움 중도 포기는 바다 한 가운데서 헤엄을 멈추는 것"



내가 불교와 처음 인연 맺은 것은 수복 직후였다. 시내는 폐허 그 자체였다. 불교는 정화운동 이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다. 그때 내 나이 21세로 당시 고려대 법학과에 합격했지만 부친 반대로 진학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였다. 우연히 동아일보에서 당대의 석학을 모시고 대각사서 시국 강연회를 한다는 광고를 봤다. 친구와 함께 강연회를 찾았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신발을 두 번이나 잃어버렸다. 시국강연회 일정이 끝나자 참석자들을 주축으로 〈금강경〉 강의 모임이 생겼다. 호기심에 강의를 들었다. 〈금강경〉 강의를 처음 듣고 상당히 멋지다는 생각과 함께 감동이 밀려왔다.

"'금강경'에 감동 불교공부 시작 빵 두쪽으로 버티며 힘겹게 공부"

광덕 스님과 대법선 보살 등이 젊은 사람들을 이끌며 '대각회'를 결성했다. 젊은 사람이 귀해 내게 재무 소임을 맡기며 계속 나오라 했지만 법회에는 자주 참석하지 못했다. 대법선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같은 크나큰 자비와 포용력으로 나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줬다. 대법선 보살은 법무장관 등을 지낸 故 황산덕 박사 부인이다.

〈금강경〉 법문은 내게 큰 감동이었다. 경전에 갇힌 것이 아닌 마음을 넘나드는 법문이었다. 이때 배운 사구게 한구절 한구절은 내 가슴에 남아 평생 진리의 등대가 됐다.

특히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은 당시 폐허였던 서울 시내 모습 때문인지 내 어린 마음에 깊이 각인됐다. 이어지는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구절에 나는 '여래'가 무엇인지 당시로는 알지 못했고 막연히 진리겠거니 했다. 나는 평생을 여기 바쳐도 되겠다고 결심했다.

법문만 듣고 배워서는 무언가 부족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귀동냥으로 들은 부처님 법문을 갖고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그러던 차에 나는 대법선 보살 권유로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다. 한국은행 외국부에 근무하며 학교공부를 함께 했다. 학교에 다니다보니 공부 욕심이 더해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직장은 공부를 하면서도 다닐 수도 있었지만 故 김잉석 박사가 수업시간 중 했던 "불교 공부는 장판때가 묻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 한국은행을 퇴직했다. 주변에서 좋은 직장을 그만뒀다고 난리가 났었다. 하지만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다.

공부에 대한 내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김잉석 박사 〈삼론학 개론〉 강의 때 다 가도 나는 혼자 남아 필기했다. 남들은 어렵다는 것이 나는 너무 재미있었고 멋있었다. 또 故 조명기 박사 〈천태학〉 강의는 환희심까지 느꼈던 것을 보면 나는 천태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 故 이기영 박사의 강의를 듣다 이 박사의 권유로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당시 가세가 기울던 때라 아침이면 빵 두 쪽을 구워 갖고 다니며 공부했다. 불교문화연구원 조교를 지내며 〈천태사상의 교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내 논문을 두고 조명기 박사, 김동화 박사 등의 칭찬이 자자했다. 나는 석사 후 연구조교가 돼 교통비만 받고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에 매진했다. 공부가 단지 좋았다. 마침 일본 동경에 있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김지견 씨를 통해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

일본 학풍은 일단 학문이 체계화되면 선학들이 연구한 것이라 존중돼 감히 비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논문은 천태사상을 역사성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긍정적으로 결말을 맺었고 이런 점들이 천태종 승려로 〈마하지관〉 등을 저술했던 내 은사에게 주목받았다. 나중에 알게됐지만 내 은사는 남학생을 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딸이 동경대를 나온 재원이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비자 발급 문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는데 3년이 걸렸다. 유학생활은 금전적인 부담이 컸다. 그때 조명기 총장이 환희성 보살(관훈클럽 회장)을 소개해 장학금을 받게 해줬다.

은사인 세키구찌(關口眞大) 박사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울 따름이지만 김 한 톳을 신문지로 둘둘 말아 선물로 들고 갔다. 3층 건물로 된 집은 1층과 2층은 살림을 했고 3층은 서재였다. 3층 서재는 메이지시대부터 3대에 걸쳐 꾸민 서재로 처음 본 순간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들에 눌려 충격받았다. 학교 뿐 아니라 집에서도 항상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조성된 환경이 너무 부러웠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내게 '문화쇼크'였다.

귀국 후 은사를 초청했을 때 박사학위 논문을 쓰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400자 원고지를 직접 쓰며 두꺼운 분량을 채울 만큼 내게는 체력이 없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도서목록도 변변치 않았던 시절, 동국대 도서관은 방학을 맞아 서고 책들을 밖에 말리고 있었다. 호기심에 책들을 둘러보던 나는 〈선학입문〉 등 세권의 책을 발견했다. 논문 주제로 고민하던 것들이라 환희심에 가득했다. 어렵게 책을 빌렸다. 그 길로 바로 프라자 호텔 앞까지 달려가 당시 1부 50원씩 주고 복사를 했다. 고서를 복사까지 하니 거무스름한 것이 더 멋있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들로 나는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다.

두번째 우연은 천책의 〈호산록〉을 찾은 것이다. 나는 故 이종익 박사에게서 "송광사에서 본 듯하다"는 말만을 듣고 찾아가 송광사 책들을 뒤졌다. 그러다 〈죽미기〉라는 해남 대흥사 기록서 뒷부분에 합철된 것을 발견했다. 이때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초서로 돼있어 읽을 수가 없었다. 혼자서 파고 또 팠다. 그렇게 1970년대 초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1982년 11월 〈한국천태사상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꼬박 10년 걸렸다.

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들은 공부하는데 운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내가 공부하며 살아온 길은 매 순간마다 로또 당첨 같은 행운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연기법을 안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될것이다. 꿈이 있다면 서원하고 정진하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꿈이 있다면 서원하고 정진하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정리=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리영자 교수는 1936년 강릉 출생. 평생 천태사상 연구의 외길을 걸어온 우리나라 최초 여성 불교학자다. 1965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천태대사의 교판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에서 1982년 〈한국천태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불교여성학 개척자기도 한 이 교수는 저서로 〈불교와 여성〉 〈천태불교학〉 등이 있다. 은퇴 후에도 법화학림(서울 장충동 소재)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며 '법화학 천태학 연구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지창규 교수(동국대), 최기표 교수(금강대), 오지현 박사, 김은희 박사 등이 논문지도를 받고 천태학 연구에 매진 중이다.

제6회 명절차례 시연 및 출판기념법회 초청의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겨레가 다같이 쇠는 차례에 이름에도 반듯하게 들어 있는 차(茶)를 쓰지 않고 술을 쓰는 풍토를 바로잡으려고 90년대 초반부터 "차(茶)올리는 차례지내기" 캠페인을 벌려왔습니다.
올 해에도 모든 국민이 차례를 맞아 맛있는 감로차(甘露茶)를 조상님께 올리기를 바라면서 **"제6회 명절차례 시연 및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사 명 : 제6회 명절 차례 시연 및 출판기념 법회
◆ 날 짜 : 2008년 1월 29일 (화) 오후 4시 ~ 7시
◆ 내 용 : 제1부 차례시연 | 제2부 출판기념법회(부루나의 노래:법현 지음) | 제3부 다과(공양)
◆ 회 비 : 2만원(책 및 자료와 후원금)
◆ 장 소 :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 (태고종 총무원 법륜사) *경복궁 건너편 법련사 뒤
◆ 참가확인문의 : 02)386-4755, 386-4720, 732-3920(법륜사)
◆ 홈페이지 : www.opentemple.or.kr
◆ 카 페 : http://cafe.daum.net/buruna21
◆ 우리은행 1005-000-974553 국민은행 429501-01-266034
신한은행 436-01-021946 예금주:열린선원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열린선원 원장 법현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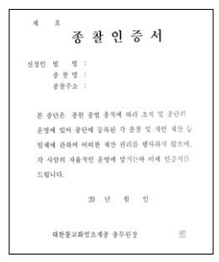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찰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데스크 초대석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속세 향한 '소통의 문' 활짝 열어 둘 것"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2500년 전 인도의 니란자라(尼蓮禪河) 강가 보리수 아래 단정하게 앉아 수행하던 한 사문이 새벽별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무상정등정각을 얻은 사문은 이제 더 이상 사문이 아니라 부처님으로서 중생들을 열반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사문 고타마시타르타가 부처님이 되신 음력 12월 8일, 우리는 이날을 성도절(成道節)로 기리고 있다.

성도절의 오랜 전통은 수행자들에게 '부처님 되기'의 발원을 더욱 새롭게 하는 날이다. 철야용맹전진을 하며 부처님의 '새벽별'을 만나고자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이다.

1월 14일 초저녁 청도 운문사. 운문사 경내에 내려앉은 어둠을 밟고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와 스님들의 움직임이 천상의 풍경 같았다. 250명의 스님들은 학장 명성 스님의 법문을 들은 뒤 두 개의 큰방에 나눠 앉았다. 그리고 입승 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견고한 가부좌를 짓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 밤 9시에 시작된 정진은 새벽3시까지 이어졌다. 성도절 전야의 정진, '새벽별'에 눈 맞추기 위한 치열한 구도의 자세는 호거산 보다 단단하고 경내의 소나무보다 청청했다. 용맹정진에는 학장 명성 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이하 여러 강사 스님들도 모두 동참해 힘을 보탰다.

비구니 스님들의 강원으로 이름난 청도 운문사. 운문사가 변하고 있다. 이제 운문사는 더 이상 산중의 고즈넉한 산사가 아니다. 세속과 통하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수행과 전법을 일체화 시키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와 유치원 운영을 통한 새싹포교, 인근 마을과의 다양한 소통까지. 운문사에서 속세로 향한 길은 인근 마을에서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뻗어 있다. 운문사의 사격(寺格)을 일신시킨 학장 명성 스님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면 지금의 주지 진성 스님은 열매를 거두어 만중생에게 공양을 하는 셈이다.

운문사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지 진성(眞晟) 스님을 성도절 전야 철야용맹정진 직전에 만났다.

–최근 중국 칭화(淸華)대학과 교류 협약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가 이뤄집니까?

중국의 칭화대는 중국내에서 불전 한어 분야 연구에 가장 권위 있는 학교입니다. 문화혁명이후 경전판본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판본 보유와 연구를 부러워 합니다. 운문사에도 1700여장의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본 칭화대 관계자는 매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칭화대는 불전연구 분야는 물론 불교학 전반에 대한 발전의 파트너로 운문사승가대학을 원했습니다. 교류는 칭화대 측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우리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 스님들의 높은 학구열을 세계무대로 이끌고자 발원했던 학장 명성 스님의 뜻에 부합된 '인연'이어서 손을 잡게 됐습니다. 교류의 중심 내용은 두 대학이 주최를 바꿔가며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생과 교수진을 교환해 수학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하나조노(花園)대학과도 교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하나조노 대학도 운문사에 교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미 교류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는 이뤄졌고 최종 절차만 남았습니다. 3월 이전에 협정이 완료될 것입니다. 하나조노 대학측은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자를 정규4년제 대학 졸업 학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으므로 우리 동문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해외 두 대학과의 교류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난 44년 간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1600명에 이릅니다. 그 많은 스님들이 다 각자의 길에서 정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학문의 길을 선택하고 해외로 길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스님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발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대학과의 교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의 학생들이 운문사 승가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진짜 한국불교'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산 시내에 운문유치원을 개원해 올해 첫 입학식(3월 4일)을 앞두고 있는데….

네, 유치원 운영은 학장 명성 스님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경산시 사동에 부지를 확보하고 운문유치원을 설립했는데 건축물도 매우 우수하고 각종 시설이 어린이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원아는 한 반에 25명씩 5개 반으로 첫 입학식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운문사'라는 좋은 여건과 부합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심성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민들과도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치원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외국인 원어민교사가 상주하며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등 3년제 유치원의 전 교육과정이 다른 곳과는 차별화 되어 우수한 유치원이 되도록 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운문사에서 새싹포교를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가대학의 교화부 스님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공부하고 여름 방학 때는 여름불교학교를 엽니다. 매년 800명씩 참가하는 여름불교학교는 운문사 어린이 포교의 꽃이라 할 만합니다. 교화부 스님들이 한 달 이상을 준비해 3일을 진행하는 여름불교학교는 이제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데 하루 만에 신청이 완료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이밖에도 인근 초등학교의 졸업 입학식엔 스님들이 반드시 참여해 선물과 장학금을 줍니다. 정월 대보름 대구 부산 경산 등지에서 탁발을 해서 장학금을 조성하니 그 정성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감복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또 경주 대자원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교화부 외에 다른 부서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운문사 승가대학에는 교화부 신행부 문화부가 있습니다. 신행부는 경내의 음료 자동판매기 관리와 손수 지은 옷으로 바자회를 열어 모아진 수익금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합니다. 문화부는 월간 <운문>과 달력을 제작하고 각종 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학인 스님들의 이런 활동은 운문사의 대사회활동과 포교활동의 밑바탕이 됩니다. 학장 스님의 철저한 학사관리와 함께 운문사 승가대학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왕성한 동력인 것입니다.

–운문사는 비교적 빨리 태안반도로 달려가 기름제거 작업에 동참 했다는데 언제였습니까?

사고 직후 학인 스님들이 "빨리 가서 일손을 돕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5백나한전 100일기도 회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12월 17일에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단 일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인재(人災)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량이 참으로 정갈합니다. 불사를 더 할 계획이십니까?

오늘의 운문사는 학장 명성 스님의 원력으로 일궈진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이곳에서 상량식만 48번을 봉행했습니다. 아미타불의 48대 원력처럼 많은 건축물을 새로 짓고 고쳐짓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형불사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내실을 다지는 불사에 매진해야지요. 안으로는 학인들의 수학분위기를 높이고 대사회적으로는 전법의 길을 더 넓혀 갈 것입니다. "일속에서 참되라(卽事而眞)"는 학장 스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 하는 것, 그것이 저와 모든 대중들의 화두일 뿐입니다.

청도=임연태 부국장



1월 14일 저녁 성도절 전야 철야용맹정진에 든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과 대중 스님들. 맨 뒷줄 오른쪽 첫번째가 학장 명성 스님. <사진=정안 스님>

中 칭화대·日 하나조노大와 불교학 발전 교류 협약

유치원 건립·여름불교학교 개최 등 새싹포교에 심혈



운문사가 경산시에 설립한 운문유치원.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디지털마이크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각종 마이크 시스템(에코가능)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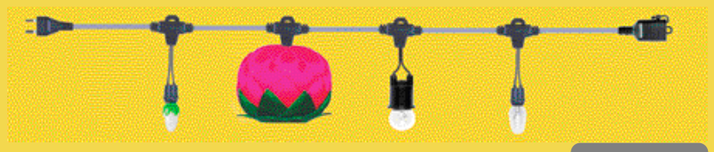
사찰 하이파이 앰프

두원미디어 Twin Media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남은 인생을 탄탄하게 해주는 기록



기록의 기술

김홍섭 · 이주원 지음
행복한 나무 펴냄 | 1만2000원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

워크스마트 사의 창립자인 '그레그 S. 레이드'의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는다. 그러나 꿈을 기록하는 사람은 겨우 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상적인 업무와 메모는 익숙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답을 주는 책이 있다. <행복한 내 인생을 위한 기록의 기술>이다. 이 책은 자서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책으로 내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꿈 많은 20대에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그 때 새겼던 당신의 신조와 가치관은 무엇이었는가? 패기와 도전의 30대는 어떠한가? 방향을 잃고 표류한 적은 없는가? 40대인 나를 일으켜 세워준 조력자는 누구였는가? '이미'이거나 '아직'일 수 있는 당신에게 '기록의 기술'은 이제 시작임을 알려준다.

그렇다고 이 책은 플래너가 아니다. 자서전도 아니다. 플래너와 다이어리가 일 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 책은 인생을 정리하고 큰 틀을 세우게 해준다. 내 인생의 설계인 동시에 정리이기도 하다.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좀 더 탄탄하게 해 주는 것과 동시에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매개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나'라는 아집부터 버려야만 해



내마음의 이야기

제운 스님 지음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원

같은 산이라도 울긋불긋한 산은 변화하는 것으로서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산은 오래 머물기에 느긋할 수 있고 화려한 가을산은 오래가지 못하기에 안타까워 몸부림치는지도 모른다. 저 멀리 높게 떠도는 백운도 마찬가지다. 오래 머물 수 없기에 스스로가 나그네인줄 알 것이며, 그리하여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실체가 영원하지 못함에 안타까워 부들부들 떠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늘 청산이고 싶지만 청산이 되지 못하고, 외로운 떠돌이 구름처럼 그렇게 산다고 여길 수도 있다. 선화(禪畵)작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는 제운 스님이 수행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썼다. 스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 여행을 떠나지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나'라는 생각 · 아집부터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마음은 잘 쓰면 큰 공덕이 되지만 잘못 쓰면 되돌릴 수 없는 업(業)이 된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30여년 경전 읽으며 수행한 '생활 수행인' 마음

편견을 버리면 진리가 보인다

우리집 정원에는 여러종류의 야생화가 있다.
노루귀 복수초 매발톱 금낭화 돌담풍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제법 많이 있다.
이른 봄 가장먼저 꽃을 피우는 놈은 노루귀와 복수초이다.
노루귀는 아직 땅이 녹기도 전에 하얀색 보라색의
아주 조그마한 꽃부터 세상에 내 보낸다.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노루귀 같이 생긴 잎이 돋아난다.
그런가 하면 복수초는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노란 꽃과 잎이 동시에 언 땅을 뚫고 나온다.
그 부드러운 새싹들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노라면
생명의 약동하는 힘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는 다 다르지만
다른 야생화도 때가 되면 봄과 여름에 새싹이 돋아나 자라고
꽃을 피우고 가을에 씨앗을 맺고 겨울이 되면 시들고
죽은 줄기만 남거나 아예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봄이 되면 또다시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고
또 겨울에는 모습을 감추는 순환을 거듭한다. –본문 44~45p 중–

아주 편하고 평이한 생활의 발견이다. 이러한 발견이 바로 진리다. 불교에 수많은 경전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그만큼 많은 것은 아니다.

진리는 하나다. 다만, 그 하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활화 하는 시각과 관념의 차이가 '천지현격'일 뿐이다. 그 하늘과 땅 차이를 좁히기 위해 부처님은 다양한 방편을 들어 법을 설했고 조사와 선지식들은 온 몸으로 수행하고 그 견처(見處)를 활활발발하게 전했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대학의 부총장과 대학원장 국토개발원구원 원장 AIT 대학원 대학 교수 등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서 일생을 살아 온 황명찬 교수. 고희를 맞으며 황 교수가 펴낸 수상집 <마음>에는 30여년 경전을 읽으며 수행해 온 '생활 수행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황 교수는 전원주택에 살며 인생을 회고하기 보다는 자연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진리들에 대한 경탄과 감사의 마음을 갈무리하고 있다. 그러한 갈무리가 한권의 책으로 나오는 데는 아들과 딸의 정성까지 더해졌다. 딸은 손으로 쓴 원고를 컴퓨터에 담고 아들은 멀리 미국에서 그 원고를 교정하고 편집했다. 책의 중간중간에 들어간 사진도 찍어서 배열했다. 자칫 '나머지 생'이 될 수도 있는 나이에 새롭게 보이는 진리의 모습 새롭게 들리는 진리의 소리들을 자녀들이 공유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자분자분한 글에 시집과 같은 문장배열 등의 편집이 보태져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마음

황명찬 지음
지혜의 나무 펴냄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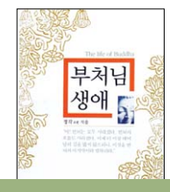
황 교수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진리도 번잡하지 않다. '편견을 버리면 진리가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흉조라 여기는 까마귀를 일본 사람들은 길조라 생각한다. 흉하고 길한 것은 까마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게 느껴지고 나쁘게만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좋고 나쁨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에 부합된 삶이라는 것을 황 교수는 강조한다.

황 교수는 글에서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이 담긴 경전들과 선사들의 어록 성철 스님의 법문 등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두 끝단을 버리고 진리 그 자체를 보는 안목을 넓혀 주기위한 장치다. 자신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진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면 늘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마음>은 결국 진리를 발견하는 코드로 안내한다. 황 교수가 안내하는 코드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임연태 기자**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한 눈에



부처님 생애

정각 지음
운주사 펴냄 | 4500원

80성상에 이르는 부처님 생애와 깨달은 이후 펼친 가르침은 사실 나열 자체만으로도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부처님의 행적, 말씀 하나하나마다 큰 의미와 가르침이 담겨 있으니, 이를 다 담고자 한다면 팔만대장경보다 많아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래서 어떤 불교학자들은 부처님 생애를 간략하게 여덟 시기로 나눠 알기 쉽게 서술하기도 한다. 도솔래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를 다시 탄생과 성장, 출가와 깨달음, 교화와 전법, 열반 등으로 간략화해 부처님 생애를 단숨에 읽어나가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요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 핵심을 적절히 결합시켜,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내용이 간결하고 책 크기도 포켓북 사이즈로 손에 쉽게 잡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2~3시간이면 족히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간결하다고 해서 부실하다는 얘긴 아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은 다 담고 있다. 제1부 탄생과 성장에서는 룸비니동산에서의 탄생을 비롯해 화려한 궁궐생활, 야쇼다라와의 결혼,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고뇌와 출가사문과의 만남 등이 실려 있다. 이어 제2부 깨달음의 여정에서는 스승들과의 만남, 고행림에서의 목숨을 건 수도 등이, 제3부는 유명한 가르침들, 제4부에서는 열반에 대한 예고 등이 들어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왜 나무아미타불인가	우익	불광출판부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7	까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미쉘 마틴	지영사
8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9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10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문의전화:02)585-1141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
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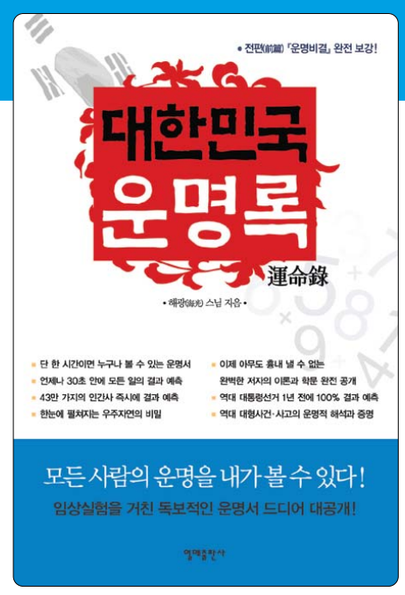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정규종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 · 불교서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친구같은 책 만들 것"

우리출판사를 찾아서



우리출판사 가족들이 자신들이 펴낸 대표 불서를 한 권씩 들고 모였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겨운 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는 출판사 이사장 무구 스님.

"명료하고 쉬운 불서, 생활과 가까운 불서 만들고 파
훌륭한 스님을 담은 책·어린이들을 위한 책 만들 것"

우리출판사 대표 불서 BEST 2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연도
1	고승열전 시리즈	윤청광	1993
2	잘사는법 99	최정희	2006
3	별처럼 사는법	이시우	2007
4	노스님의 젊음	지묵	2004
5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적문	2000
6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	1999
7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	구본일	2002
8	불교천자문	덕진	2007
9	신경림 선생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글 오은석 그림 이증삼	2000
10	신경림 선생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눔	글 오은석 그림 이증삼	2000
11	한글 법화 삼부경	성훈	2000
12	불교를 알고싶어요	돈관	2001
13	눈으로 먹는 절음식	김연식	2002
14	위빠싸나 수행법 33일	법산	1999
15	절에서 배우는 불교	혜자	1999
16	초발심자경문	지묵	2002
17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맹란자	2002
18	화두참선	이계묵	2004
19	경 이야기	와타나베 쇼코 저 지성 옮김	2005
20	성훈따주기	성훈	1993

'우리'라는 단어는 참 정겹다. '나'와 '너'가 '함께'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출판사 이름 앞에 '우리'가 붙었다. 이 정다운 이름의 출판사는 과연 어떤 책을 만들어내는 곳일까.

우리출판사를 찾은 것은 1월 15일이다. 매서운 바람을 맞아가며 서울 충정로 경기대 후문 근처의 출판사를 찾아 올라갔다. 우리출판사에서는 현재 <우리말 지장경> 본문 교정 작업 중이다. 한창 작업 중인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 기다리자니 우리출판사 이사장 무구 스님이 성도재일 철야법회를 봉행하고 합류한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스님은 출판사 이야기를 꺼내자 활기를 찾는다.

"불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복지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 만드는 것이 더 보람 있는지 몰라요."

우리출판사는 사찰복지로 이름 높은 수효사와 함께 있다. 이는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된다. 불교계 출판사 중 우리출판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다. 불서전문 출판사가 9명의 직원이라니 놀랍다. 스님은 "아무래도 포교목적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니 출판만 전담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한 상황"이라고 밝힌다.

우리출판사는 1980년 설립됐다. '따주기'로 유명한 성훈 스님의 뜻을 받든 것이다. 가장 먼저 만든 책은 역시 성훈 스님의 수필집이었다. 그리고는 <법화경><지장경> 등의 경전 위주로 책을 펴냈다.

"초창기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출판 방향잡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무거운 내용 일색이라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생각을 바꿨다. 명료하고 쉬운 불서, 누구나 읽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생활과 가까운 불서를 만들기로. 그 결과 교계 한 편에서는 또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듣게 됐지만 일반 독자에게 다가가는 데는 성공을 거뒀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잘사는법 99>(최정희 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적문 저), <성훈따주기>(성훈 저)처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가 가장 눈에 띈다. 물론 이런 영역이 다는 아니다. 법문집과 경전, 법요집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워낙 방대한 도서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무구 스님이 "이것은 정말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만든 불서가 있다. 바로 <고승열전>시리즈다.

"왜, 위인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저도 헬렌 켈러, 케네디 등의 전기를 읽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불교 역사에 너무나 훌륭한 스님들이 많은데 왜 외국사람 위인전기만 있을까 싶더라고요."

<고승열전> 시리즈는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책 중 하나다. 스님의 생각이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켰다는 뜻일 것이다. 위인집처럼 만들어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해 알려나가는 것에 스님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스님은 또 어린이 책 만드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신경림 선생이 전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글 오은석 · 그림 이증삼)는 <본생담>의 이야기를 뽑아 어린이를 위해 다시 만들었다. 특히 활자와 삽화 등에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우리출판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람' 이야기다. 환한 웃음이 인상적인 김동숙 전무와 김동조 부장 말이다. 이들은 1983년부터 우리출판사에서 일했다. 모두 무구 스님의 속가 동생이기도 하다. 온 가족이 부처님 전법에 매달려 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전무는 넉넉한 웃음과 살뜰하게 사람을 챙기는 마음으로 출판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를 시키기 보다는 직접 해내는 경우가 많다. 법요집이 가득 든 상자를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맛있는 반찬을 손수 챙겨다 주는 모습에서는 그야말로 사람 냄새가 난다.

우리출판사의 색깔은 '우리'라는 단어 그대로 '정겨움'이었다. 불서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정겹기 때문일까, 만들어 내는 불서에서도 그 색깔은 고스란히 묻어난다.

따뜻한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출판사에서는 오늘도 '우리'의 의미를 되새기며 열심히 불서를 제작하고 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선(禪)의 황금시대

오경웅 지음 · 류시화 옮김 | 경서원 | 1955

천문학자 이시우 박사

새로운 철학의 정신세계 보여

은사 교수께서 퇴직을 하자 내가 기초 교양과정 과목인 '인간과 우주'를 강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주'쪽은 천문학 내용을 강의하면 되는데 '인간'에 대한 내용의 강의가 문제였다. 자연과학에만 정신을 쏟다보니 인문사회에 대한 교양이 거의 전무한 처지라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집에서 아내가 사서 읽은 여러 책들을 훑어보다가 <선(禪)의 황금시대>(오경웅 지음 · 류시화 옮김)를 골라 읽어보기로 했다.



우연히 아내가 산 책 훑어보다 발견
선가에서 말하는 '알음알이' 과제

불교를 전연 모르던 나에게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조사들의 깨달은 글들은 너무나 신선하여 마치 내가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주 천체인 물질세계를 주로 다루어 오던 나에게 경전의 내용이나 조사의 생각은 새로운 정신세계를 펼쳐보였다. 대학 진학 때 철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당시 철학과를 나와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웠던 사정 때문에 물리학과로 갔던 나에게 <선의 황금시대>의 내용은 새로운 철학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육조혜능의 <단경> 내용이며 <금강경>의 사구게, <도덕경>의 자연철학관 그리고 남악회양 남전보원 덕산선감 마조도일 백장회해 운문문언 운암담성 위산영우 임제의현 조주종심 향엄지한 황벽희운 등의 조사들이 남긴 오도송이나 화두는 나에게 태산같이 다가오는 난제였다. 흔히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알음알이와 논리적 사고에 익숙한 나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큰 과제였다. 그래서 읽고 또 읽었다. 내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또 선사들의 생각을 되짚어 보기도 했다.

<선의 황금시대>를 읽을 때는 여기서 무엇을 건져서 '인간과 우주'의 강의에 쓸만 한 것을 고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용이 대체로 지나치게 불교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몇몇은 골라서 학생들에게 '인간'의 측면에서 이야기해주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 스승곁을 떠나는 동산 스님이 "남이 스승의 진면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어라 대답하면 좋을까요?"라고 묻자 운암 스님은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바로 이것이 다"라고 했다. 동산 스님은 '바로 이것이다'의 뜻을 즉시 생각지 못하다가 냇물을 건너면서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바로 이것이다'의 참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

"다른 데서 그를 찾지 말라/오히려 그는 너를 떠나리라/이제 나 혼자 스스로 가니/어디에서나 그를 만나리/그는 바로 나지만/나는 바로 그가 아니다/이것을 깨달아야/본래 얼굴과 하나가 된다."

나는 이 선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 중에서 "그는 바로 나지만/나는 바로 그가 아니다"를 숙제로 내주면서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오도록 했다. 허기야 나 자신도 동산 스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선사들의 정신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설명은 각양각색이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생각을 짜내느라고 고생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다.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저중간에는 사찰과 불자가정의 비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학2마리"가 비상을 하며 손잡이 하단에는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육자대명왕진언"옴"자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다니"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3,5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2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50,000원, 100Set 10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오승우 화백 개인전 2월 26~3월 10일 한가람미술관서

동양적 주제인 십장생 서양화법으로 표현



오승우 화백의 '십장생' 도생산지, 바탕색 등 전통적 소재를 서양화법으로 표현한 작품.

서양화가 오승우(78 · 예술원 회원) 화백 개인전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오 화백이 약 7년 만에 여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불로장생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적인 '십장생'이다. 그동안 산과 사찰 건축물 등을 주제로 작업 해온 그의 창작은 '십장생'에 큰 매력을 느꼈는지 수년째 여기에 머물며 몰입된다.

오 화백의 십장생도는 흔히 전통 민화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색감의 그림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만의 해석과 미적 감각이 가미된 서양화 풍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오 화백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십장생도에 집착하는 이유를 "전통적이면서도 자주 그림의 소재로 화단에서 등장하지 않아 더 큰 매력을 느껴 몰두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그는 국내 서양화단의 거장이자 불교적 작가인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장남이자 작고한 오승윤(1939~2006) 화백의 형으로, 호남 미술 명문가 출신이다. 또한 두 아들들도 중견화가(오병욱)와 조각가(오상욱)가로 활동하고 있는 등 명실 공히 미술가 가족이다.

오 화백이 화면에 펼치는 십장생에는 무욕이 느껴진다. 특히 자연과 함께 하며 수행한 옛 선지식이나 신선들처럼 욕심 내지 않고 사는 마음으로 그려낸 오 화백의 십장생은 더욱 예사롭지 않다. 오 화백 특유의 엷은 파스텔 톤으로 빚어낸 십장생은 동양적인 소재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멋을 전해준다. 이번 전시회에서 오 화백은 이런 화법으로 7년동안 그려낸 50여점의 십장생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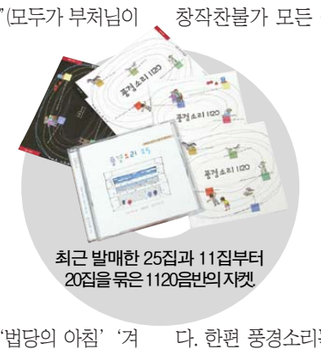
오 화백은 "90대에도 작품활동을 한 피카소를 예로 들면서 할 수 있다면 다음에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인물화를 새롭게 그려보고 싶다"고 창작에 대한 열정을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찬불동요 25집' 발매

온 세상 따뜻하게 데워줄 동요 9곡 수록

"겨울 햇살이 드리우는 싱그러운 아침에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염불하면 우리 법우 모두가 부처님 이예요/ 그리고 예쁘게 두 손 모아 잠자기 전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있는 눈이 오는 날의 법당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모두가 부처님이예요 중에서)

찬불가로 음성포교를 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25집 CD를 출반했다. 이번 음반에는 '눈이 오는 날'을 비롯해 '모두가 부처님이예요' '법당의 아침' '겨울 햇살' '싱그러운 아침' 등 9곡이 수록됐다. 또한 후반부에는 반주음악도 실어 놓아 어린이법회 교재나 겨울사찰 수련회 등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외에도 '좋은 벗 풍경소리'는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제작한 어린이법회 의식곡 CD도 함께 선보였다.



최근 발매한 25집과 11집부터 20집을 묶은 1120음반의 자켓.

이종만 실장은 "그동안 발표됐던 창작찬불가 모든 곡을 홈페이지(budsori.or.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잘 활용하면 의식이나 법회, 수련회 등을 통해서 찬불가 포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경소리는 그동안 발표한 11집부터 20집을 묶어 4장의 앨범으로 새롭게 제작해 보급한다. (02)723~9836 김주일 기자

'전통소리와 함께 하는 이색 콘서트'

명동 삼일로 창고극장 2월부터

주로 연극 공연을 선보여온 서울 명동의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우리 전통 소리와 함께 하는 이색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립국악원 음악 봉사단체인 무지개다리와 삼일로창고극장은 2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우리 소리와 함께 하는 都市樂(도시락) 콘서트'를 마련한다. 이 콘서트는 공연 시작 전 연주가들과 관객이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그날 들려줄 음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음악회를 감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월 4일 첫 공연은 가야금 페스티벌이다. 가야금 이중주, 사물놀이, 대금 연주 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매월 프로그램으로는 정악, 해금, 판소리, 경기민요, 대금, 피리 연주, 정가가 준비돼 있고 퓨전 콘서트(9월)와 송년 콘서트(12월)도 마련됐다.

창고극장 정대경 대표는 "명동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소리를 전해주고 싶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영산재나 범패 등의 소재도 공연 하겠다"고 말했다. (02)319~8020 김주일 기자

박동식의 티베트 사진전

박동식의 티베트 사진전 '열병'이 영광도서(대표 김윤환) 갤러리에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전시된다. 박동식 사진가는 여행가 및 수필가로 활동 중이며 글과 사진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는 작가이다. 사진플러스전, 박동식의 여행사진전, 어울리지 않는 이인전(異人展) 및 다양한 전시회를 열었다. 인도기행 에세이 <마지막 여행>, 여행 정보서 <Just go 제주도>, 티베트 에세이 <열병> 등의 저서가 있다. 전시 작품은 20여점이며 박동식 작가는 티베트 에세이집의 출간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한다. (051)816~9500 하성미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㉕가지튀김



가정에서 많이 먹는 야채 중 하나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에는 93%의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인, 비타민 A, C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지의 특유한 색은 안토시안계 색소인 나스닌(자주색)과 히아신(적갈색)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색소는 지방질을 잘 흡수하고 혈관 안의 노폐물을 용해, 배설시키는 성질이 있어 피를 맑게 합니다.

통증 멈추게하고 구내염 효과 뛰어나
지방 흡수하는 성질있어 튀김에 적합

가지는 열을 내리고 빈혈 예방과 혈액 속 콜레스테롤 양을 저하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증을 멈추게 하고 부은 것을 내리게 하는 약효도 있습니다. 특히 구내염에 효과가 있어, 주로 피부의 염증 · 유선염 · 종기 · 피부궤양 등에 쓰입니다. 독버섯을 먹고 중독 됐을 때는 가지를 날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즉석에서 낫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갈증을 그치게 하고 살충작용도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주로 열매가 이용되지만, 약재로는 주로 잎 · 줄기 · 뿌리 등이 이용됩니다.

가지는 주로 나물로 많이 먹지만, 지방질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튀김으로 조리해서 먹기에 알맞습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하면 불포화지방산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조직이 연하므로 오래되면 금방 물러져 버리므로, 도톰하게 어슷 썬 가지를 튀길 때는 찬물에 잠시 담가 둡니다.

가지튀김

재료 : 가지, 두부, 깨소금, 밀가루, 전분가루, 풋고추, 된장

만드는 법

① 가지는 5cm 길이로 4등분 한다.
② 두부는 으깨고 풋고추는 다져 운다.
③ 두부와 풋고추, 깨소금을 버무린 다음 된장으로 간을 맞춘다.
④ 재료에 밀가루와 전분가루를 3:7 비율로 섞어서 튀김옷을 만든 후 가지에 묻혀 기름에 튀겨낸다.

신비의 주역점서 『초씨역림』, 『초씨역림 384』 전2권 완간

매주 월요일 7시
'대동역학교육원'
031-447-3888

'전2권' 구매하신 분은 '대동역학교육원'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정가 25,000원





정가 60,000원

'전2권' 구매하신 분은 '전통과학아카데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
전통과학아카데미
02-929-4646

『초씨역림 384』는 원전 『초씨역림』의 괘사 중에서 삼변법으로 점쳤을 때 나오는 64괘 384효를 수록하고 점사를 일일이 상세하게 분류해 놓았다.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초씨역림 384』와 『초씨역림』을 같이 놓고 점쳐 보면 세상만사 길흉을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초씨역림』은 주역 64괘를 다시 통변 64괘 하여 4,096괘로 완전한 통변을 다한 유일한 비급이다.
『초씨역림』은 괘사 전체를 해독하지 않더라도 끝 구문만을 보면 길흉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으므로 초보자도 쉽게 길흉을 점칠 수 있다.
『초씨역림』은 대정작괘법에 의하여 평생 사주를 연년세세로 계산하여 일생의 길흉화복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초씨역림』에는 명리학이나 주역, 여타 학문으로는 나오지 않는 길흉이 정확하게 나와 세인들을 감탄하게 만든다.

'전국 유명 서점 절찬리에 판매중!'

출판사로 주문하시면 '전2권 60,000원'에 '택배비 본사부담'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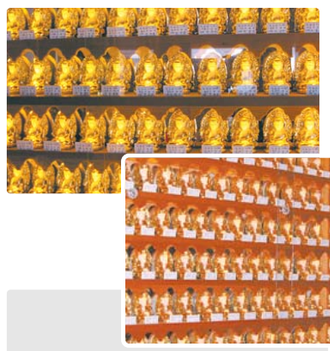
◆도서출판 신지평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004-950578 김종현 / 전화 : 02)338-4168 / 팩스 : 02)6442-4168

소불 · 인등 · 영가단위패 · LED 연등전구 전문제작

영 광 불 교



▶ 소불(6치, 7치)
- 독창적인 상호와 우아한 색채감
- 5,600칸델라의 화려하고 신비한 조명



▶ 인등(관음, 지장)
- 초고휘도 LED전구사용
- 고품격 도금식 인등 안치
- 자동 조명색상 변환기능 첨가(신제품)

- 주문 및 상담연락처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5
연락처 : 016-567-4979
※ 전국 어디든지 방문 견적해 드립니다.



▶ 영가단 위패(조명식, 비조명식)
-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
- LED 전구를 이용한 조명 가능

- 2008년형 신재품 -



▶ IS-LED 연등용 전구(밝기 기능 강화)
- 소비전력 0.2W로 기존 전구의 1/10~1/20정도로 절감
- 열이 없어 여름에 덥지 않으며 화재로부터 안전

오늘의 禪語

③ 화두(話頭)

선문답 가운데 '핵심 문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에게 스승이나 조실스님이 풀어보라고 던져주는 과제, 문제를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話頭)의 어의(語義)는 '말'이나 '대화'를 뜻합니다. 즉 깨달음을 얻은 선승들의 오도(悟道) 일화나 저명한 선승과 선승, 또는 선승과 참선자 사이에 오고간 선문답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는 '법담(法談)' '법거량'이라고도 하는데, 선문답 가운데 가장 핵(核)이 되는 글자나 문구가 화두인 셈입니다.

유명한 화두인 '무(無)' '간시궐(乾屎橛, 마른 똥 막대기)' '마삼근(麻三斤, 삼세근)'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뜰 앞의 잣나무)' 등도 모두 선문답이나 오도(悟道) 이야기 속의 핵심어입니다. 화두를 다른 말로는 '공안(公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용례를 중심으로 좀 더 세분한다면 대화의 전체 단락은 공안이 되고, 선사의 답어는 화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자화두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조주 선사(趙州, 778-897)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부처가 될 성품(佛性)이 있습니까?"

"무(無, 없다)."

"일체중생은 모두 다 불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없습니까?"

"그에게 업식(業識=중생심, 분별심)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상의 대화 가운데 전체 단락을 '공안'이라고 할 수 있고, 선사의 답어, 즉 핵심어인 '무(無)' 한 글자를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안과 화두의 쓰임새를 본다면 '공안'은 대화 전체와 핵심어('무') 모두에 통용되고 있지만, '화두'는 '무' 한 글자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게까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두 중에서도 무자화두처럼 아무런 뜻이 없는 화두도 있고, 의미하는 바가 있는 화두('마삼근' '간시궐' 등)도 있습니다. 설사 의미하는 바가 있는 화두라고 해도 무자화두처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참구할 때엔 차이가 없습니다. 무자화두도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주 선사가 '무'라고 한 것은 '개에게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바로 "그대가 만일 이 '무'자에 대하여 분별의식 즉 업식성을 갖는다면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화두는 풀(해석) 수도 있고 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풀어 해석하게 되면 무의미한 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면 '사구(死句, 죽어버린 말)'라고 하고, 풀지 않으면 '활구(活句, 살아 있는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적 관념적 해석이 아닌 온몸으로 사유(체험적 사유, 수행)를 통한 해석이라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지(理智)와 체험적 사유가 결합된다면 그 힘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참구를 통하여 체득한 것이 되므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자화두의 대가인 대혜 스님(大慧, 1088-1163)은 "이 '무자'야말로 모든 사량 분별심과 잡념을 물리치는 '무기'이며, '지혜의 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두 하나로 모든 번뇌와 근심, 걱정 등 불안을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화두는 모두 17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참구해도 되고 스승으로부터 받아서 참구해도 됩니다. 가능한 자신이 존경하는 분에게 직접 받아서 참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 있는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절대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화두 참구방법을 숙지한 뒤에 참구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화두나 공안을 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것을 간화선(공안선, 화두선이라고도 함)이라고 합니다. '간화(看話)'란 '화두를 참구(看)한다'는 뜻으로, '무' '간시궐' 등 화두 참구(탐구)를 통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수행법입니다. 이와 반대인 묵조선(默照禪)은 화두나 공안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앉아서 좌선만 합니다.

요즘 '화두'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적극 애용하는 바람에 대중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대략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관건'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에서 쓰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다음 연재는 '화두의 역할').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선문답의 전체 단락은 '공안' · 선사의 답어는 '화두'로 구분
대중적 의미로 '해결해야 할 과제' · '관건' 등으로 사용되기도

Tip 업식과 화두

▲업식(業識) : 분별의식, 차별의식, 분석적 사고 등을 업식, 업식성(業識性, 업을 짓는 속성) 또는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등 흑백논리로 따지고 분별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칭어 불성은 모든 것을 하나로 봅니다. 차별하거나 분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화두(話頭) : '화(話)'는 '말' '대화'이고, '두(頭)'는 어조사입니다.

신행게시판

●**아미타사에서 태원 스님 특강**=서울 아미타사가 1월 25일, 2월 1일, 15일 아미타정토 불교대학 특강을 개최한다. 25일 저녁 7시 처음 열리는 특강은 '정토사상과 염불의 전개사'를 주제로 중앙승가대 태원 스님이 강의한다. 교재는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로 희망자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아미타사는 매일 저녁 신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에는 정토불교대학강좌, 화요일 아미타춤, 수요일 고성염불 및 경전강독, 목요일 불화강습, 금요일 정토주제 특강이 그것이다. (02)745-3351

●**상락향수도원 '선정삼매여행'**=미얀마 파옥명상센터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수행하고 귀국한 정명 스님의 지도로 '선정삼매여행'을 떠나보자. 가평 상락향수도원에서 1월 23~27일 '선정삼매여행'이 열린다. 선정삼매과정은 부처님의 수행법인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명상법인 아나파나사띠를 이용하여 선정에 드는 방법을 지도한다. 정명 스님이 지도하는 명상코스는 선정삼매를 목표로 단계별 마음집중을 이루는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에 드는 이론과 실제를 익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님은 선정삼매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사대수행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010)9536-8181

●**실상사 참선수련 템플스테이**=남원 실상사가 2008 참선수련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1월 26~29일 열리는 참선수련 템플스테이의 동참금은 1만원. 선착순 10명만 참가할 수 있다. 수행문답, 좌선, 차담 등 차분히 한 해를 시작하는 템플스테이로 구성될 예정이다. (063)636-3031

●**입춘맞이 7일 기도**=일산 여래사가 입춘맞이 7일 기도에 들어간다. 입재는 1월 29일이고 회향은 2월 4일이다. 입춘기도는 삼재를 극복하고 한 해의 행복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도이다. 한해를 시작하기 전에 불보살님의 원력을 빌어 뜻있고 보람 있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기도이기도 하다. (031)905-7766

●**혜원정사 자비알뜰 바자회 개최**=부산 혜원정사 신도회에서 1월 31일 자비알뜰 바자회를 개최한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판매물품은 한과, 미역, 김, 표고버섯, 대추, 호박죽, 떡국, 다시마, 양념류, 도자기, 양말, 의류 등이다. (051)866-777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회광반조로 '욕망의 사슬' 끊다

❸ 마등가의 딸 프라크리티

<마등가경(摩登伽經)>과 <능엄경>에는 아난을 유혹한 마등가의 딸 프라크리티(鉢吉帝)가 등장한다. 마등가는 고대 인도에서 천한 직업을 가졌던 전다라(백정)와 같은 계급의 남자를 가리키며, 여자는 마등기(摩登祇)라고 부른다. 특히 사술(邪術)을 이용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예가 많았다.

두 경에 따르면, 이른 아침 아난이 사밧티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고 나오다 우물가에서 마등가 출신의 프라크리티로부터 물을 얻어 마신다. 이때 이 여자가 아난의 용모와 음성 등에 반하여 남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어머니의 주력을 빌어 아난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다. 어머니는 주술로써 아난을 결박하고 저녁때가 되어 아난의 곁에 잠자리를 펴놓았다. 딸은 기뻐하며 몸치장을 한 다음 아난에게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간절히 청했다. 아난은 자신이 출가승이 되어 황발외도(黃髮外道)의 주력(呪力)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합장한 채 부처님이 계시는 쪽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했다.

애욕에 눈 멀어 주술의 힘까지 동원
부처님 설법 듣는 즉시 깨달음 도달

이 때 부처님은 칠월 보름 여름 해제날이자 파사익왕 아버지의 제삿날이므로 그의 청을 받아 왕궁에서 공양하시던 중이었다. 아난의 결박을 신통력으로 아신 부처님은 공양이 끝난 즉시 능엄대신주(楞嚴大神呪)를 설하여 문수보살로 하여금 이 주문을 가지고 가서 마등가의 주력을 소멸하고 아난을 구출하라고 명했다.

아난이 풀려나자 다음 날, 여자는 성안에서 아난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난이 걸식을 하고 돌아가는 뒤를 따라 기원정사까지 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눈, 코, 입, 귀와 소리, 몸매, 걸음걸이 등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설했다.

"아난의 눈에는 다만 눈물이 있을 뿐이며 코에는 콧물, 입에는 침, 귀에는 귀지, 몸뚱이에는 대 · 소변이 담겨 있는 한 때의 가죽주머니에 불과하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여러 비유를 들어 무상(無常) 법문을 설하자, 그녀는 이 몸은 추악하고 부정한 동시에, 송장이 변한 몸에 불과하다는 것이 뚜렷해졌다. 숙세의 인연이 무르익은 그녀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모든 애욕에서 벗어났다. 그녀의 마음에서 아난에 대한 음욕과 갈애, 미움이 모두 힘을 잃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춰보는 회광반조(廻光返照)를 통해, 그녀는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훤출히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다.

이를 본 대중들은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이처럼 쉽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은 그녀의 전생 인연을 말씀하셨다. "이들은 과거 500년 동안을 계속 부부가 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왔고 또한 나의 법 중에 깊은 숙연이 있었으므로, 이제 나를 만나 도를 깨친 것이다. 이제 그들은 마치 형제 자매와 같다."

프라크리티는 비록 현생에서는 욕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곧바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도리를 깨달아 해탈하였다. 특별한 수행법으로 오랜 기간의 수련 없이 법문을 듣는 즉시 깨닫는 언하변오(言下便悟)는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의 3법인(三法印)을 철저히 요달한 자에게만 나타난다.

부처님께서 프라크리티에게 제행무상을 철견하도록 한 법문은 탐욕을 없애기 위해 나와 남의 몸을 백골 등 더러운 것으로 보는 골상관(骨想觀) · 백골관(白骨觀) · 부정관(不淨觀)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정관은 오늘날도 태국과 미얀마 등 남방불교권에서 널리 권장되는 기초 수행법이다.

부처님은 "애욕만큼 즐거운 것이 둘만 있어도 아무도 출가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을 정도로 윤회의 근원인 갈애(渴愛), 그 가운데도 애욕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알았다. 타는 듯한 애욕을 극복하고 해탈을 이루었다"(법구경)는 부처님 말씀처럼, 애욕의 정복은 구도의 마지막 관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무 료 개 방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 검색창에 「불 토 사」 라고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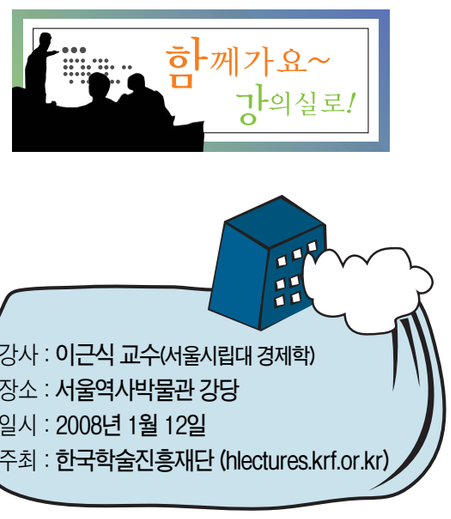
무보시로 기도하실 비구,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 토 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회 전반의 상생과 소통이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뤄



강사 : 이근식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일시 : 2008년 1월 12일
주최 : 한국학술진흥재단 (hlectures.krf.or.kr)

'인문학 위기'에서 인문학을 논하다

인문학은 무엇일까?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와 같은 추상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학문이다.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인문대 졸업생의 낮은 정규직 취업률. 대학의 인문학과 폐지와 정원 축소로 인한 학내 갈등 등은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인문학을 넘어 인간사회 전반의 혼란을 예고한다는 데서 큰 문제다.

이런 가운데 인문학이 직접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자리가 마련됐다. 학술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주최로 마련된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동서양 고전해석과 현대. 자유-정의-상생과 사회발전. 사회의 도덕적 기초. 21세기 역사학-우주과학과의 만남. 법-사회-인권 등. '사회의 인문적 기초'라는 대주제로 각 분야 석학을 초청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좌는 우리 사회의 인문적 화두를 놓고 공감하는 자리다.

강의를 들은 정훈식(오산고 교사)씨는 "정보화 시대 교육이 단순히 요점 정리를 전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전락한 인문학 부재가 오늘의 강좌를 더욱 가치 있게 한다. 이번 강좌를 통해 〈국부론〉을 읽게 됐다"고 말한다. 문학에 평소 관심 있었거나 이번 강좌로 관심을 갖게됐다는 다른 참석자들도 석학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공유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오늘 강좌는 이근식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가 '자유-정의-상생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강의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회발전의 의미와 방법'을 주제로 인문학적 사유를 함께 나눴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좋은 사회란 자유, 평등 그리고 상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라고 볼 수 있지요.
이 강좌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상생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울러 이 강좌는 인간성의 핵심이
윤리의식에 있다고 보고자 합니다.
과학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과학실증주의를 배격하고,
건강한 윤리의식에 입각한 건전한
가치판단을 견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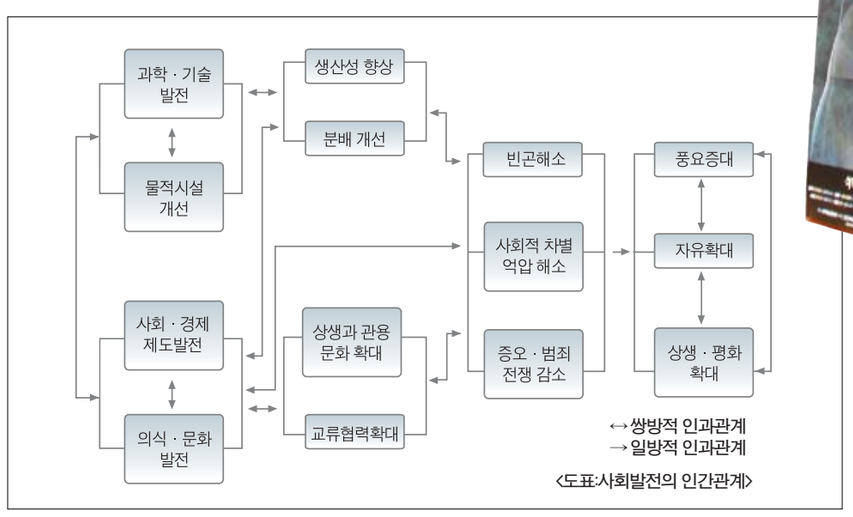
오늘의 주제는 '사회 발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는 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내가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인간의 불완전성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강연에서 고찰하는 '자유-평등-사회발전' 등의 주제는 추상적인 문제입니다. 내 공부는 한계가 있기에 내 생각은 주관적이며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듣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비판하고 생각하기를 당부합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동양에서 하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동양은 중국이 중심인데 중국인에게는 4000여년 전 과거 속 요임금과 순임금 시절이 이상향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옛날 에덴동산이 이상이었지 앞으로 올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이상향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은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지닌 것으로 기껏해야 사회라는 것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등장은 중앙아시아는 4000~5000여 년 전이었고 중국은 3000~4000여 년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원시공산사회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계급도 없이 평등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추앙하는 아담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수렵과 채집이 지나 생산력이 발전하고 목축시대 단계가 되자 사유재산이 생기고 빈부 격차로 계급이 생겼다. 소수의 부자는 다수의 빈자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법과 군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가가 등장한 이래로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지배층의 소수는 다수의 백성을 착취했기에 사회발전이란 것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회발전이란 생각은 상당히 근대적입니다. 이 생각이 시작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본주의 덕분입니다. 근대 중소상공업자(부르조아)들의 시민혁명 이후 사회가 발전하리라는 생각을 지니게 됐습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가장 명료하게 보이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사회발전단계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수렵사회-목축사회-농업사회-상공업사회'로 인류사회가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노력하면 더욱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발전은 아주 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본주의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전제군주가 민주주의로 대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사회발전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오버오바('지론'에 대한 이근식 교수의 표현) "사회발전을 믿은 나머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부자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 피고용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낙원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기독교적 낙관론이 작용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평생을 유복하게 살았던 아담 스미스 본인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도표:사회발전의 인간관계>

마르크스의 오버오바 "원시공산사회-거대노예사회-중세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사회." 마지막 사회주의사회는 마르크스가 확신하는 이상세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둘 다 틀렸습니다. 경제발전론에 관한 최고인 아서 루이스가 발표한 기술적 경제모델 이론은 단순합니다. "튼튼한 엄마가 튼튼한 아기를 낳는다.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섞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섞는 비율이 문제가 되겠지요. 자본주의 비율을 많이 하고, 사회주의 정부 부분을 적절히 혼합해야 합니다. 그 비율은 공무원 수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투명성을 높여준다면 저절로 알아서 열심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가난의 추방입니다. 밀(Mill)은 생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유'라 했습니다. 자유란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자유의 확대는 평등 확대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억압의 추방이 자유입니다. 사람간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풍요만 가지고서는 인간사회가 조화롭지 못합니다.

'상생' 해야만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사회발전은 풍요. 자유와 평등. 상생의 확대입니다. 총체적 사회발전을 의미하는 '사회발전의 인과관계'도표처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물적 시설 두 요소의 발전이 중요함은 자명합니다. 또한 경제사회제도와 의식문화라는 두 요소의 발전도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도표에 표시된 것처럼 사회요인들은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속적 권력에서 독립된 계급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승려가 그 역할을 했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 역할은 요구됩니다. 현대판 승려는 세 가지 부류입니다. 언론인. 판사. 학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독일 재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빌헬름 레프케의 〈휴머니즘의 경제학〉 원문을 봅시다. 이성적 사회발전에서 의존하는 이성은 사실판단력 뿐 아니라 가치판단력(윤리의식)을 합한 것입니다. 이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십시오. 개혁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허용하는 관용의 풍토가 조성돼야함은 물론입니다. 이 모두의 조화를 위한 의식개혁을 위해 사회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합시다. 사회 공감대를 얻어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시대정신이 형성될 때 이성적 사회개혁은 이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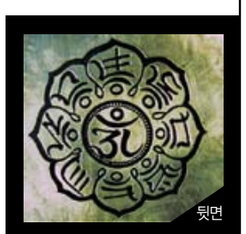
글 · 사진=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hanmail.net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는 국내 최고 인문학자 10명이 각기 하나의 주제로 5주간 강의를 펼친다. 일반인들이 쉽게 인문학 정수를 맛볼 기회가 될 이번 강좌는 작년 10월 13일 첫 강좌가 시작된 이래 올해 10월 4일까지 총 10개 강좌가 진행된다. 한편 매주 일요일 오후1시30분 EBS에서 방송된다. 02)739-1223

태극팔괘

재수 좋은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뒷면

풍수인테리어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 기의 순환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윤택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태극팔괘는 음(陰)과 양(陽)의 조화속에 우주의 여덟가지 신비스런 힘으로 보이지 않는 화살로 알려진 독화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해 줄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분들의 행복한 삶을 바라시는 분,
개업 축하 선물, 집들이 선물로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태극팔괘를 현관에서 마주보는 문이나 벽면,
거실에 걸어주시고, 책상위에도 놓아 주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삶이 다가올 것입니다.

태극팔괘 신주(S) 80,000원
태극팔괘 신주 70,000원
태극팔괘 실버 80,000원
태극팔괘 주석 70,000원
▶ 사이즈 : 25cm x 25cm
※ 책상위 비치용 삼각대는 별도구매


신주 주석 실버

대현 www.daehyun-i.com (인터넷주문도 가능합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2-55 토마스빌딩 405호 (농협 : 143-02-236570 김영찬)
• 구입문의 02)389-6220 / 011-384-3566 / 016-264-1084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정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여유있게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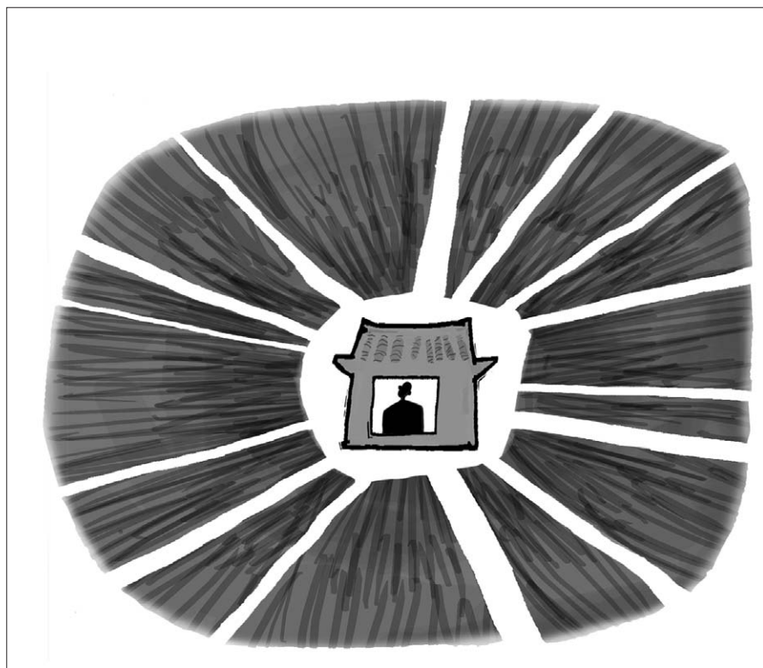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첫째, 강당이 아직 안 돼서 모두 길에 서있는 것이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앉을 자리나마 풍족해서 걱정 없이 만들어드려야 할 텐데 제 덕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봄을 맞이한 듯 날씨는 벌써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사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어깨를 쭉 펴고 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똑같이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온 분들도 있으니 그렇기도 하고 또 오래 됐어도 새로 오는 분들보다 외려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근기 · 중근기 · 하근기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오늘은 상근기에서 좀 얘기하고 또 중근기 하근기로 내려가도록 하죠. 간단간단히 우리 비유를 해봅시다.

상근기에서 본다면 만약에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게 있다면 그것은 윤회법이요 인과법이요 과보를 받는 법이요 또 윤회하는 법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생사는 면치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그건 윤회법이요 인과법이요 과보를 받는 법이요 윤회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치 못한다.' 잘 생각하셔서 넘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를 이루려면, 즉 '자유인이 되려면' 하는 소립니다. 주인공의 성품을 발견해야지 만약에 성품을 발견치 못한다면 그것은 외도를 범하는 격이 되죠. '유의 법'만의 떡 하나를 집어먹고 그게 걸려서 모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와 같죠. 그러나 그 정신세계 무(無)의 떡과 유(有)의 떡을 한데 합쳐서 집어삼키면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기가 이를 데 없이 만사가 오케이죠. 그것 차이가 그렇게 무섭답니다. 유의 법 50%의 떡 하나를 그냥 먹고 지내는 거와, 무의 법 50%의 떡과 유의 법 50%의 떡 둘을 한데 합쳐서 하나로 삼킨다면, 닥치는 대로 삼킨다면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모릅니다.

부처란 업보도 없고 인과도 없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 기능 한 견해 한 소견에 집착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자아부처의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건 상근기의 얘깁니다. 절대 스스로 허용치 않습니다. 부처란 이 지킨다는 게 없기 때문에 범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 성품은 항상 공해서 더럽다 또는 깨끗한 법이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닦는다 증득한다 이런 것도 없으며 원인과 결과도 없습니다. 부처는, 자아부처는 계를 지키지 않으며 그 반면에 범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선을 닦지도 않으며 악을 짓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정진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작위(作爲) 없는 자유인이라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한다면 스스로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될까 이것이 죄가 안 될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에, 이 말에, 이 뜻에 모든 걸 한번 기울여 보신다면 한 찰나에 넘어갈 수도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쁘고 좋은 건 다 아시죠? 이거 하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도 강도질 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 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번연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하고부터, 탄생을 했다 하면 주인공입니다. 생명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종합해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부처인 줄로 아는 것도, 또는 부처가 아닌 줄 아는 것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과거로부터 벌여놓고 어저께 벌여놓은 게 오늘에 닥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것 당신이 해결해라.' 이거지, 누가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해주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거둬야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기가 잘못 저질렀으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이요, 자기가 잘했으면 자기가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을 이끌고 성품을 발견해서 제대로 걸음을 걷게 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한테 되놔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본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른이 됐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이 다 일들을 하고 모두 행하고 생활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딴 놈이 해주는 거 없죠, 각자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현실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주인공한테 되놓으라는 거고 되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입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거는 한계가 없고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기가 저지른 거 현실에도 자기가 저지르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모든 걸 당신이 하는 거니까 몰락 당신한테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거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생활 전체가 바로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다 되놔서 입력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자리에다가 되놔서 되입력이 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현실에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자꾸 놓고 관하는데도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이건 아주 하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건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서 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의 뿌리요, 주인공이지 다른 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통해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서 하는 거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거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주인공이 모두 하는 거, 바로 주인공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주인공에다 되놔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주인공의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각자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을 주인공한테다 되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 이런 게 없죠.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심성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주인공에다가 관하고 그랬는데 주인공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되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데, 만약에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갔으면 타고 올 수도 있어야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야 이 끊임없이 이어서 진리의 길이 되는 거지, 끊어진다면 어떻게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이 다 잘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선장을 만들어놓고, 아까 얘기처럼 잘못하게 되면 잘못하지 않게 가차 없이 쳐서 거기다가 되놓고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너무도 잘못하고 잘하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게 하고 또 잘 안되는 거는 '아, 나를 가르치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돌려서 '너만이 잘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돌려서 놓는다면 '이거는 안되는 것도 알고 되는 것도 아는구나!' 해서 안되는 거와 되는 거 그 가운데서 진짜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리고 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지, 내리고 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되고 못되는 그 가운데에 그 자유인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그 주인공 가운데서 바로 내 성품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공했으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되놔라 이겁니다. 무슨 못 믿고 믿고가 없어요.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하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타고 났으면 주인공이자, 바로 주인공이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상대를 겪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을 주인공 자기한테다 다시 '네가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마음의 계발을 시키면서 발전을 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른다면 그 가운데서 성품의 작용이 드러나게 되고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모든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발전시키려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를 주인공에다가 모두 되놔라, 잘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잘못하는 건 잘하게 굴려서 놔라 하는 그것이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수억겁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는 물에서 살다가 겨우 물 바깥으로 나와서 무척 오래 시련을 겪고 인간으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열을 받아서 모든 게 골고루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닷물이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생기고 위와 밑이 뒤집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에 관한 건에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점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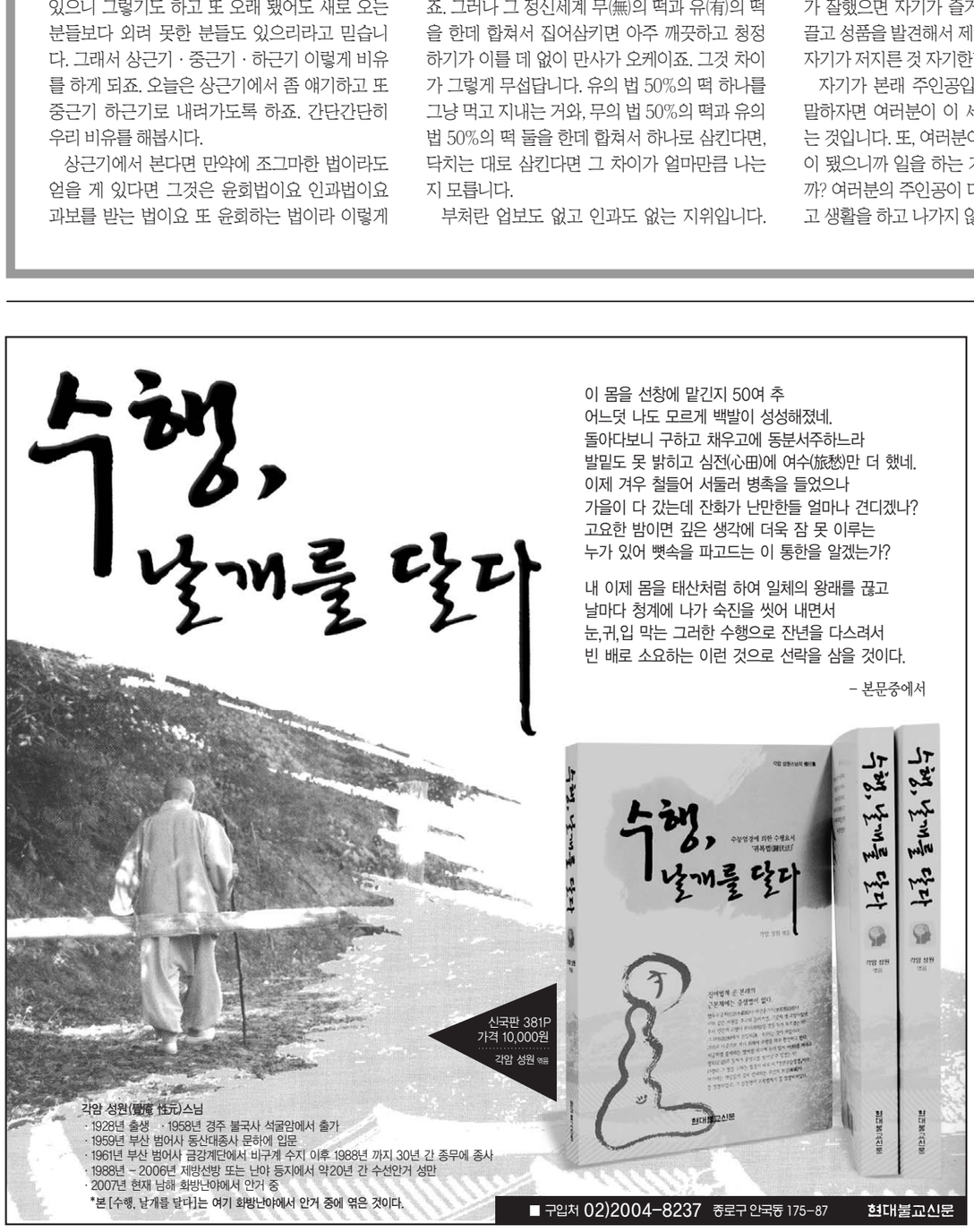
☞20면으로 계속

수행, 날개를 달다

이 몸을 선창에 맡긴지 50여 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네.
돌아다보니 구하고 채우고에 동분서주하느라
발밑도 못 밝히고 심전(心田)에 여수(旅愁)만 더 했네.
이제 겨우 철들어 서둘러 병촉을 들었으나
가을이 다 갔는데 잔화가 난만한들 얼마나 견디겠나?
고요한 밤이면 깊은 생각에 더욱 잠 못 이루는
누가 있어 뼛속을 파고드는 이 통한을 알겠는가?

내 이제 몸을 태산처럼 하여 일체의 왕래를 끊고
날마다 청계에 나가 숙진을 씻어 내면서
눈,귀,입 막는 그러한 수행으로 잔년을 다스려서
빈 배로 소요하는 이런 것으로 선락을 삼을 것이다.

– 본문중에서



각암 성원(覺庵 性元)스님
· 1928년 출생 · 1958년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서 출가
· 1959년 부산 범어사 동산대종사 문하에 입문
· 1961년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이후 1988년 까지 30년 간 종무에 종사
· 1988년 ~ 2006년 제방선방 또는 난야 등지에서 약20년 간 수선안거 성만
· 2007년 현재 남해 화방난야에서 안거 중
*본 [수행, 날개를 달다]는 여기 화방난야에서 안거 중에 엮은 것이다.

■ 구입처 02)2004-8237 종로구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

화제의 신간

天機秘傳
2008년 戊子年 (무자년)
핵심 택일지

365일 매일 한장씩 한눈에 훤히 볼 수있는
상담자가 왜왔는지 한눈에 꿰뚫어 볼수있는
특수래정비법 공개 ···.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핵심 인연래정비법에 대하여
당일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꿰뚫기
그 사람의 현재 마음과 運을 짚어보는 법

- 매일운세 吉凶판단법
- 당일 일상행사 길흉표
- 자신의 재수대통 방향자리
- 결혼 약혼 택일법
- 장례행사 이장의 길흉표
- 日辰法 보는 조견표
- 建除十二神 정국도와해설
- 임신한 아기 男女건강법
- 상담자 吉凶 來占法
- 당일 불공, 고사, 기복법
- 이사방위 길흉표
- 건축,상량,개업일 판단법
- 月日辰 해당 身殺조견표
- 二十八宿 정국도와 해설
- 황흑도 길흉표와 해설
- 생기복덕 길흉표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국8절판 / 백초스님 편저 / 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 을 치르고 주택 을 사고
주식 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명리 한방처방학
4×6배판/徐昇煥지음/양장본 Ⅰ 권880쪽, Ⅱ 권680쪽/각 권 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자기 따로 주인공 따로가 아니라 자기가 즉 주인공!

☞19면에서 계속

으로 그러한 시련과 고난 이런 모든 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진화돼서 사람으로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생사에도 교훈이 있지마는 한 찰나에 살아나가는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모두 대치를 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가 땅 위로 올라와서 짐승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들로서 시련을 또 당해야 되고 그 시련을 다 넘어감으로써 진화돼서 인간으로 형성되는 거죠. 사람도 천차만별 가지각색입니다. 짐승에서 갓 나온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세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느끼고 알고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물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생명들을 내 생명과 같이 아껴라. 살생하지 말라.' 모두 이런 말들을 하셨죠. 그것이 왜냐하면 이리로 태어나면 이 부모가 내 부모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요, 이렇게 되니까 모두 한 번씩 안 겪어본 분들이 없어요. 부모가 안 돼본 분들이 없고 자식이 안 돼본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만 보고서 어찌 남을 업신여기겠느냐는 얘깁니다. 참, 내가 그거는 말로도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버선목이니 뒤집어보일 수도 없고…. 나만 답답한 게 아니겠죠. 상대방들도 답답하겠죠. 그러나 더불어 나도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보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답답하게 "아, 주인공에다가 관했는데도 안됩니다. 잘되다가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아이, 참내!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났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도 그대로 있는 물건이 없고요. 말도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그걸로만이 고정되게 말을 하는 것도 없고요. 보는 것도 그렇고 모두 일체 만법이 다 고정됨이 없죠. 그런데 어찌 되는 것만 되고 안되는 거는 없으리까. 왜냐하면 안되는 것도 있어야 그 시련 속에서, 되는 거 안되는 거 그 가운데서 깨닫죠?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나는 데에 지금 행을 하는 겁니다. 그 행이 없다면 바로 자기 성품을 발견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이라야만이 자기 성품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되놓아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고 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찌 딴 사람한테 미루어서 또 딴 부처님을 찾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저지르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지금 하고 가고 있으니까 모두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자식 분들에게 자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저지른 거는 네가 거두어라." 하고 아마 훈계하실는지도 모르죠. 대신 해줄 수가 없는 도리가 많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지르고 여러분이 행하고 과거로부터 행하고 왔던 거 지금도 행하고 가는 거, 여러분이 하고 있지 누가 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을
> 그 자리에 모두 되놔라
> 잘 하는 건 감사하게 놓고
> 잘못하는 건 잘하게
> 굴려서 놔라 하는 것이
>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다가 발부릴 채여서 피가 나도 여러분이 각자 "아이고!" 하고, 자기가 그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보현신이 돼서 자기를 어루만진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 대신 와서 아파줄 리가 없죠. 딴 사람이 만져주기는 할지언정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 자체에서 아프고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행한 거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되놓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거둬라. 너만이 거둘 수 있어!' 이렇게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숙달이 되고 거기에서 미묘한 법을 발견해낸다면 감응이 되겠죠. 이것이 차차차차 감응이 돼서 커진다면 이게 바로 성품을 발견해내는 도립니다.

무조건 "나는 주인공에 관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 하! 진짜로만 했으면 왜 안되겠습니까, 또. 만날 자기 이외의 주인공으로 아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라는 걸 어찌 모릅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두는 걸 어찌 모릅니까? 세계적으로 종교를 모두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타신에게 기도하고 상대를 보고 믿고 찾게끔 전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속에서도 헤매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 회오리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도 죽고 사는 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 자식을 낳고 알을 낳고도 다 그냥 몸소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버리고 이러는 시련을 겪으면서 진화가 돼서 땅 위로 올라왔어도, 땅 위에서도 지금 물주머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형상을 믿거나 딴 데 이름을 믿거나 허공을 믿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득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부터 먼저 알아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 방식이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은 한 구멍이니까 그 한 구멍에다 놓고 가게 한다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주인공 탓을 하지 말고 가만히들 생각해보세요. 즉 자기 탓이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의 이름! 왜냐하면 고정됨이 없이 끝없이 돌아가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고정됨이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되놔라. '네가 저지른 거라면 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머리가 잘못 돌아가서 잘못된 거라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 모든 거를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니까. '주인공!' 하면 전체 거기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가 되는 거죠. 몸속의 생명의 의식들도 모습들도 다 자기가 되는 거죠. 주인공 하나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품의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감응도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타신을 찾아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 보인다 들린다 이런다면 그건 미치는 발광쟁이가 되죠. 내면의 자기 주장자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정의정당하게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관했는데도 왜 안됩니까? 나는 관하는데도 안됩디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주인공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짓을 하니까 그게 안되죠. 진짜로 자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살던 자기가 현실에 사는 자기와 둘이 아닌 주인공이 바로 자기를 이끌어나가는 겁니다. 이끌어나가게 만드는 거죠.

고인 물을 그냥 둔다면 썩어버리지마는 자꾸 새 물이 들어오고 고인 물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물은 아주 청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목석이 되는 것이고 또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내면서 자꾸 굴리면 바로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생각이 자꾸 넓어져서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알고 모르고 간에 발견이 돼서 해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또는 감응이 돼서 희미하더라도 '아, 이거로구나!' 하고 알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공부를 해도 그 도리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구멍에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 하는 거라는 것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즉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주인공이 전체 하는 일을 주인공에다가 되놔라 이겁니다. 그래야 앞서 입력됐던 것,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다 소멸되면서 새로이 넣는 그 입력이 새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수차에 걸쳐서 해드렸는데도 그게 납득이 잘 안되고 그러죠?

하여튼 아주 오늘,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것,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며 그 주인공이 일체를 다 과거도 현재도 지금 하고 가는 것이라는 걸 잘 아십시오. 그런데 일체를 다, 그 주인공놈이 한 거니까 '주인공놈 너 알아서 잘 이끌어가야 하지 않아!' 하고 거기다 되놔라, 되놓는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부처를 찾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만 한다면 스스로 성품이 살금 살금 살금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일러드렸는데도 허겁지겁하고 부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허겁지겁 그냥 날뛰고, 허겁지겁 아무 이름이나 부르고 무꾸리나 하러 다니고, 급하면 그냥 아무한테고 다니면서 묻고, 아무 절에나 이리저리 그냥 다니면서 기복으로 물들고, 이렇게 하신다면, 십 년

> 어찌 되는 것만 되고
> 안되는 거는 없으리까
> 안되는 것도 있어야
> 그 시련 속에서
> 되는 거 안되는 거
> 그 가운데서 깨닫죠

이십 년이 가도 절대로 자기 성품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성품을 발견치 못한다면 외도로 전락되죠. 깨친 자유인들은 절대 무슨 '선을 닦는다' 이런 것도 없고, '정진한다' 이런 것도 없고, 또 그 대신에 악법도 짓는 것도 없고 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리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수억겁을 겪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수억겁을 모두 내려가 보십시오, 어떠한가! 어떠한 시련과 치욕을 겪고 올라오는가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겪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지각색의 사생들이 다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다 얻어서 전부 꺼내줘도 즐지 않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서 어떠한 짐승이 원하고 벌레가 원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벌레 속에 응신으로 드셔서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가 터져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진화가 되게 만드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어떤 거 될 때 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레가 원했을 때 응신으로서 응할 때에 '내가 요런 때 부처다' 이럴 수도 없고, 관세음보살이 됐을 때 '내가 요런 때 부처다' 이럴 수도 없고, 또 병자가 원했을 때에 약사로 응신이 돼서 응해주실 때에 '내 요런 때 부처다' 요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래다,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부처가 아닌 것이요, 부처가 아닌 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작위 없는 바로 자유인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떠한 집착을 한다면 그냥 가차 없이 허용치 않는다는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뭐 이런 거는 잘못했으니깐 내가 이거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좀 해보세요, 어떤가. 뜨거운 물이다, 찬 물이다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깐요. 먹어봐야 알죠?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의 떡과 유의 떡을 한데 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거와, 유의 떡도 착이 끼어가지고 요것은 요렇게 먹고 조건 조렇게 먹고 하며 그것도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죠.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할까요?

이거를 잘 듣고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그대로 듣고 보는 그 자체가 그대로 여여함이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은 그냥들 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들 사는 거와 함이 없이 살림을 하는 거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기저기다가 착을 두지 말고 무조건 못났든 잘났든 자길 믿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한테 그냥 다 맡기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 없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쌍 화 차

피로회복 감기예방에 좋은 쌍화차를 엄선된 약초로 정성들여 끓여 여러 불자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일물산에서는 일산 수연제, 인사동 모란, 여의나루 하나찻집 등 전통찻집과 각지에 계신 일반 고객들께도 좋은 반응을 얻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저 알리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팩 ➡ 35,000원 60팩 ➡ 60,000원 [배송료 포함]

❖ 氣를 바로 알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전 부터 인체 · 나무 · 동물에 어떤 에너지를 접촉했을때 그 변화하는 기운을 시각 촉각 등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되는 능력을 얻어 그동안 저에게 인연이 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질개선이 아닌 현재 상태의 기운을 통해 어떤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내므로 즉시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내 몸에는 어떤 식품이 맞을까?

내가 먹고 싶은 식품(곡식, 야채, 과일, 고기류, 생선류, 약, 약초, 건강식품)이 내몸에 맞는지 즉석에서 판별해 드립니다. O-Ring테스트나 L로드, 팬드릭 같은 인위적인 매개체 없이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즉시 읽어내므로 틀림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통증과 피로감 불편함에서 벗어날까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맞는 식품, 약초, 건강식품 등을 맞춰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몸에 맞는 기능성 맞춤 한방차를 이용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 예

- 어린이 : 분유, 이유식 제품선택
- 아토피 허약체질 : 기피음식 분류
- 청소년 :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 분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한방차 선별
- 직장인 : 스트레스,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필요한 식품 한방차 선택
-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 : 어느 경락의 부조화인지 상담

건강식품, 약초 약재, 신약등을 연구하시는 분께는 인체 적용 반응을 이용하시면 높은 효능과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공동연구도 가능합니다.

세일물산 02)965-4413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체의학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직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새해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대한불교선밀종
임원,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양종 이거나 밀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에 해동대선사인 원효성사를 종조로 밀로 점수하고 선으로 돈수를 지향하는 선밀종을 창종 하고자 발원하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임원, 대덕스님, 종도 분들과 인연 닫기를 바랍니다.

비영리종교단체(칠곡군 : 37451-00292)
비영리종교단체고유번호(513-82-65714)

입종구비서류
- 본종 입종(포교소 등록)신청서
- 서약서, 승려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연 락 처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 1동 188-7번지(관정사)
☎ 054)976-0405 / FAX 054)976-4405
▷입종상담 : 010-3134-8484
054)976-0405(원묵)

大韓佛教禪密宗
TEL 054)976-0405 FAX 054)976-4405
www.sunmiljong.or.kr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9>
(修習止觀坐禪法要)

제2장 가욕(訶欲) ①

오욕서 벗어나야 생사 해탈

所言訶欲者 謂五欲也 凡欲坐禪 修習止觀 必須訶責 五欲者 是世間色 聲·香·味·觸 常能誑惑 一切凡夫 令生愛著 若能沈知過罪 卽不親近 是名訶欲

다섯 욕구[五欲]를 꾸짖는다는 말은, 즉 색·성·향·미·촉을 꾸짖고 버리게 한다는 의미이다. 욕구[欲]는 바라고 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욕은 중생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다섯 가지 조건이 된다. 좌선을 통해서 지관을 수행하려는 자는 오욕을 반드시 떨쳐버려야만 한다.

오욕은 눈에 보이는 좋은 색, 귀로 듣는 좋은 음성, 코로 맡는 좋은 향, 혀로 맛보는 좋은 맛 그리고 몸으로 탐애하는 좋은 감촉 등을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은 탐욕심으로 집착하게 하여 일체범부를 현혹시킨다.

만일 이에 대한 허물을 깊이 안다면 가까이하지 말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오욕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다.

오욕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과오의 허물이 없게 되고, 꾸짖으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멀어지게 된다.

一訶色欲者 所謂男女形貌端嚴 修目長眉 朱脣素齒 及世間寶物 靑黃赤白 紅紫縹綠 種種妙色 能令愚人見則生愛 作諸惡業 如頻婆娑羅王以色欲故 身入敵國 在淫女阿梵波羅房中 優塡王以色染故 截五百仙人手足 如此等種種過罪

1. 첫째는 색욕부터 배척하고 꾸짖어야만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꾸짖는다[訶]는 한 글자는 수행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 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로 깨달아 들어가는 궤범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갖가지 방편으로 꾸짖고 버려야만 한다.

이른바 남녀의 형색이 단정하여 긴 눈썹, 붉은 입술, 하얀 치아, 초롱초롱한 눈빛 등 갖가지 사랑스럽고 기뻐할만한 모습을 여색[色]이라고 한다. 이를 어리석은 사람이 보면 탐애심을 내게 되는데, 탐애하는 남녀의 형색은 유정의 정보(正報)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운 남녀를 마주한다 해도 그 마음이 담박하여 집착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세간의 갖가지 존귀한 보물을 탐애한다. 존귀한 보물이란 금·은·유리·산호·호박 등 칠보와 갖가지 아름답고 미묘한 색상을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보면 원래 허망하다는 것을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탐애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에 애착심을 일으켜 미혹을 일으키기 때문에 갖가지 악업을 지어 누겁의 재앙을 부른다.

예를 들면 옛날 빈파왕의 일로써 증명할 수 있다. 빈파왕은 색욕을 탐애한 나머지 국가의 지중한 국사를 돌보지 않고 몸소 적국으로 들어가 음란한 여인인 아범바라의 방에 홀로 거처하기를 원하였다. 또 우전국왕은 색욕을 탐애했기 때문에 오백선인(五百仙人)의 수족을 절단하여 무거운 죄업을 지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고금의 많은 영웅호걸들이 누구 때문에 바다처럼 광대하게 오욕을 탐애하는 노예가 되어 색정의 마군이가 되었던가 하는 점이다.

그대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은 그대의 아름다운 미모를 그리워한다. 이처럼 광겁동안 탐욕에 얽혀 끝날 기약이 없는 것이 범부들의 현실이다. 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색욕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실로 맹수의 해악보다도 심하다. 따라서 반드시 맹렬하게 살피고, 색욕을 배척해야만 올바른 지관을 수행할 수가 있다.

二訶聲欲者 所謂箜篌箏笛 絲竹金石音樂之聲 及男女歌詠讚誦等聲 能令凡夫聞卽染著 起諸惡業 如五百仙人雪山住 聞甄陀羅女歌聲 卽失禪定 心醉狂亂 如是等種種因緣 知聲過罪

2. 두 번째로 소리에 대한 욕구[聲欲]를 끊어야 하는데, 이는 유정이 내는 소리와 무정물이 내는 소리가 서로 다르다.

무정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모든 악기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운율의 소리와 같고, 유정의 소리는 남녀가 부르는 노래 소리와 교태롭고 요망한 소리와 오염하고 음란한 소리를 말한다. 이 모든 소리는 범부가 들으면 바로 집착하여 악업을 일으킨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옛날에 오백선인이 설산에서 수도를 하였는데, 그들은 견타라 여인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 즉시 선정상태를 잃고 술에 취한 듯 시끄러운 번뇌가 쉬지 않았다 한다. 또 제바연나 선인은 사지부인의 유연한 음성을 듣고 탐애심을 일으켜 그 동안 이룬 신통력을 잃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욕구로 인해 타락한 자들은 이루 다 낱낱이 열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행인이라면 절대로 소리에 미혹하지 말고 성욕을 꾸짖고 떨쳐버려야만 한다.

'꾸짖다' 의미의 '가(訶)'도 깨달아가는 궤범
색성향미촉에 대한 욕구 방편으로 떨쳐내야

三訶欲者 所謂男女身香 世間飮食聲香及一切薰香等 愚人不了香相 聞卽愛著 開結使門 如一此丘在蓮華池邊 聞華香氣心生愛樂 池神卽大訶責 何故偸我香氣以著香故 令諸結使臥者皆起 如是等種種因緣 知香過罪

3. 세 번째는 냄새에 대한 세 종류의 욕구[香欲]를 꾸짖고 있다.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냄새에 미혹한 경우가 많다.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정신이 혼미하여 비근을 통해서 죄업을 짓게 된다. 남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나 자연적으로 몸에서 나는 향기는 숙세의 인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옛날에 어떤 비구니는 전생에 경전독송을 많이 하였는데, 그 공덕으로 그의 입에서 항상 난초의 향기가 났다 한다. 또 어떤 늙은 비구는 법화경 독송을 한 것으로 인해 온 몸에 전단향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이는 과거전생에 쌓은 선근공덕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어리석은 범부는 세간 음식에서 나는 향기와 일체 초목에서 나는 향기, 내지는 인간이 만든 향기 등 갖가지 향기를 맡으면 즉시 탐애심을 일으키고 그 번뇌 때문에 깊은 생사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옛날에 어떤 한 비구는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가에서 그 향기를 맡고 마음에 탐애심을 일으켰더니, 그 연못의 신이 즉시 출현하여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의 향기를 훔치느냐"고 꾸짖었다. 비구는 응답하기를 "재가인들이 연꽃을 꺾고 밟아도 그대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이 없더니 나는 겨우 그 냄새만 맡았는데도 무엇 때문에 꾸짖는가"라고 하자, 연못의 신은 말하였다.

"그들은 온 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꾸짖는 말이 필요 없지만 그대는 출가비구라 이치가 분명한 사람이다. 그대를 비유하면 하얀 옥에 흠집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어떻게 연꽃향기에 집착해서 생사의 세계로 타락하려 하느냐."

이처럼 권하자 비구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조복받고 냄새를 맡아도 집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 때문에 향기의 집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허물을 빨리 버려야만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악견(惡見) ③

3) 사견(邪見)

'사견'은 인(因)·과(果)·작용(作用)·실사(實事)를 비방하는 네 가지 잘못된 견해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집(邪執)까지를 총체적으로 포괄해서 말합니다. 따라서 사견의 명칭과 의미는 악견 가운데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인'을 비방하는 것은 선행과 악행 모두를 비방하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원인도 없다고 그릇되게 집착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과'를 비방하는 것은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따른 과보를 모두 부정하면서 그 원인에 의한 실제적 과보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잘못 헤아리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작용'을 비방하는 것은 금생으로부터 내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같은 종자세력의 작용이란 필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유정들은 '아뢰야식'이라는 근본식(根本識)이 있어서, 그 가운데 제법을 생기할 종자작용설을 믿지 않습니다.

주관적 분별로 잘못 전도된 견해
악견가운데 가장 광범위 적용

네 번째 '실사'를 비방하는 것은 세간에서 생사를 초탈하고 열반을 증득한 아라한(阿羅漢)은 확실히 있는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잘못된 견해를 말합니다.

'대론(大論)'에서는 모든 삿된 집착을 두 종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익견(增益見)'인데, 가령 실재하는 '아'가 정말로 있다고 집착하는 외도(外道)가 '아'에 대해서 그것은 끝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고 헤아리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모두 허망한 견해여서 실제로는 그러한 주재자로서의 '아'는 없는데도 그것은 끝이 있다 없다 하므로 이는 본래 없는 것을 증가해서 군더더기로 더하는 '증익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증익견'의 반대인 '손감견(損減見)'인데, 이는 인(因)도 과(果)도 없다고 헤아리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요컨대 사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견(正見)에서 빗나간 주관적인 삿된 분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세간의 일체 사설이단(邪說異端)으로서 정도를 미혹하여 혹세무민하는 사상들도 모두 다 사견에 포함됩니다.

■정리=張如舟

초 대 합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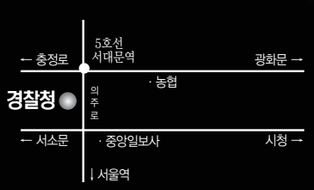
귀의삼보 하옵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납 월정이 그동안 준비해 온 산수화 그림을, 전시회를 통해
알리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로서 정진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원력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왕림하시어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동종 월정사 월정 합장

전시회기간 : 2008년 2월 1일(금) - 20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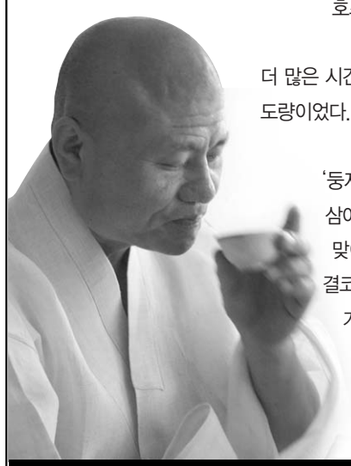
장소 : 경찰청(본청) 전시실
서대문구 미근동 209호
02)363-0112

문의 : 월정사 월정
010-3475-7388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둥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둥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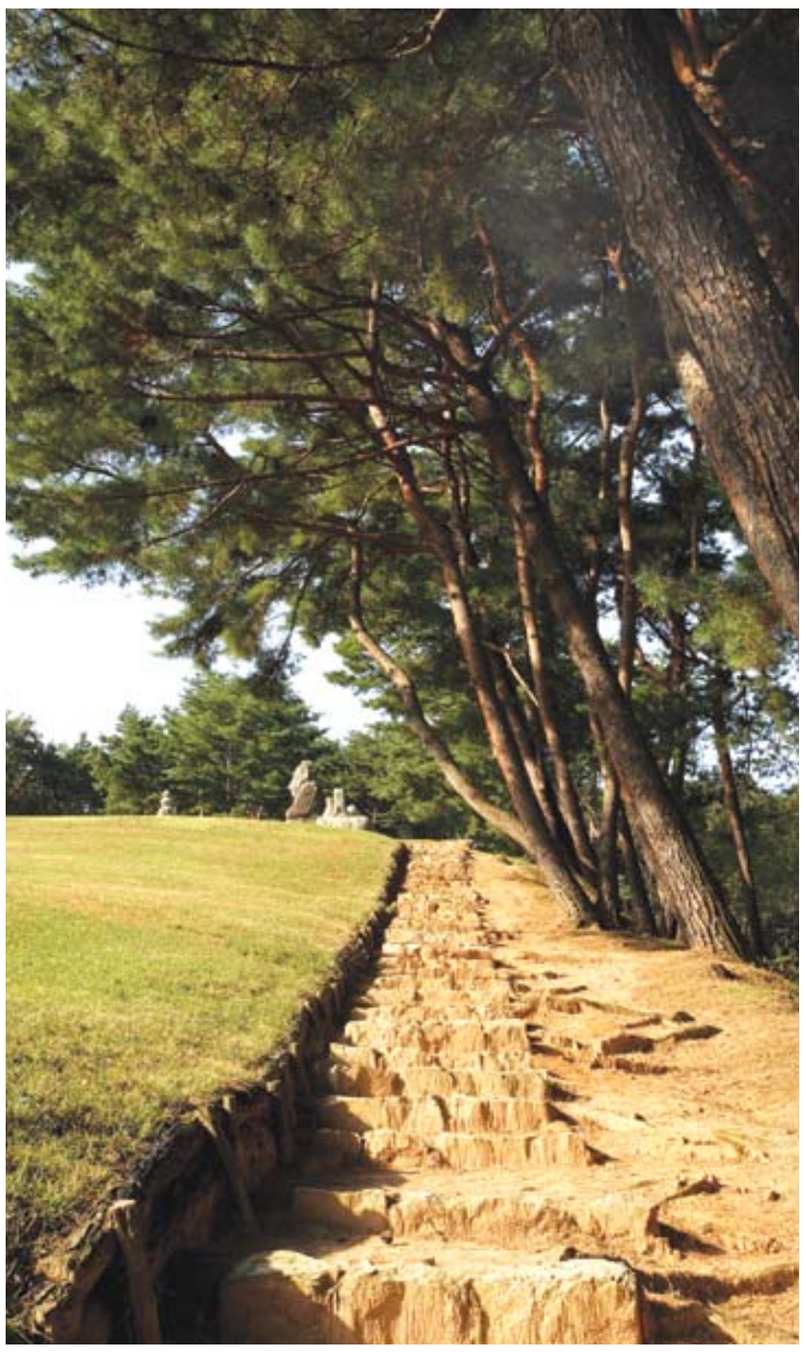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북스 [現代] (051) 244-1251 (02) 2198-5151

유생 반발 속 불교 중흥에 앞장선 철의 여인



태릉 봉분으로 가는 계단. 역사의 길이 만큼이나 계단의 수도 많다.

태릉(泰陵)은

11대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1501~1565) 윤씨의 능이다. 왕후는 생전에 서삼릉에 있던 중종의 정릉을 봉은사 곁으로 천장하고 자신도 그 곁에 묻히고자 했으나 지대가 낮아 장마철에 물이 들어차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묻혔다. 13대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능인 강릉(康陵)과 함께 태강릉으로 불린다. 사적201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 313-19, 면적 163만2281㎡(49만3765평)



중종 2계비 문정왕후 - 태릉

문정왕후의 별명은 많다. 조선의 측천무후, 조선의 악녀, 질투의 화신, 철의 여인 등으로 부르길 좋아한다. 보우는? 요승 보우라는 칭호가 귀에 익다. 그렇게 듣고 배웠다. 수백 년 동안 전승된 것이라 불변의 진리로 여기며 술한 사람들이 비난에 앞장서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태릉에 들어서며 회한에 젖는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비이나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명종조다. 길거리에 놓인 돌부리 차듯 불교를 폄훼하고 승려를 구박해도 예사로운 것이 조선시대의 풍경이다.

명종이 12세에 즉위하여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불교 사태는 크게 변했다. 문정왕후가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불교의 교세가 일어났다.

문정대비는 불교중흥을 위하여 대임을 맡을 고승을 물색하여 양주 회암사의 허응보우를 맞아들였다. 명종 5년(1550) 12월, 선·교 양종을 다시 일으키고 승과를 부활했다. 봉은사를 선종본산으로, 봉선사를 교종본산으로 삼았다. 6년 6월에 보우를 봉은사 주지로 삼고 수진을 봉선사 주지로 삼았다.

명종 7년, 양종의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를 실시했다. 다시 양종이 부활되고 교단은 활기를 띠고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고려 보조국사와 더불어 조선 불교중흥의 대조사라 할 수 있는 서산대사 휴정도 이즈음 승과 출신이다. 사명당 유정도 그 후 승과에 의해 등용되었다.

문정대비가 보우선사와 함께 불교중흥을 위해 진력했지만 유생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각지에서 보우 타도, 종단 및 승과 폐지의 상소가 빗발쳤다. 요승 보우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못해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우는 데모를 했다.

보우는 뒤에 도대 선사가 되었지만, 불행히도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가 승하했다. 결국 보우는 잇따른 배불 상소와 유림들의 기세에 밀려 승직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귀양 가서 제주목사 변협에게 피살되었다. 이리하여 모처럼 교단 부활의 기세는 꺾이고 말았다. 15년간 활기를 보였던 불교중흥운동은 다시 빛을 잃는다. 그러나 그 운동의 영향은 매우 크다. 역대 왕실과 조정이 정치적으로는 척불을 외쳤으나 궁중의 왕후와 비의 숭불정신을 깊어지게 했다. 이 때 배출된 인물들에 의해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다.

명종 21년, 즉 문정대비가 승하한 이듬해 4월 양종과 승과가 폐지되고 도승법도 금지된다. 불교와 승려의 지위는 추락해 사역과 천대를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불교는 산중으로 깊숙이 숨게 된다.

보우는 15세에 금강산 마하연암으로 출가했다. 그 뒤 금강산 일대의 장안사 · 표훈사 등지에서 수련을 쌓고 학문을 닦았다. 6년 동안의 정진 끝에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력을 얻었고, 대장경을 모두 섭렵하는 한편 <주역>도 공부했다. 재상 정만종이 보우의 인품과 그 도량이 큼을 조정과 문정대비에게 알려 문정대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봉은사 주지에 취임하여 제일 먼저 문정대비로 하여금 <경국대전>의 금유생상사지법을 적용하여, 능침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훔친 유생들 중에서 가장 횡포가 심했던 황언징을 처벌했다.

봉은사와 봉선사에 방을 붙여 잡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써 유생들의 횡포를 막았다. 이러한 일은 조선시대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유생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끝내 조정에까지 비화되었다.

문정대비가 이러한 조처를 한 것은 보우가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 하여 1549년 9월 성균관 생원인 안사준 등은 요승 보우의 목을 베고 황언징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강력한 건의를 조정에 올렸다.

선교 양종 · 승과제도 부활로 교단에 활기
직접 발탁한 보우선사와 佛法보호에 전력

그러나 문정대비는 "이유 없이 승려들을 괴롭히고 법당에 난입하여 도둑질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부터 문정대비 · 보우와 유생들 사이에는 치열한 암투가 전개되었다.

봉은사와 봉선사에 붙여진 방을 계기로 하여 그 뒤 전국의 각 사찰에는 모두 이러한 공고문이 붙여져 보호를 받게 되었다. 1550년 12월 문정대비로 하여금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는 비망기를 내리게 함으로써, 다음해인 1551년 5월 선종과 교종이 부활되었다.



태릉을 지키는 무인석.

그리하여 6월 봉은사가 선종의 본사로, 봉선사가 교종의 본사로 지정되었고 보우는 판선종사도 대선사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1월 도승시를 실시하게 하여 전국 승려들의 도첩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도첩제의 부활에 따라 전국의 26여 승려들이 도첩을 받았다.

또 1552년 4월 승려 과거시험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1504년(연산군 10)에 폐지되었던 승과제도를 부활시켰다. 선교 양종과 승과제도가 부활됨으로써 승려들의 자질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휴정 · 유정 등과 같은 고승들이 발탁되었다.

그러나 유생들은 선교 양종과 도첩제 · 승과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보우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계속 올렸다. 그리하여 승정원 · 홍문관 · 예문관 · 사헌부 등에서 매일 번갈아 상소를 하였고, 좌의정이 백관을 인솔하여 계를 올렸다.

선교 양종을 부활하라는 문정대비의 비망기가 내려진 뒤 6개월 사이에 상소문이 무려 423건이나 되었고, 역적 보우를 죽이라는 것이 75계나 되었다. 그러나 보우는 "지금 내가 없으면 후세에 불법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라는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불법을 보호하고 종단을 소생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각종 제도적 장치의 결과로 종단이 안정된 기반을 가지게 된 1555년 9월 보우는 판사직과 봉은사 주지직을 사양하고, 춘천의 청평사에서 수행 정진했다. 그러나 종단의 일각에서 선종 · 교종의 대선들이 자리다툼을 하게 되자 1560년 다시 선종판사와 봉은사 주지 직책을 맡았다.

운부사에서 왕자의 태봉이 있는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 사원을 증축한 사건에 연루되어 판사직을 박탈당하고 봉은사에서 물러났다. 그 뒤 세심정에 머물면서 수행하였고, 같은 해 12월 다시 선종판사로 임명되어 봉은사에 머물렀다. 회암사 중창사업에 착수하여 1565년 4월에 끝내고, 그 달 5일에는 낙성식 겸 무차대회를 개설했다.

4월 문정대비가 죽고, 대비의 장례를 마친 유생들은 곧바로 보우의 배척과 불교탄압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잇따른 상소에 명종은 보우의 승직을 박탈하고 서울 근교의 사찰 출입을 금지했다. 이러한 미온적인 처사에 만족할 수 없었던 전국의 유생들은 물론 정승들까지 보우를 죽일 것을 건의하자 보우는 한계산 설악사에 은거했다. 율곡 이이가 <논요승보우소>를 올려 그를 귀양 보낼 것을 주장함에 따라 명종은 보우를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

보우는 1565년 6월 12일에서 7월 28일 사이에 붙잡혀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제주목사 변협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다. 보우의 죽음이 서울에 알려진 것은 10월 15일이었다.

보우는 억불정책 속에서 불교를 중흥시킨 순교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일체론을 주창하여 선과 교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던 당시의 불교관을 바로잡았고, 일정설을 정리하여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 (법공양 귀,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만족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외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룸쌀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임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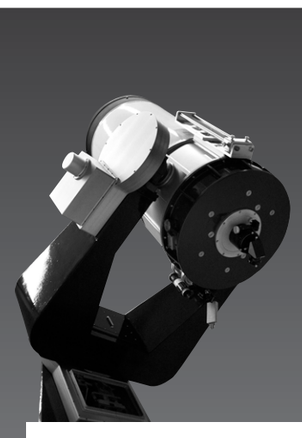


전 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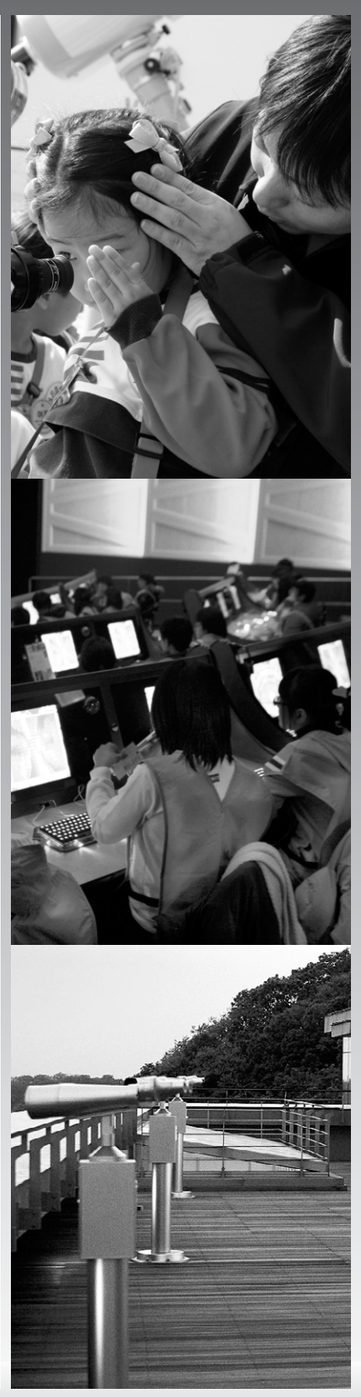
■책속 부록■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손님) 보는 법
▶십계법

서울 · 종로구 이화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겨울 천문대에서 별 하나에 추억을…



'별'은 그냥 하늘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인간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 속 인물들을 별 속에 새겨 넣기도 했다. 문학 속에서도 별의 모습은 아름답다. 알퐁스 도데 소설 <별>의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어여쁨도, 윤동주 시 '별 헤는 밤'의 처연함도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반짝임 때문에 더욱 빛난다.

별과 함께 예술적 낭만에 빠져보고 싶어도 요즘 도시에서 별 보기, 참 힘들다. 날이 맑아야 금성 정도 볼 수 있는 슬픈 시대다. 그래도 '별 볼일 많은 곳'들은 분명 있다. 가족과, 좋은 사람과 함께 천문대를 찾아 커다란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해 보면 어떨까.

4계절 중 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겨울이다. 황사도 없고 습도도 낮아 가시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겨울별자리 중에는 큰개자리 시리우스, 황소자리 알테바란, 플레이아데스성단 등 겉보기 등급이 높은 밝은 별들이 많아 한결 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생각만 해도 근사한 별 관측, 즐겁게 즐기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체감온도 낮으므로 두꺼운 옷 준비
휴관하기 쉬운 월요일 방문 피해야

★천문대 갈 때 꼭 확인하세요.

각 천문대에 입장하거나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다면 예약은 필수 중 하나다. 요즘은 천문대 홈페이지에서 바로 예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 보자.

대부분의 천문대는 교통이 조금 불편한 곳에 있다. 아무래도 별을 관측하려면 불빛이 많은 곳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맑더라도 자가운전자라면 스노우타이어를 챙기자. 천문대로 가는 길에 빙판이 있을 수 있다. 또 천문대가 있는 시골 또는 산 정상의 체감온도는 생각보다 훨씬 낮으므로 따뜻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다.

각 천문대들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문대 행사를 즐기고 싶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천문대 입장료는 현금만 받는 곳이 많으므로 현금을 챙겨가는 센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다. 관심 없이 별만 본다면 금방 질리기 십상이고 의미도 없다. 각 천문대 홈페이지에 '이달의 관측대상' 등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보자.

대전시민천문대 한성규 팀장은 "사전지식이 있고 없고는 별 관측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인터넷과 책을 통해 반드시 별자리나 신화에 대해 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측을 원하는 날의 기상 정보를 챙기고 자신에게 맞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할수록 천문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시민천문대

●**대전시민천문대(http://star.metro.daejeon.kr)**=대덕연구단지 내 시설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관측을 실시한 국내 최초 시민천문대다. 특히 제1관측실에 설치된 굴절망원경은 구경이 25.4cm로 국내 최대 구경이다. 홍염 필터를 이용해 태양 홍염의 모습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무료관람이라는 메리트까지 갖췄다. (042)863-8763

●**광진청소년수련관천문대(www.starseoul.or.kr)**=서울시에 살고 있다면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게다가 '엄마랑 아빠랑 즐기는 가족 별자리 여행' 등 모든 연령대가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주 금·토요일 저녁 7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천문대다. 천체교육실·관측실·투영실 등을 갖추고 있다. (02)2204-3100

●**별마로천문대(www.yao.or.kr)**=영화 '라디오 스타'를 본 사람이라면 더욱 반가울 곳. 해발 800미터에 달하는 영월 봉래산에 위치해 있으며 시민천문대에서 일반인들에게 상시 공개하는 망원경 중 가장 큰 80cm 구경 주망원경이 설치돼 있다. 구경이 큰 만큼 멋진 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밤하늘 관측 조건이 좋고 낮에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광경도 멋있다. (033)373-7460

●**김해천문대(http://astro.gsiseol.or.kr)**=김해시 북쪽 외곽 분성산 정상에 자리한 천문대로 밤하늘과 멋진 도시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영남지역에서 유일한 시민천문대로 60cm 구경 반사 망원경과 20cm 구경 굴절 망원경이 설치돼 있다. 전시실, 관측동 등으로 조성돼 있으며 전시실은 무료로 개방한다.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패키지 투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055)337-3785

사설천문대

●**송암천문대(www.starsvalley.com)=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있는 천문대로 사설 천문대로는 국내 최대시설이다. 개관한지 오래되지 않아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 가든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국내 최초 자체기술력으로 제작된 60cm 구경 망원경이 자랑거리다. 월요일에도 다른 천문대와는 달리 휴관하지 않는다. 서울 기준으로 타 천문대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입장료도 저렴하다. (031)894-6000

●**안성 천문대(www.nicestar.co.kr)**=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천문대다. 자가용 기준으로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도 '초보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돼 눈길을 끈다. 특히 심화과정에서는 성도(星圖)보고 별자리 스스로 찾기, 별자리 사진 특강 등이 인기다. 1박2일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031)677-2245



health 건강칼럼 column

17. 굴절이상과 시력

최근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기본적인 시력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력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시력은 몇 정도 되십니까"하고 물어보면 0.5 또는 0.1 하는 식으로 제대로 대답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은 이런 답변을 듣게 된다. "저는 눈이 많이 나빠요. 제 시력은 마이너스거든요."

하지만 시력에 마이너스란 없다.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스 시력이라는 것은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근시라는 뜻으로 눈의 굴절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플러스는 원시를 의미한다. 대게 마이너스 1 디옵터(Diopter) 이내면 0.8~0.9 이상의 좋은 시력이 나온다.



0.1도 안 보이는 눈은 0.05, 0.02처럼 0.1 보다 작은 숫자로 표시하지 마이너스로 표시하지 않는다. 결국 "저는 근시가 마이너스 2 정도고요, 시력은 0.3 정도예요"가 맞는 표현이다.

굴절오차 따라 근시·원시·난시 분류
취학전 4~5세 아동도 시력검사 필수

우리 눈은 카메라와 같은 광학기계의 원리와 비슷해서 각막과 수정체(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망막(카메라의 필름)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으면 선명한 시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약간의 굴절오차가 있게 마련인데 이를 근시·원시·난시라고 한다.

근시는 눈의 초점이 근거리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가까운 어느 한 지점까지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사물은 안경을 착용해야만 잘 보이게 된다. 대게 젊어서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만 근거리에 초점이 있으므로 근시가 심하지 않다면 나이가 들어도 돋보기를 안 쓰거나 남들보다 늦게 써도 되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원시는 먼 곳이 잘 보이고 가까운 곳이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원시의 경우에는 젊어서는 수정체 조절력이 충분하므로 시력감소를 거의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동반된 경우에는 가까운 곳이 훨씬 더 안보이게 된다. 대게 "저는 젊어서는 눈이 2.0 정도로 좋았는데 지금은 휴대폰 문자도 안보여요"라고 불편해 한다. 이렇게 보면 젊어서 불편한 근시가 나이 들면 오히려 원시보다 장점이 있으니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력교정수술도 나이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젊은 나이의 경우 완전 정시를 목표로 수술을 하게 되고 시력은 대게 1.2~1.5 전후로 잘 보이게끔 한다. 그러나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는 너무 먼 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독서나 컴퓨터와 같은 근거리 작업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일부러 근시를 약간 남기는데 시력이 0.9~1.0 정도가 편하게 보이도록 미세한 근시를 남겨 놓으면 완전교정이 된 눈보다 노안이 오는 시기를 4~5년 정도 늦출 수 있다.

최근에는 30대 후반만 되면 근시·원시·난시를 교정하면서 동시에 노안까지 한꺼번에 교정하는 노안라식을 미리 해서 몇 년 후에 찾아올 노안에 대비하기도 한다.

심하지 않은 원시는 젊어서는 시력이 잘 유지되므로 불편함이 없지만 심한 원시나 두 눈 중 한 쪽만 원시가 있는 원시성 부등시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약시가 생길 수도 있다. 원시가 매우 심해 수정체 조절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눈의 성장기에 초점 맞추기를 아예 포기하게 되므로 시력 성장이 잘 안되어 약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취학 전 나이에 굴절이상을 조기 발견해서 약시의 가능성이 있다면 취학 전이라도 안경으로 교정해주어야 한다. 근시나 난시 역시 매우 심한 경우에는 약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4~5세가 되면 시력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근에 안과학계와 소아실명예방재단의 부단한 노력으로 취학 전 어린이 눈 검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약시 유병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 **김준헌(소중한안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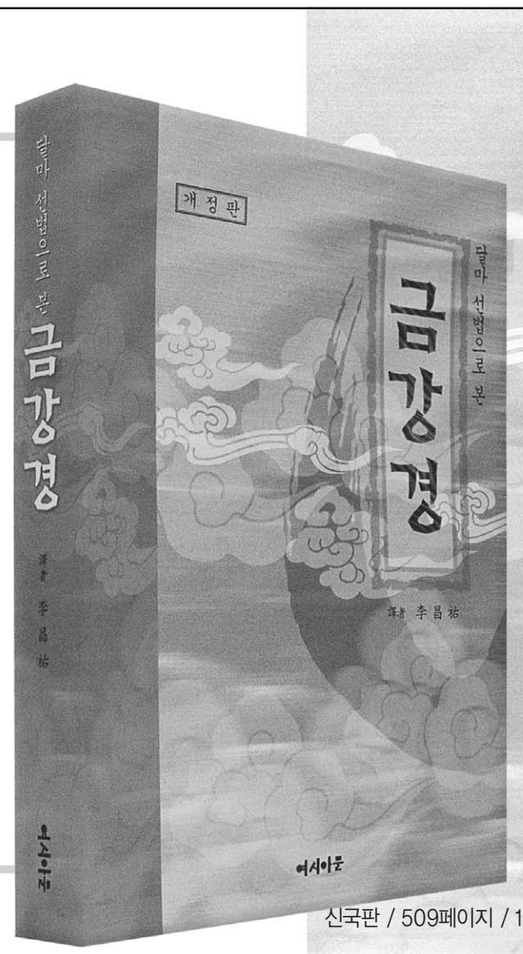
달마 선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스승을 찾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 형식으로 풀어놓았다.

진리는 보편 타당성에 바탕하므로 간명하다
불법 역시 대신 삶을 살아 줄 수 없다는
진리에 바탕하여 주체성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행이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고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찾아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으므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개정판
달마선법으로 본
금강경

일신을 위하는 유위법은 100년을 닦아도 죽으면 함께 없어지지만 마음을 구하는 무위법은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어도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 천하보물이 되므로 마음 닦는 길을 「금강경」이라 한다. 불교의 주체는 육신이 아닌 마음이고, 마음은 생사도, 남녀도, 더럽다, 좋다도 없이 온갖 모습으로 윤회할 뿐 불생불멸이므로 영원을 살기 위해 마음을 구함에 있다.
그러나 범부는 나무의 뿌리는 인정하면서도 육신의 뿌리인 마음은 없다 하고 보이는 일신만 유일한 자신으로 알고 부처를 구하느라 절하고 진언, 기도, 염불과 경전을 읽는다.
이 같은 다문(多聞)을 깨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신국판 / 509페이지 / 12,0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6층 주문전화 02)2004-8237

불·유·도 융합, 불교의 중국토착화 이끈 선구자

중국불교의 거사들 〈2〉모융(牟融) 거사



그림 · 김홍인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중국인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다. 문화적 풍토가 다른 것도 원인이었지만, 그보다는 지형적인 요소로부터 형성된 중국인의 우월 성향이 더욱 큰 요인이었다.

중국은 대륙 한 가운데에서 황하와 양자강을 젖줄로 농경문화를 일으킨 까닭에 화려한 문화를 바탕으로 대체로 인문적 성향을 갖췄다. 이는 주변국들이 수렵을 중심으로 한 것과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대비되는 것으로 중국인에게 깊은 우월감을 갖게 했다. 특히 풍요한 중원을 노리는 주변국들 침략에 중국인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방어의식을 형성하게 됐다. '이하지방(夷夏之防)'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오랑캐(夷)'의 저급한 문화가 '중국민족(夏)'의 우월한 문화를 망친다는 의식으로 이미 선진(先秦)시기에 뚜렷이 형성되어 중국인들이 주변국들의 침략에 대항하는데 정신적인 무장이 됐다.

더욱이 전국시기에 출현한 '제자백가(諸子百家)'의 다양한 사상들을 거치며 중국에는 점차 '유(儒) · 도(道)' 양가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형성됐다. 그에 따라 불교가 중국 땅에 전파되며 점차 확대돼 갈 때, 유 · 도 양가의 사상적 반발이 아주 강렬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교를 "고향으로 쫓아 보내고[放歸桑梓]" 혹은 "천축으로 돌려보내기[退回天竺]"를 기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가 본질적으로 유 · 도 양가와 다르지 않고, 더욱 뛰어난 것임을 밝혀 불교를 널리 퍼지게 한 이가 바로 모융 거사다.

불교 교리 中 전통사상으로 설명하는 '격의불교' 개척

중국인들에게 외래종교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 유도

거사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동한(東漢) 말기 영제(靈帝: 159-189)로부터 마지막 황제인 헌제(獻帝: 181~234) 때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불교사에서 모융은 현존하는 여러 자료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최초의 거사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팽제청(彭際淸)의 〈거사전(居士傳)〉(전56권) 제1권 첫머리에 '모융거사전'을 싣고 있고, 또한 심태(心泰)의 〈불법금탕편(佛法金湯編)〉 제1권에도 수록돼 있다. 그러나 이 전적들에는 그의 행적이 간략하게 소개돼 있을 뿐이다. 모융 거사의 사상은 그가 서술한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에서 알 수 있다. 그의 행적이 비교적 자세히 소개된 것은 승우(僧祐)의 〈홍명집(洪明集)〉 제1권에 승우가 쓴 서문이다. 〈홍명집〉을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소개한다.

모융 거사는 어려서부터 제자백가 전적들을 두루 섭렵했다. 병법(兵法)과 신선방술(神仙方術)을 싫어했지만 그와 관련된 서적들도 모두 읽었다. 특히 노자의 글을 깊이 연구했다. 내포하고 있는 오묘한 도리를 마치 술이나 물 마시듯 하고, 오경(五經)을 거문고나 피리 다루는 것과 같이 했다. 본래 거사는 교주(交州) 창오군(蒼梧郡) 출신인데, 영제가 붕어하고 '황건적의 난' 등의 전란이 일어나자 교지(交趾, 지금 베트남 북부)로 모친을 모시고 피난하였다가 26세에 다시 창오군으로 돌아와 결혼했다.

당시 신선방술이 크게 유행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그를 논하자 거사는 항상 오경(五經)을 인용해 그들을 비판했다. 어떤 도사(道士)도 그와 대적하지 못했다. 이 소문을 듣고 태수가 그에게 서리(署吏) 관직을 주었지만, 학문에 뜻을 둔 거사는 사의를 표하고 관직을 물러났다. 그러나 당시 각 주(州)마다 언어와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은 까닭에 그에게 형주(荊州)에 사신으로 가줄 것을 청한 태수의 뜻을 거절하지 못하고 임무를 맡게 됐다. 형주에서 거사는 그곳 주목(州牧)이 신선방술에 빠져 심한 질병에 걸린 것을 보고 신선방술에 대한 폐해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천하가 전란에 휩싸이고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그 동안 자신이 닦은 학문과 세상에 커다란 회의를 품게 됐다. 이러한 인연은 거사를 불교에 귀의하게 했다.

그는 불법에 심취해 세간 학문들을 비판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사를 가리켜 유가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그에 따라 거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모자이혹론〉을 찬술하게 된다.

〈이혹론〉은 미혹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본래는 〈치혹론(治惑論)〉이었다. 당(唐) 고종(高宗)의 휘(諱)인 '치(治)'를 피하여 〈이혹론〉으로 고쳤다. 〈이혹론〉은 모두 37편. 각 편은 ▲부처님의 명칭, 불도(佛道), 윤회, 보시의 공덕 등과 같은 단순한 용어 설명 ▲계율을 지키는 생활은 즐거움이 없는 것인가 ▲부모형제를 버리고 출가한 승려들은 불효하는 것이 아닌가 ▲도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같은 것인가 ▲도(道)는 무위(無爲)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모융 거사의 답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질문과 답변들은 초보이다. 〈이혹론〉이 찬술됐던 동한 말 일반대중의 불교 인식을 감안하면 수록된 37개 질문은 모두 당시 절실하게 필요했던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거사가 서술한 답변은 비록 거칠지만 이후 중국불교에서 제시하는 진제와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거사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혹론〉은 불교 교의를 불교적 용어와 논리가 아닌 유 · 도 등의 중국전통 사상과 관습으로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부처님[佛]' 명칭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은 시호(諡號)이다. 마치 삼황오제(三皇五帝)와 같이 신성한 것이다. 부처님은 바로 도덕의 원조이고, 신명(神明)의 시초이며 모범이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다시 이어서 "신체를 변화시키기를 혹은 나투고 혹은 사라지며, 크고 작게 할 수 있고, 둥글거나 모나게도 할 수 있으며, 숨기거나 드러낼 수 있고, 불속을 걸어도 타지 않으며, 칼날을 밟아도 상하지 않고, 더러운 곳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는다. 재난에 빠져도 다치지 않으며, 하늘을 날고, 앉으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칭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당시 신선방술이 유행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신선방술에서는 '벽곡(辟穀)' 등 수련을 통해 앞 구절의 신통한 현상을 몸으로 체현할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불사(不死)'의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혹론〉의 뒷부분에서 무엇 때문인지 불전이 아닌 〈시경(詩經)〉 〈서경(書經)〉 같은 중국의 전통전적을 인용해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모융 거사의 답변이 재미있다. "목마른 자는 강을 기다렸다 마시지 않고, 굶주린 자는 커다란 창고를 기다렸다 먹지 않는다. 도는 지혜로운 자를 위해 설하고, 변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위해 통하고, 글은 깨달은 자를 위해 전하고, 일은 식견이 있는 자를 위해 밝히니, 나는 그대가 그 뜻(중국전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용했다. 만일 불경의 말로 설명해 무위(無爲)의 요체를 이야기한다면, 이는 장님에게 오색(五色)을 설명하고, 귀머거리를 위해 오음(五音)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이혹론〉의 찬술의도를 밝힌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진리는 너무 깊어 설명해도 납득시킬 수 없으니 가장 익숙한 것들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융 거사의 의도는 크게 성공했다. 실제로 불교의 교의와 중국관습이 상위된 것을 해결하려는 전적들은 상당수가 〈이혹론〉을 직접 인용하거나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혹론〉은 '격의(格義)불교'의 개척자라 할 수 있다. '격의'란 '의미를 헤아려 바로잡고 맞춘다'는 뜻이다. 불교를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 · 도 등 중국 고유 사상으로부터 유사개념이나 용어를 빌려 설명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예컨대 장님과 귀머거리에게 불법의 만다라와 법음을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불교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

비록 모융 거사의 자세한 행적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가 찬술한 〈모자이혹론〉은 '이하지방'에 젖은 중국인들에게 외래 종교인 불교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거사의 공로는 이와 관련된 저작들 중 최초다. 특히 이후 남북조시기에 전개된 '격의불교'의 방법을 먼저 보인 것은 더 큰 가치로 평가된다.

명 · 청대에 이르러 중국불교는 내부적으로는 '제종일치(諸宗一致)'를 표방하고 외부적으로는 불 · 유 · 도 '삼교일치(三敎一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노정은 이미 거사의 〈이혹론〉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며 '삼교일치'의 중심에는 불법의 진제(眞諦)가 핵심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연구교수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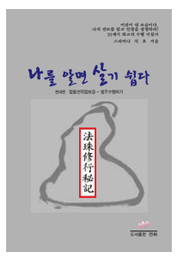
대한불교 원효종
경북남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복원사 영문
교무국장 대 각 사 대각
포교국장 송 학 사 도완
규정국장 연 화 암 일도
사회국장 토함정사 대호

종 도 일 동

■ 종무원 :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1리 875
원호불학원 어림산 복원사
054)745-3646

수행으로 아는 나의 삼세(三世)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를 알면 살기 쉽다
스라마나 석호 지음
연화 펴냄 | 신국판 양장본 360p
수행도구 법주포함 정가 5만원

팔만 대장경 경집부 점찰산악업보경을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놓은 수행지침서로서 부제는 〈법주수행비기〉, 자신이 지은 업력으로 발동하는 인생의 고락길흉을 〈법주〉라는 수행도구와 우주에 작용하는 인연의 힘으로 점찰하여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대처방법까지 밝혀놓음으로써 수행과 현실적 성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던 불자들에게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생각, 말, 행동에 의해 각각 0수로부터 108수에 이르는 숫자의 행로 중에서 자기 인연수가 결정되어지며, 수행의 향상 정도에 따라 인연수가 변화하게 된다.
독자는 이 수행법에 의해 자신의 전생 내지 현재, 미래 모습의 파악은 물론, 매 순간 닥치는 인생진로 및 인간관계의 성패까지도 점검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수행하는 세상, 모두가 부처 되는 세상을 희구하는 수도승인 저자의 서원이 가슴 짠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 불서총판 운주사 -

온라인〈농협〉1343-02-005446 예금주 이성한

구입처 : 도서출판 연화 053) 253-1923 익일택배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무상사 소비자상담실 대리점 모집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 수입금 전액은 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포교기금으로 쓰입니다.

재단법인 21C 한국불교조계종 등록안내

-. 우주의 섭리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 부처님의 진리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비요 연꽃입니다
-. 창종은 창의요, 창조입니다.
-. 종단에 입종함은 진흙속에 연꽃 한송이가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 종단에 등록하시고, 법적 · 행정적 보호를 받으십시요

총무원장 서보현 합장

구비서류
• 사진 5매(반명함판 3×4)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1통
• 혜택 : 사암등록증 발급, 임명장 수여, 승려증 발급

※기타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으로 하십시오.

총무원장 서보현

• 학력 : 동국대학교 승가학과 수료, 부산 경상대학 경영과 졸업,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문학석사 취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3대 총학생회장 피선, 인하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정진
• 약력 : 1961년 송광사 출가, 공주 마곡사 교무역임, 설악산 신흥사 교무역임, 팔공산 동화사 교무역임, 두륜산 대흥사 교무역임, (현) 재단법인 21C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경력 : 홍련암, 봉정암 중건 및 범종불사 회향,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 불사회향, 현풍 유가사 범종각 범종불사 회향, 조계종 9대, 10대 중앙종회 의원
• 특혜 : AIG손해보험 현대해상(무) 하이라이프80평생 의료보험

재단법인 21C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전화 032)518-1588 / 032)554-1080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5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비염 · 천식
아무리 심한 악성,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도 한약복용만으로 조기에 치료됩니다
※ 전화 상담 환영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유림한의원 051)333-445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105-중-2008호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수련이 편안하고 회복이 간편한
선관단식
www.zenfast.com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5)834-1115
016-849-3858

역학 개인지도
정통으로 배워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내 : 정규반 / 전문가반 각 개인지도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 주공 5단지
◇원장소개 : 미래예측학 박사과정 5학기(논문과정) 역학입문 18년, 역학지도 10년, 법학 석사
청하미래예측연구원 · 청하명리학당
02)2202-3632
017-723-5808

대사찰 창건주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금전을 투자하여 모든 운영권과 그리고 건물,대지,지분을 공동으로 등기하고 같이 운영하실분
◇대략구성 : 2층 전각 2채, 대웅전, 대불, 옥외불, 요사채 등
직접 방문하여 의논하시기바랍니다.
016-635-0618

연꽃 그림 전수 및 주문
◇한지에 연꽃그림, 한국화(미표구)
◇소,중,대 (병풍,족자,부채,다포)
◇보시, 불사용(불교용품점 판매용)
◇방문상담가능
● 교육생 모집 : 특별전수(주1회)초보환영 (전국방문 개별지도 가능)
연 꽃 화 가
018-588-5698

전국 어디든 암자, 사찰, 사찰터 무료보시 해주실 큰마음, 큰사랑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스님은 청정비구로서 (세속 50대중반) 도심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부처님을 옮겨 모셔야 할 딱한 처지에 있어 스님들과 불자님의 큰사랑과 따뜻한 관심, 인연을 기다립니다.
051)816-3562
누구나 힘든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연락주세요.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시 동구 봉무동 196번지 개원사
053)981-0664
053)981-0995
016-515-066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
011-9394-001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043)643-4733
019-540-7450

천일기도 하면서 지내실 비구·비구니 스님과 처사, 행자님, 법사님 모십니다
011-561-6644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011-591-8228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기도 요양하실 여자분, 여생 보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행자(여자)스님 모십니다
051)502-656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월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부전스님 구하는 사찰은 연락주십시오
(100일 기도, 천일기도 가능)
010-7257-3198

비구니스님 되실 분과 남은 여생을 부처님과 함께 지내실 보살님을 기다립니다
▷경남 김해
017-544-7200

오래계실 부전스님 종무실, 법당 보살, 거사님 모십니다
051)242-1684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공부 요양하실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 청강사
055)932-5706
016-9506-5706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대구 팔공산 신라 천년고찰)
011-9176-4403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일주 통달, 양력)

기도하면서 지내실 노부부 모십니다
기도하실스님, 스님하실 행자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561-6644

도반처럼 함께 수행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행자모집>
남원시 사내면 서도리 519 호성사
063)626-4848
010-8604-8484

50대 비구로서 기도스님, 부전스님 자리 원합니다
(50대 비구승)
010-8736-8910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미만 비구)
▷경기도 사찰
011-722-3418

불화작가 참나 박경귀의 홈페이지 개설
www.zenart.kr
불화 갤러리 / 불사상담 / 선불화공방 소개
02)733-0730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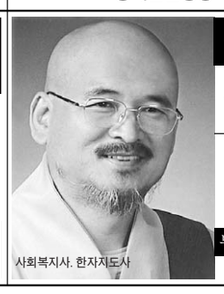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易) 정통 命理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져 하는 분
전문가를 위한 學堂
命理學의 모든것
정통교재-명리학 비전
명리학 비결
四柱 비법완성 교재(책)
각권, 삼만원
明陽 命理學堂
인천 032)330-4684 / 032)503-4684

역 학 공 부
●사주초·중급 : 월요일 18: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양택 풍수 인테리어: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일확월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21c 불교수행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종단
(사)生活佛教曹溪宗
總務院長 法雨
元老院長 慧覺 宗會議長 慧岩 監査院長 道林 護法院長 慧泉
教育院長 如林 布敎院長 眼淨 文化院長 道炅 事務局長 如炅
●본 종단과 뜻을 함께할 종도(행자 사찰등록)를 모십니다.
●사찰창건시 행정업무 기본의식 포교방편 도와 드립니다.
●각종의식(천도재 점안식 ..등) 여법하게 봉행해 드립니다.
生活佛教 曹溪宗 總務院 02)3663-8416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졸업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初發心自警文 강좌안내
◇ 개강 : 매주 금요일
◆1 - 2시 30분 自警文(야운스님) 4개월
◆3 - 4시 30분 誡初心學人文(지눌스님) 2개월
◆5 - 6시 30분 發心修行章(원효스님) 2개월
출가수행자는 진리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두눈 똑바로 뜨고 곧장 나아가 어떤 집착도 남기지 않는 열반의 경지를 얻기 위해 출가한다고 했다. 오직 이 경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이는 드물다.
蓮華藏世界 初發心專門講堂
彌昊 합장

한자 속독 한글
한꺼번에 정확하게 **습득**되면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는 **세계 최초 속독의 원리와 한자의 특수성**을 활용한 획기적인 **과학적 속독교육**
(발명특허출원 56648호)영재교육
■ 3시간 공부를 1시간에 ~ (절약 3배)
◆시간이 부족한 스님, 공부하는 학생
010-2831-8426 / 02)723-8426 (조계사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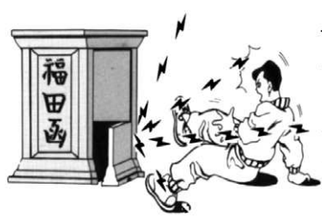
(社)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탈종공고

●사찰명 : 연화정사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1리 산51번지
●법 명 : 원봉(최병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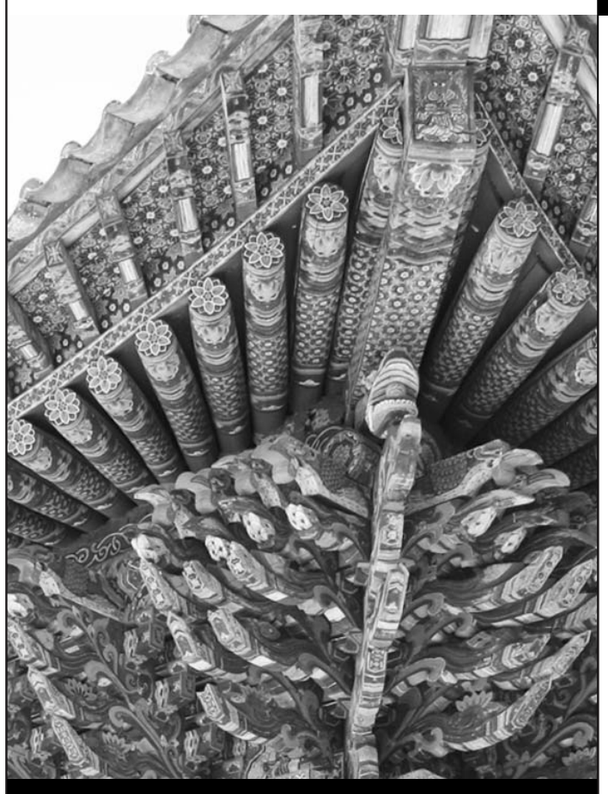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을 이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3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 동해안	●위치 : 경남	●위치 : 부산
●법당 : 27평	●법당 : 25평	●법당 : 50평
●요사 : 25평	●요사 : 40평	●요사 : 100평
●부지 : 357평	●부지 : 350평	●부지 : 135평
●가액 : 3억2천	●가액 : 7억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 안내 (30년생)
- 위치 : 경남 의령읍(10분)
- 총평수 : 3,000평 (밤나무산 포함)
- 법당(조립식)1동
- 요사 : 약 37평(방3칸,주방,욕실,마루)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만 연락요함
- 가액 : 6,000만원

- 위치 : 김해
- 부지 : 1200평
- 법당 : 27평(목조)
- 요사2동, 산신각, 주차장(200평)
- 좌우 청룡백호(뒷산 홍송 수백주)
- 동남향, 탁트인 전망
- 가액 : 7억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사찰, 암자, 기도원용 부동산 매각 안내

서울 강남지역에 소재한 사찰, 암자, 기도원에
적합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각 안내 합니다.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산 67번지 일대
- 면적 : 임야 40,600㎡(약 12,300평) / 건물 2개동(약 112㎡)
- 양도가격 : 협의 결정
- 기타 : 1.경부고속도록 서초 IC와 양재IC 중간지점
  2. 대로 인접하였고 차량 진출입 편리함

연락처 : 황인석 011-9704-3200
양동규 011-2 5 8-6032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포신도시
- 45평 법당, 사무실,
  스님방, 대중방, 공양실
  주차장있음
- 보증금3천, 시설비절충
  건강상 급양도

011-763-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야산 해인사 부근
- 부지 : 754평, 대웅전 : 20평
  (삼존불, 약사불, 칠성탱화,신중탱화)
- 산신각 : 6평(산신탱화)
- 요사채 : 45평(나무 기름겸용 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9천5백만원

010-6835-7370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
  (파계사 근교)
- 대지 : 43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20평, 별채 : 4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6억 5천만원

대구시내.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 20억
  평수 금액 다양
- 사찰전문가와 친절상담

019-534-723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시내
- 평수 : 종교용지 438평
  법당 8평(목조),
  벽돌기와집 요사채 30평,
  심야보일러, 산신각, 칠성각
- 가액 : 2억 3천만원
- 40~50년된 사찰
  뒤에는 산, 앞은 계곡

011-9581-60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1-9005-25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평수 9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채(방4)
-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38-489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2층 60평
- 주차완비
- 방2, 주방1, 에어컨 3대
- 삼불, 산신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5천만원, 관리비 포함
  월 220만원 / 시설비 5천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88-3133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가액 : 총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상담 후 결정(대출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시내
- 2층 43평
-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8622-12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950만원

017-393-1127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1,900만원

053)942-34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고덕동
  (5호선 전철역 5분거리)
- 위치 좋음, 정남향
- 건평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20만원
  시설비 500만원(절충가능)

02)3426-1357
010-8726-13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 대지 : 330평
- 법당1, 방4, 창고
- 가액 : 5,500만원

054)733-7225
010-7340-8765
010-7484-6885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불사한지 6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100평
- 대웅전 약30평, 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개발사용
  연못조경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저렴한
  적정금액으로 급 안내함
- 가액 : 1억5천만원
  (신협융자 3500만원 있음)

019-245-8929

사찰(급)분할 양도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구에서 40분거리 국도변)
- 대지 600평, 별도 국유지
  1200평 사용가
  건평 80평, 법당 25평
- 삼존불, 방7, 주차장 완비
  노인요양원 허가신청 해 놓음
- 계약 후 불사하여 분할 지불도
  가능한 좋은조건
- 돌할배 법사와 함께 사찰에
  계실 비구 ·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인수금 : 2억5천만원
  (융자 9700만원)

053)471-3123
017-501-2315

포교원법당 인수 하실분

(사정상 급 안내)

- 위치 : 청주시 모충동
- 27평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삼존불은 동불 입니다)
- 즉시 법회 가능

010-8260-63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대학 근처
- 사주보실스님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877-774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1층 단층 건물
- 법당 28평, 방 2, 주방 1
- 보증금(시설비 포함)
  2,000만원 / 월 35만원

010-5040-272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상담 후 절충

043)744-3331
011-491-234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임법당
- 대지 20평, 건물 20평
- 주위 아파트지역 등산로길
- 가액 : 7천만원
- 비구니스님, 보살님 적합
  몸만 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 분 절충가능)

018-363-6665

임법당 최적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
  (낙동강주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3년) 60평
- 현재 식당으로 영업중이며
  강산이 어우러져 사찰
  (포교당)로 적합
  (주변경관 수려)
- 심야전기시설, 주차장 완비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1-803-7448

사찰(임대) 구합니다

- 월세나 선세

010-8828-3002
016-478-76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법당 40평(3층 건물중 2층)
- 가액 : 7천만원
  (전세 5천만원, 시설비 5천만원)
  중간세도 가능함)

053)759-0108
011-506-2282

전원주택 급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읍
- 관리지역(전) 2300평
- 대지전용 300평
  황토전원주택 35평(심야전기)
  스틸창고 38평(천고 6m)
- 가액 : 4억6천만원(전부포함)

017-531-28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여주경계
- 부지 : 임야 관리지역 1690평
- 종교용지 : 362평
- 건축물 : 145평
- 대웅전, 삼성각, 종각,
  종무소1, 2층, 요사채
- 남향의 아담한 기도수행도량
- 가액 : 5억3천만원

017-372-8968

사 찰 안 내

(부산 대 사찰)

- 총 평수 : 1,000평
- 한옥법당 25평, 요사채 3동(80평)
- 약사여래불(입불) : 15척
- 산신각, 명부전, 종각, 용왕당,
  화장실 2동, 창고 2동
- 사내 차량 60대 주차가능
- 가액 : 12억(절충가능)

011-563-1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 3층 약30평
- 법당, 방2, 주방, 거실, 욕실
-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절충
- 철학스님, 무속인 최적지

010-5364-003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
  (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0-6287-35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태평동 시장입구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130㎡(40평)(3층)
- 삼존불,후불,신중,칠성,
  산신탱화,미륵불,동불(5자)
  방2,주방,실내화장실,
  에어컨 및 모든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42)525-5355
018-456-6339

사 찰 중 개

●위치 : 경기	●위치 : 동해시
●부지 : 1,000평	●대지 : 90평(200평)
●법당 : 35평 목조	●법당 : 22평
●요사 : 30평	●요사 : 30평
●가액 : 9억	●가액 : 9천(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어린이집(급)안내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379-0591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포 교 원 임 대

최고요지

- 평수 : 40평
- 울주군 온양읍 재래시장 맞은편 2층
- 삼존불, 탱화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교통편 :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010-6665-6990

사찰 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500m(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1-875-3513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 땅 1천평 중 종교용지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바다가 잘 보이는 수행도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7109-6074
054)293-2074

서울 암자와 일본암자 양도안내

- 영주권을 취득한 사찰임
- 운명감정을 할줄 아는 분 유리함
- 토지 약50평, 건물 34평 2층 개인등기 확실함
- 동경 나리따 공항에서 각각 1시간 거리이며
  여의도 면적 약 20배 크기의 유명한 호수와
  세계에서 제일 큰 아미타여래 입불
  (기네스북에 실려있음)이 있는 명승도시임

- 서울 암자는 33평 정능입구 우체국에서 5분 거리
- 서울시 공원예정부지에 위치
- 3천만원 들여 수리 및 리모델링 함
- 은행융자 4400만원 有

02)914-3958
010-8368-3958 (주인직접)
일본 001-8129-842-6833



불자 세상보기

이 병 인
부산대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태안 유류사고와 불교계의 역할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충남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우리나라 환경사상 최악의 해상 기름유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그동안 '검은 재앙' 앞에 죽어가던 바닷가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아래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빨리 복구되어 가고 있다.

어느덧 태안유류오염사고가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전 국민 자원봉사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 1996년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 시 전국적인 서명운동이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일반국민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로 100만 명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한국환경사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기록한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운 사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어려운 국가적 재난을 당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해결하고자하는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하튼 이번 사고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문제점과 방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는 사고선박의 무관심과 무대응이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안전대책에 신경을 썼더라면, 사고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확실하고도 책임 있는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1995년에 발생한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유류오염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이번 사고를 참조한 철저한 분석과 관련 매뉴얼, 전문성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는 전국에 걸친 전 국민의 참여로 인한 자원봉사가 잘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사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유사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는 이번사고와 같은 자원봉사가 단지 눈에 보이는 몇 달만의 단기간에 걸친 일시적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더욱 복원되기까지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긴 호흡으로 준비해 가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2005년 미국에 머물 때 카트리나 사고를 보면서 미국사람들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했다. 사랑과 봉사의 실천행이 중요함을 잘 알 수가 있었다. 미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다방면에 걸친 자원봉사와 건전한 기부문화였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전반에 걸친 나눔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태안 사고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 또한 초기부터 종단과 해당지역 본사인 수덕사,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왔다. 그동안 불교계가 안고 있던 우리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적 관심사에 몸으로 솔선수범하는 실천행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태안 사고는 특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피해주민과 해양복원에 관한 충분한 보상 및 장기적인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성금의 조성 등 지원이 절실하다. 아직도 제대로 방제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고, 해양오염의 특성상 한 두 해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관리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이미 불교계는 상당히 조직화되어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단기간에 걸친 관심과 행동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관심과 활동으로 적극 준비하고 활동해 가야 한다.

불자의 눈

성도절의 정진 생활로 이어져야

1월 14일 성도절 전야에 전국의 사찰에서는 승가와 재가 구분 없이 철야 용맹정진을 했다. 동안거 결재중인 선방문을 열고 재가불자와 함께 정진을 한 사찰도 있다. 성도절 전야의 철야용맹정진은 수행과 교화를 본분으로 하는 불교의 힘이다. 부처님 되신 날을 기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하는 불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의 의미와 하루속히 성불을 하기 위해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자들은 성도절 전야의 철야용맹정진을 한 번의 경험으로 묻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수행과 생활은 둘이 아니다. 살아 있는 매순간이 희노애락의 범주 속에 있다면 연기(緣起)하는 모든 관계를 초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이 바로 수행이다.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에 대한 집착을 떠나는 것이 수행이다.

성도절 전야의 철야 용맹정진은 성도절을 기리는 행사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다지고 발심의 끈을 조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 매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닦고 또 닦아야 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여 자신의 삶이 맑고 향기롭게 변할 때 주변 사람에게 행복의 향기를 나누 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매순간 수행하는 불자가 되자.

"불교계 공약 지키겠다"에 기대

"후보시절 공약한 대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세계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마련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 하례법회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한 다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후보시절 대덕 큰스님들의 불교적 가르침과 조언이 큰 힘이 됐다"는 말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교계로 인해 힘을 얻은 바 있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세계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의 재다짐'인 셈이다. 전통문화란 말로 포괄적인 표현을 했지만 분명 불교문화를 포함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불교문화는 종교적 범위를 초월한다. 민족의 역사에 내포된 불교문화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사회에서도 불교문화는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부합된 코드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라는 개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명박 당선자가 불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말한 전통문화는 불교문화를 크게 내포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당선자는 새로운 정부를 이끄는 동안, 불교관계법의 개정을 비롯 문화재 보수 관련 예산 증액 등 불교계에 대한 각종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불교계에 지켜야 할 약속은 종교적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장 시절부터 불교계와 종교편향 문제로 질타를 받는 전례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부기구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믿는다. 이명박 당선자는 드러나지 않은 대불교계, 혹은 대종교계 공약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간 상생과 화해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깊은 믿음은 즐거움과 지혜로운 행을 낳는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㊽ 만리장성과 영원한 불성

불가능을 극복한 성

이씨는 얼마 전 공무로 중국 북경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침 북경의 명소인 만리장성에 가게 되었다. 안내해주는 분이 "운 좋은 줄 아세요. 예전에는 무조건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가야만 했어요" 한다. 이제는 케이블카가 생겨서 산 위까지 6인용을 타고 올라갔다. 거기에서 정상까지 약 한 시간을 걸어 올라갔다.

사방 어느 쪽을 둘러보아도 능선마다 장성은 끝없이 굽이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규모는 과연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 옛날에 이렇게 높은 산 위에까지 그 큰 돌을 어떻게 운반할 수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이었다. 또한 크기를 맞추어 정교하게 쌓아올린 돌을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지 짐작이 되었다. 묘지라고 불릴 정도로 성을 쌓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한다.

특히 정상근처의 길은 무척 가팔라서 옆의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야할 정도였다. 걸어만 가도 힘든 이 산길 위에 어떻게 이런 공사를 했을까 생각하는데 동행하던 분이 "정말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는가 봐요"라고 하였다. 동감이었다. 그 옛날에 이런 성을 쌓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시황의 명령으로 중국인들은 해낸 것이다. 이씨는 그 모든 무명영가들을 위해 마음을 내었다. '부디 모든 고통과 집착을 놓으시고 벗어나소서. 부처님, 그들의 마음을 밝혀 주소서.' 원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성을 쌓은 후에는 감히 중국을 넘보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온 남녀노소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으니 역사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영원의 꿈, 불성

입장권에는 2008년 북경올림픽 상징문구가 자랑스럽게 쓰여 있었다. 'One World, One Dream(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다.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은 죽지 않는 불사약을 구하려고 애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꿈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었다. 진시황은 불교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영원히 죽지 않는 불성,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헛되이 세상 속에서 찾으며 많은 악업을 지었다.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그는 중국에서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가 웃으며 "난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영원한 불성을 믿고 마음정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황제와는 비할 수 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는 세간의 황제일지 모르지만 전 불자, 부처님의 자식인걸요" 한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불성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불성은 무시(無始) 이래로 있어왔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불성은 진리요 영원이요 모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떠올랐다. 세상 모든 이의 꿈은 바로 성불의 깨달음이었다.

마음의 힘으로 장성을

성불의 꿈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적군은 탐진치에 젖은 습관과 무기력감, 고통과 문제를 극복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었다. 정작 견고하게 쌓아야 할 성은 내 자신 내면의 마음의 힘임을 절실하게 느꼈다.

또 아무리 만리장성이라 해도 첫 돌부터 하나하나 쌓아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래, 아무리 성불의 길이 멀다 해도 또 가다가 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꼭 보살의 원력을 이루어내어야지. 다음 생 또 다음 생에도 역시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겠다" 하는 다짐을 이씨는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만리장성을 보며 이씨의 내면에는 광대무변한 부처님 마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일본 체류 수행자 입방 안내

대상
비구, 비구니, 법사(남·녀), 포교사

조건
1 입방자는 학력, 연령제한없음
2 3년수행후 본종단에 입방을 원할시에는 영구 상주 가능
3 입방 상주자에게는 생활보장 영주권 취득시까지 행정적 지원함
4 일본에서 사찰 개원하고자하면 본 종단에서 적극 지원함

문의
– 일본국 주소
◆ 우편 619-1401
日本國 京都府 相樂郡 南山城
村童仙房 8番地 總本山 高麗寺
이메일 mandeuk@yahoo.com
◆ 일본 직통 휴대폰 001-81-090-3719-1571
전 화 001-81-0743-93-0843
팩 스 001-81-0743-93-0670
◆ 우편 544-0033
日本國 大阪府 大阪市 生野區
勝山北 5-12-39 大本山 普賢寺
전 화 001-81-06-6712-1015, 1016
팩 스 001-81-06-6741-1755

중앙불교대학원 학인 (승려, 행자) 모집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現 무사암 주지)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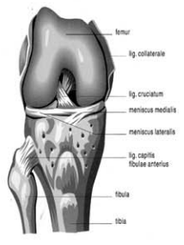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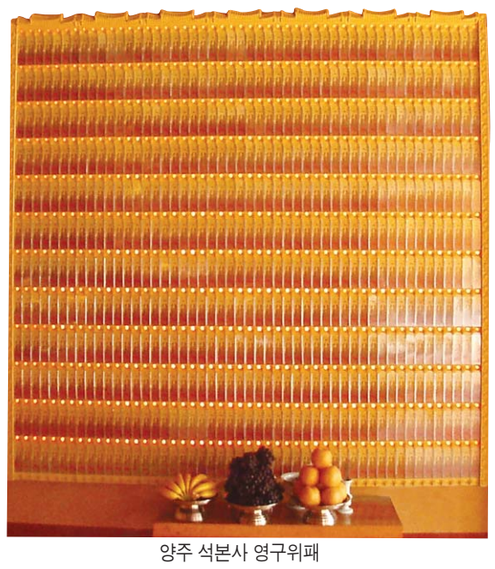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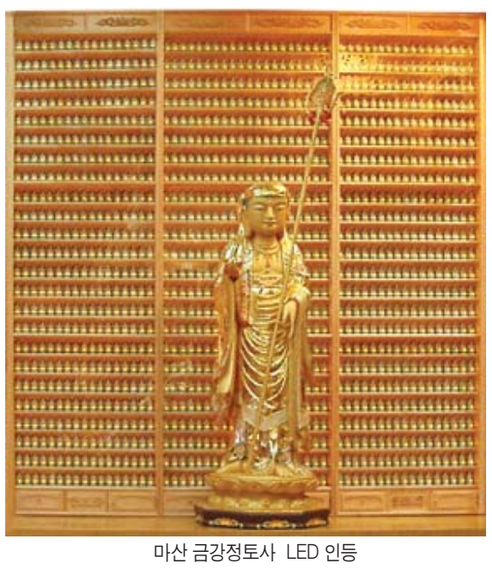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자동 승강 장치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 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연료비 90% 절약

11년 전통 국내 유일 온수전문 업체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



(보급형 1인용) 시판 6주년 기념 첫세일 129,000원 100개 한정판매

웰빙 온돌방의 특장점

- **국내산** 온수매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100% 국내산입니다. 품질이나 A/S면에서 아주 우수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 **경제성**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유사제품과 비교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루 10시간 기준, 한달 전기료 약 4,000원)
- **안전성** 온수매트는 전선이 아닌 호스를 사용한 온수난방식이기 때문에 유해전자파가 전혀 없습니다.
- **쾌적성** 인체에 해가 없는 내열호스를 사용, 제품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쾌적한 난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건강소재** 금사 원단처리로 청소가 간편하고,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비싼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으며, 주무시고 나면 몸 전체가 가뿐한 웰빙온돌방입니다.

MBC 불만제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07년 11월 29일 TV 방영

- ▶전자파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방출되어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 인체에 에너지 회전을 방해하며 뇌파침전도 검사 결과 수면방해로 숙면을 취할 수 없음.
- ▶인체를 피곤하게 만들며 면역력에 문제가되는 전자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
- ▶대한민국환경부에서 2005년 5월 『전기장판은 임산부와 어린이는 사용금지 권고』를 발표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큼.

특허청
▸제0271605호 ▸제0002626호
▸제0347807호 ▸제0008462호
▸제0347808호 ▸제0000097호
▸제0335837호 ▸제0027500호
▸제0002625호 ▸제0002661호
등판 : 제 2007-3210121-30-2-10717호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실 매트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 부분만 따뜻하지만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좋습니다.

대진하우징은 지난 11년간 온수침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6년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수매트의 선두주자이며, 시스템은 같아도 타회사와의 기술력의 차이는 큽니다.

보급형 (한정세일가) 1인용 ~~158,000원~~ ➡ 129,000원 / 2인용 ~~178,000원~~ ➡ 149,000원

고급형 1인용 178,000원 / 2인용 198,000원 고급형 지로분할가 1인용 : 41,000×5회 / 2인용 : 46,000×5회

대진하우징 주문전화 080-338-3388

■ 입금계좌(농협) : 1285-02-011378 이 현 실